

KJB: THE BOOK THAT CHANGED THE WORLD

영어 성경의 역사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

400년간 온 세상을 변화시킨 단 하나의 성경!! [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목·정동수 번역



 그리스도 예수안에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저자 /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번역 / 김용목 정동수

1판 1쇄 / 2016년 6월 15일

2판 1쇄 / 2021년 7월 1일, 2판 2쇄 /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51-7 03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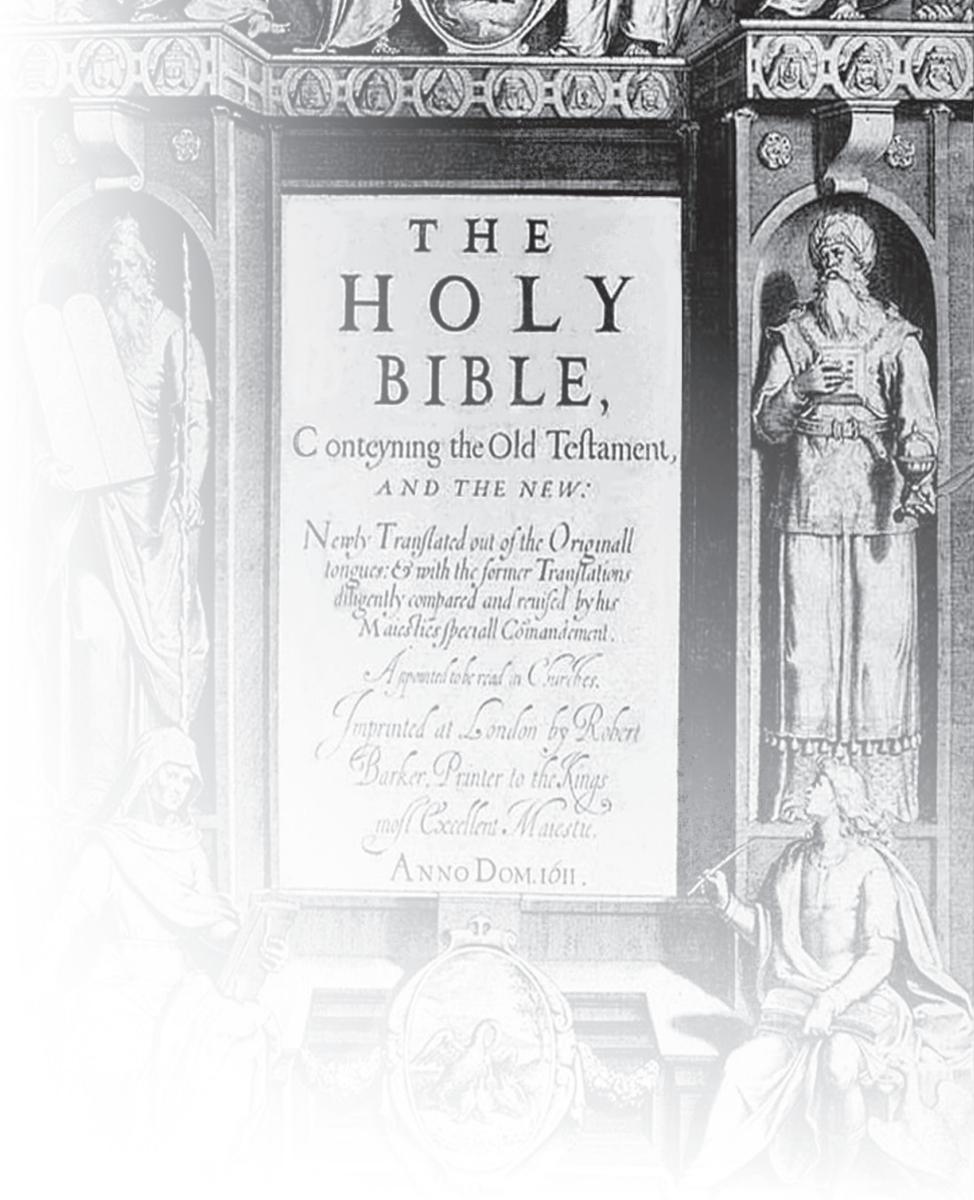
값 7,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본서에 있는 성경구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그리스도 예수안에, 2021)에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묵·정동수 번역



“KJB:
The Book That Changed The World”

— In Christ Jesus —

세상을 바꾼 단 하나의 책, 킹제임스 성경 탄생 스토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히1:1-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개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 성경으로 나뉩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크게 율법서와 대언서, 그리고 거룩한 기록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당시의 일반 통용어였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 일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0년경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요20:30-31; 요일5:20).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 줍니

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 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이 귀한 성경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으며 지금 이 시각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합친 성경전서가 영어로 처음 등장한 이래로 모든 교회의 모든 신학과 교리를 세우면서 지난 400년 동안 전 세계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매김한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배경을 아십니까?

이 책은 1611년 5월 2일,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등장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보여 줍니다. 또한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현대 모든 성경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한 성경인지 그 이유를 보여 줍니다.

이 책은 총 4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의 의미’라는 제목의 1부는 성경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성경의 전달 과정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과 추세 등을 보여 줍니다. 이 책의 중심인 2부는 2011년에 나온 영화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KJB: The Book That Changed the World)의 대사와 해설을 그대로 옮기면서 다듬은 것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몇 중요 사항은 각주를 달았습니다.

3부는 부록으로 영어 성경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 줍니다. 영어 성경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 보존의 역사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양식 있는 성경 신자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4부에서는 왜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설명하고, 맨 끝의 부록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특성과 장점을 현대 역본들과 비교한 안내를 넣었습니다.

니다.

각 부의 내용들에 다소 중복이 있으나 논리의 전개상 필요한 부분이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영화 <킹제임스 성경: 세상을 바꾼 책>을 만들고 또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 해준 영국의 1A 프로덕션에 감사드리고, 우리말 자막을 넣어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전주 소망침례교회 김재근 목사님, 영화 대사 번역 및 자막 작업을 해준 김용묵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영화 부분을 책의 형태로 풀고 전체 편집을 해주신 김재욱 형제님, 교정을 봐 주신 울산의 김상진 형제님, 그리고 김대용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섬기기 위해 애를 쓰는 모든 성경 신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

2016년 6월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주었다.

제1부 |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의 의미 10

제2부 | KJB: 세상을 바꾼 책 25

프롤로그: 세상을 바꾼 위대한 책 이야기

1.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망과 떠오르는 후계자
2. 여왕이 지목한 후계자 제임스 6세
3. 섭정들의 틈바구니에서 자란 어린 왕
4. 당대 최고 석학 뷰캐넌의 제자가 되다
5. 청년 제임스, 왕에서 하나님의 군주로
6.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나라의 왕이 되다
7. 감독들과 청교도들, 두 세력의 대립에 던진 승부수
8. 최고의 새로운 성경에 내려진 왕의 명령
9. 하나의 성경 역본을 향한 역사적 출발
10. 성경 출간을 막아라! 포크스의 화약 음모 사건
11.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본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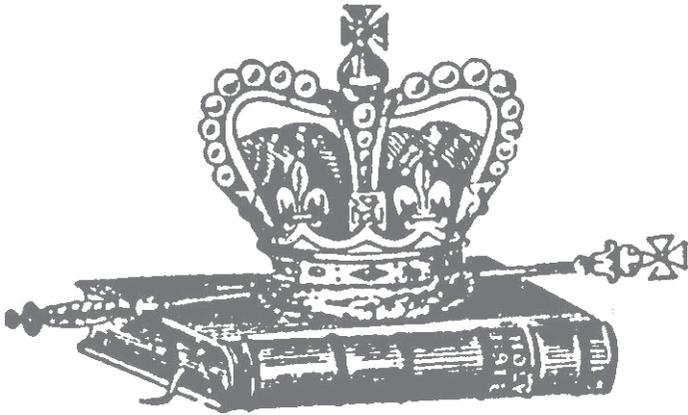
에필로그: 제임스 왕이 남긴 두 가지 유물



제3부 | 영어 성경의 역사 114

제4부 |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156

부록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안내 180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전도서 8장 4절)

Where the word of a king is, there is power:

and who may say unto him, What doest thou? (Eccl. 8:4)



제1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의 의미¹⁾

루시퍼? 알긴 아는데 어디서 봤더라…?

수년 전부터 전 세계로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이제는 세계 청소년들이 따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중 ‘루시퍼(Lucifer)’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루시퍼가 사탄 마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이 노래에 우려를 표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독자께서는 이것이 마귀의 이름인 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보여 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곧 당황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펼쳐 아무리 찾아도 마귀의 원래 이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름은 왜 흔히 보는 성경에 없을까요? ‘루시퍼’라는 이름은 대

1) 이 글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주변역자 정동수 목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을 맞아 2011년 9월 13일에 언론 홍보용으로 쓴 것으로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는다.

체 어디에 기록돼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은 이 이름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신국제역본>(NIV)과 <신미국표준역본>(NASV), 개역성경, 공동번역 같은 현대 역본들에는 이 이름이 없습니다. 루시퍼 대신 '계명성'과 'morning star' 등의 이름으로 대치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14:12). 이런 말들은 '빛을 나르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루시퍼의 원뜻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묘하게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지칭한 '새벽별(morning star)'과 같은 표현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갈보리'(Calvary)라는 단어도 구경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역시 개역(개정) 성경, NIV 등에는 없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아 읽기가 어렵고, 주요 부분이 바뀌어 있거나 지워져 있습니다. 이단이 찾아와서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느냐고 따지면 어느 구절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구절을 들어 조직 신학 기법으로 변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구절이 성경에 명확히 표현돼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요일5:7).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어딘가에서 들었던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편견과 지식을 모두 접어놓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의 출간과 성경의 역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의 시기를 나누는 중요 사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기원전(BC)과 기원후(AD)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었

습니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개발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517년 가을의 종교 개혁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누는 획기적인 혁명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라는 종교의 틀에 갇혀 암흑시대를 살던 중세의 민초들에게는 천 년 가까이 성경을 읽을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선조들은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암흑시대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오직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발각되는 즉시 당사자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말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역행하는 카톨릭교회의 불법들이 즉각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암흑시대에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이라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결국 화형을 당하기에 이르렀는데, 화형 직전에 그가 외친 명언이 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화형 순간에 기도하는 틴데일의 삽화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로마 카톨릭 교황의 하늘을 찌르는 권력 앞에 대항하여 성경을 번역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즉 국왕밖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번역자들의 이런 기도는 머지않아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제임스(James, 야고보) 1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헬라어)에 능통한 50여 명의 학자들을 동원하여 면밀하고 완벽하게 성경을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틴데일 등이 이미 번역한 이전 역본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지금부터 400년 전인 1611년 5월 2일,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출간되어 영적 갈증을 호소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영어의 확산과 함께 온 세상으로 나아갔으며 문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 성경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세상을 바꾼 책’으로 온 세상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발간된 지 채 30년도 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 수천 군데를 개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실제로 NIV 등이 그러함)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 신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들어간 성경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전달 과정

인류의 생사화복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啓示)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뜻하며 보통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으로 사람의 양심이나 해, 달, 별 등과 같은 자연 만물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시19:1-6; 롬1:18-32).

사람은 이런 계시를 통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계시는 결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 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적, 우림과 둠뫼, 천사, 예수 그리스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객관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그 외의 것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크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죽은 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전(主前) 1500년부터 주후(主後) 100년까지 약 1,600년이라는 기간에 40여 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왕, 정치가, 제사장, 세리, 어부, 의사, 목자, 사도 등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 밑에서 완전한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비(豫備)의 단계라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예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영감(靈感)이라는 단계를 통해 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3:16)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영감(Inspiration)은 ‘숨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벧후1:20-21)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불어넣어 주신 책이며 우리는 이를 ‘총체적 축자 영감’(verbal plenary inspiration)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자필 원본(自筆 原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존(保存)이라는 단계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간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자마다 친히 숨을 불어넣어 완전하게 만드신 후에 만약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영감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완전한 보존’이 없다면 ‘완전한 영감’이란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의 속성 역시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감을 ‘일차적 기적’이라고 한다면 보존은 ‘이차적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보존에 대하여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사40:8)고 확증해 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고 말씀하시으로써 말씀의 보존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으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 전체를 그 당시 온 세상의 공통어이던 그리스어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보존의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단계를 통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 경로에서 그다음 단계는 번역(翻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후 100년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많은 역본(譯本)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번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자필 원본이 이 넓은 세상 곳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그 나라 사람 개개인을 구원합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번역의 단계가 영감이나 보존의 단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본’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번역을 위한 대본(臺本)입니다. 자필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을 필사(筆寫)한 사본(寫本)들도 많기는 하지만 현존하는 그 어느 사본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본들을 정리하여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렇게 정리된 대본을 본문(本文)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볼 때 번역을 위한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는 데 있습니다. 무슨 제품을 만들든지 그것을 찍어내는 틀이 어떠한가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역본 역시 본문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내용이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경우,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벤 카임의 ‘전통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진 그들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보존했기 때문에 20세기 초까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欽定譯) 성경(King James Bible, KJB)의 구약은 바로 이 본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키텔(Rudolf Kittel, 1853-1929)이라는 학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본문 번역에 사용된 ‘벤 카임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을 사용하여 1906년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1판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평 장치’(critical apparatus)를 각주 형태로 모든 페이지의 하



루돌프 키텔

단에 도입하여,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 본문과 배치되는 이문(異文)들을 삽입함으로써 신학자들이 전통 구약 성경 자체를 의심하고 고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각주라 하지 않고 비평 장치라고 하여 무언가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본문을 의심하게 하는 난외주²⁾입니다.

2) 신문, 잡지, 책 따위에서 본문 가장자리를 둘러싼 줄의 바깥쪽에 기록하는 주석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나 1929년에 키텔이 죽은 뒤 독일의 위템베르크(Württemberg) 성서 공회는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1, 2판의 저작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칼레(Paul. E. Kahle, 1875-1964)를 시켜 유대인들의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평균 15~20군데씩 수정함으로써 완전히 본문을 바꾸고는 마치 키텔이 편찬한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1937년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보통 키텔의 히브리어 성경 3판이라 불림)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후에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개정 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20,000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NIV와 NASB 등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의 구약이 BHS를 근거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고 어느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경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共認) 본문’(Textus Receptus, *TR*)인데 이 본문의 특징은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며 사용해 왔다는 점이고 그 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도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고, 카톨릭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며,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과 침례 성도들이 한결같이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온 것과는 달리 로마 카톨릭교회는 처음부터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소수 본문’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으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신성, 대속, 삼위일체 및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 교리에 대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보존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본에 근거해서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공인 본문'을 무려 5,604군데나 수



웨스트코트
(Brooke F. Westcott)



호르트
(Fenton J. A. Hort)

정하여 소위 '수정 본문'(혹은 비평 본문)이라는 개악된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한 단어는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에 해당합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후에 1898년에 네슬레는 그 두 사람의 수정 본문과 티센도르프의 제8판과 위마우스의 제3판을 사용해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편집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어 성경이 현재 출간되고 있는 대다수 현대 역본들의 대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현대 역본들의 내용 차이는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귀결이고 그 결과 새로운 역본들의 교리 변화로 인한 새로운 기독교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역본이 출현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물건 고르듯 자기 뜻에 맞는 역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비치하고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구절은 이 역본이 좋고 저 구절은 저 역본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과 공헌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군에 의해 무참히 패배를 당한 뒤 보잘것

없던 십나라 영국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를 통해 두 가지 일 즉 자신의 선민인 유대 민족을 보호하는 일과 자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통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합쳐진 성경전서가 나오게 되었고,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 지배하의 암흑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빛이 나오게 되었으며, 산업혁명 등을 통해 인류의 복지 증진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어 중심의 세계 판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이제는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궁홀이 풍성 하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400년간 영어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말씀을 전파해 오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번역본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며 특별히 전 세계의 공통어가 된 영어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을 표준 척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영어 성경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읽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권위를 부여받은 성경’이라는 호칭, 즉 ‘권위 역본’(Authorized Version, AV)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사용하는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18~19세기 미국 및 영국의 부흥과 전 세계 복음 전파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The Holy Bible) 하면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우수함에 대해, 1989년 국내에서 출간된 <툼슨대역 한영성경> 편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평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지혜사, 부록 1, p. 4, 1989).

21세기의 성경 전쟁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행위와 무관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 즉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육적, 영적 모든 활동의 표준이 되는 척도이며 따라서 이런 표준 척도는 시대에 따라, 사람의 눈이 밝아짐에 따라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논쟁이 크리스천들 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려 100종이 넘는 책들이 소위 ‘성경’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1993년 말에 미국 성서공회는 <새 시대를 위한 좋은 소식>(Good News For A New Age)이라는 뉴에이지 성경도 버젓이 출판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

이처럼 상대 윤리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신학과 말씀 선포에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표준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에 NIV가 나오기 전까지 영미 세상에서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단 하나의 'Holy Bible'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어(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공인 본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현대 역본들과 달리 단 한 구절도 빠진 데가 없이 완벽하게 모든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매튜 헨리, 스펀전, 무디, 캠벨 모르건, 마틴 로이드 존스 등 권능의 사역자들이 사용한 복음 선포의 도구였습니다.
- 전 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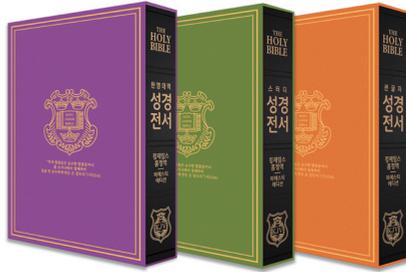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2011년 4월에 미국 상원과 하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에 미친 공헌'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를 형성하는 데 미친 혁혁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설을 하였고 영국에서는 기념우표도 발간되었습니다.

국내의 킹제임스 성경 현황과 흠정역의 특징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이 학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공인하는 최고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국내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25년 전 처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한국어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한 그룹은 그들의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국내에서 가장 큰 교단에 의해 이단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이단 정죄의 핵심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격한 언행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매우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이라는 무지하고도 여처구니없는 이상한 소문이 교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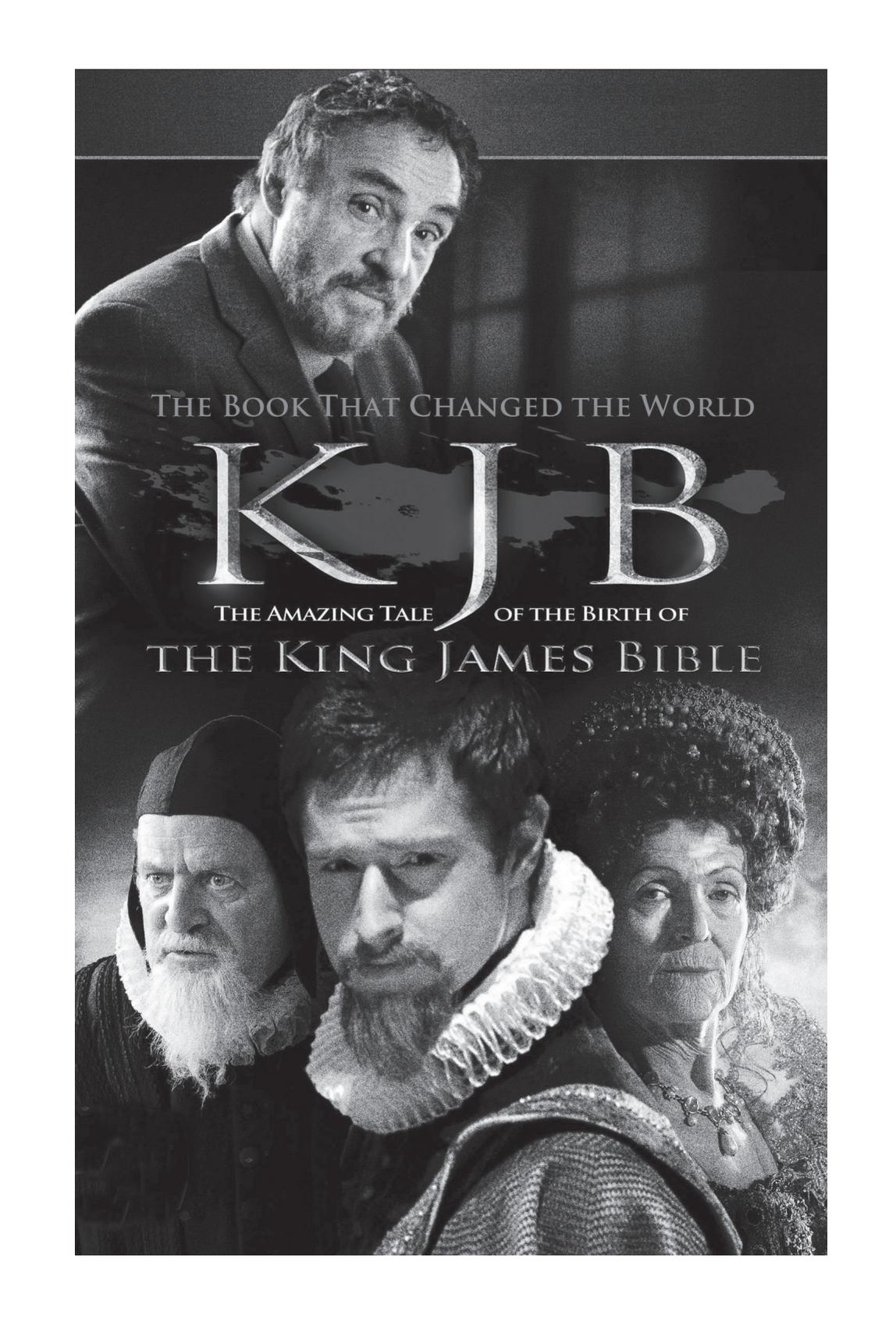


그리스도예수안에게 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3종

사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는 주장의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의 진실을 아는 ‘양식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매료되어 그간의 오해를 접고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 파동 이후에 ‘그리스도예수안에’ 출판사(www.KeepBible.com)는 수년의 번역 작업을 통해 2000년 8월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뒤로 네 번의 교정을 거치면서 2011년 8월에는 킹제임스 성경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동시에 ‘400주년 기념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6년간의 교정을 거쳐 ‘마제스티 에디션’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예수안에’의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없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 루시퍼와 갈보리 등의 단어들에 살아 있으며 천국, 지옥, 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명확합니다.
- 우리말 어법에 충실하게 옮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 정확한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대부분의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어 원어와 영어의 감동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BOOK THAT CHANGED THE WORLD

KJB

THE AMAZING TALE OF THE BIRTH OF
THE KING JAMES BIBLE

제2부

KJB: 세상을 바꾼 책

KJB: The Book That Changed the World¹⁾

이 영화는 영국의 2011년 1A 프로덕션과 라이온스게이트사가 만든 작품으로 1611년에 등장해 온 세상의 언어와 신앙을 바꾼 놀라운 책 킹제임스 성경(KJB)의 태동과 역사를 다큐멘터리와 재연으로 엮은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가며 영화 장면과 해설을 덧붙여 성경 번역 과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편집했다.

- 감독 : 노먼 스톤 ● 각본 : 노먼 스톤, 머레이 와츠 ● 해설 : 존 라이스 데이비스
- 주연 : 앤드류 로스니(제임스 왕), 존 길레스피(제임스 아역), 사이먼 그레거(로버트 세실), 파올라 디오니스코티(엘리자베스 여왕), 제임스 브라이스(조지 뷰캐넌)

주요 등장인물



해설



제임스 왕



어린 제임스 왕



엘리자베스 여왕



세실 경



뷰캐넌



뱅크로프트



앤드루스



레이놀즈



쉐더튼



트레삼



포크스

1) 이 영화는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아마존에서 'The Book That Changed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판매되고 있다. 위키백과와 구글에서도 동일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동일 제목으로 찾아 시청할 수 있다.

● 프롤로그 :

세상을 바꾼 위대한 책 이야기

해설자 존 라이스 데이비스¹⁾ :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 책을 접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책은 이미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책에 담긴 심상과 언어와 영향력은 지난 400년간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책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1) <인디애나 존스 3>, <반지의 제왕 2, 3> 등에 출연한 배우로 이 영화에서 내레이션과 해설을 맡았다. 이하 그의 내레이션 부분은 본문이나 지문과 다른 글씨체로 '해설'로 표기.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망과 떠오르는 후계자

Scene 1603년 리치몬드 궁전

1603년 잉글랜드¹⁾의 궁전. 긴 복도를 따라가면 벽에는 화려한 왕실의 가족들을 그린 커다란 액자들이 즐비하고, 철갑옷을 입는 기사들이 서 있는 곳도 있다.

한 방의 문을 열면 이곳은 여왕의 침실이다. 이곳에서 시녀들과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핏기 없이 누워 있는 늙은 여왕을 궁중의 어의가 들여다보고 있다. 작은 거울로 그녀의 입속을 살펴본 그는 이윽고 절망적인 선언을 한다.



어의: 가망이 없습니다.

해설 : 여왕의 임종을 앞두고 있던 이 나라는 진퇴양난의 형국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숨을 거두는 이 여왕은 바로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1)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수도는 런던이다. 면적은 그레이트브리튼 섬의 약 57%에 해당한다. 북쪽으로는 스코틀랜드, 서쪽으로는 웨일스, 남쪽으로는 영국 해협, 동쪽으로는 북해와 접한다.

다. 그러나 그녀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 잉글랜드의 미래는 위태롭고 불안하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영어’라는 이 나라의 언어는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완벽 그 자체인 위대한 작품을 내놓음으로써 온 세상을 뒤바꿔 놓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²⁾이 다스리던 잉글랜드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16세기에는 목숨을 건 칼싸움이 현실에서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었지요.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듯이 온갖 종류의 파당은 물론 분리주의자, 종교 열성당원, 정치 스파이, 자객 등이 저마다 자기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유혈 사태와 그로 인한 더 잔인한 보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활동 무대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화약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녀는 또한 갓 태동한 잉글랜드 국교회(성공회)의 수장이었으며 거친 남자들 세계에서 여성으로서 성

2) 잉글랜드의 여왕(재위 1558~1603)으로 영국 절대주의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국교의 확립을 피하고 종교적 통일을 추진하였으며 화폐제도를 통일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빈민구제법에 의하여 토지를 잃은 농민의 무산화를 방지하였고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였다.

종교 정책에서 여왕은 수장령(首長令)과 통일령(1558)을 부활하여 국왕을 종교상 최고 권위로서 인정받도록 하였고 동시에 전 국민에게 국교회(國敎會)의 의식과 기도서를 강제로 지키게 함으로써 국교의 확립을 피하고 가톨릭과 퓨리탄을 억압하여 종교적 통일을 추진하였다.

당시 최강을 자랑하던 에스파냐(스페인)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펠리프 2세의 구혼을 거절하는 한편 네덜란드의 독립을 도왔으며, 에스파냐의 무역선을 습격하여 에스파냐 선박의 해상 지배를 위협하였다. 무적함대의 패배로 에스파냐의 해상지배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영국인은 국민적 자각이 높아져서 해상 발전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여왕의 치세 중 영국은 한 섬나라에서 대해상국으로 성장할 기초가 이루어졌고 ‘명량한 잉글랜드’가 이루어졌으며, 문화면에서도 영국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국민 문화의 황금시대가 도래하여 셰익스피어·스펜서·베이컨 등의 학자·문인이 속출하였다. 이리하여 여왕은 ‘선녀 여왕’으로서 온갖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 영국의 절대주의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녀는 처녀 여왕으로서 노쇠하여 죽었고, 처형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제임스 1세가 후계자로 즉위하였다(두산 백과, 엘리자베스 1세 항목).

공을 거둔 만큼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신임도 얻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대적들조차도 이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온 세상을 움켜쥔 그녀는 잉글랜드를 부강하게 한 강력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노쇠하면서 국가도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온건한 듯하면서도 굳건하게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런 구도가 바뀔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누가 그녀의 뒤를 이을 것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어받을 후보자들은 다들 쟁쟁했고, 저마다 뛰어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경쟁은 선두의 세 후보로 압축되었습니다.



맨 왼쪽 아르벨라 스튜어트는 여왕과 육촌 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왕족 혈통이긴 할 뿐 그리 걸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를 유력한 여왕 후보로 여기기도 했으나 그녀의 정치적 입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로우 컨트리 출신의 아치더치스 이사벨라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혈통인 그녀는 펠리프(펠리페) 스페인 왕의 누이였으며, 따라서 잉글랜드의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그녀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한편 오른쪽의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엘리자베스의 또 다른 육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방의 노련한 군주였고 여러모로 왕위를 이을 유력한 경쟁자였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로, 잉글랜드 왕실에 반역을 저지른 죄목으로 처형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Scene 햇필드 하우스

해설 : 잉글랜드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 곁에 전해져 온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거의 숨결을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지요. 이곳은 루턴 근처에 있는 햇필드 하우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시절 수석 장관이던 로버트 세실(Robert Cecil) 경의 생가입니다. 400년 전에는 이곳이 잉글랜드 권력 실세의 중심부였습니다.

세실은 자기 선친과 마찬가지로 여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녀의 의사 결정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에 이어 누가 왕위에 오를 것인가는 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Scene 1599년, 햄튼 궁전

영국 런던 서쪽 교외, 템스 강변에 있는 햄튼 궁전. 여유와 기품이 넘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넓은 방의 한가운데 꽃꽂이가 된 꽃들을 바라보고 있다. 왕실의 미래를 늘 걱정해 온 세실 경이 여왕에게 묻는다.

세실 : 폐하, 다 마음에 드시옵니까?

엘리자베스 : 그렇군요. 내 마음에 꼭 드는구려. 꽃들은 경이 직접 정리했소?

세실 : 예. 폐하, 많이 부족하옵니다만….

엘리자베스 : 감동이요. 꼭두새벽부터 짐을 위해 꽃꽂이를 해 놓은 게로군요.

세실 : 실은… 중대한 일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잠을 설쳤습니다. 후계자 문제 말씀이옵니다.

엘리자베스 : 후계자? 세실 경, 멀쩡한 사람을 벌써 무덤으로 내려보내기라도 할 참이오?

세실 : 폐하… 그, 그것이 아니오라 소신은 단지 미리 준비를…

엘리자베스 : 함부로 알려 하다가 경이 다칠 수도 있어요. 때가 되기 전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

세실 : 때라 하심은 무슨 말씀이온지…?

엘리자베스 : 그대는 내 측근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오. 그러니 내가 후계자를 너무 일찍 지명해 버릴 경우,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도 예상할 수 있을 거요. 경쟁에서 진 자를 생각해 보시오. 탈락한 후보를 따르던 사람들은 승복하지 않고 분명 싸움을 벌일 것이오. 또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이런 중요한 결정이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덜컥 내려진다는 것은 짐이 용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오.

세실 : 폐하, 망극하옵니다. 저는 그저 폐하께서 좀 더 분명한 결단을 내리셔야 겠다고 여겼을 뿐이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은밀히 진행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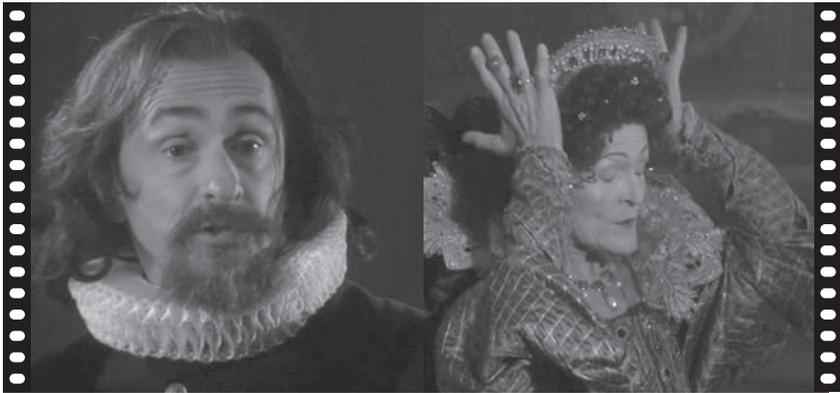
엘리자베스 : 세실 경, 짐은 유아독존이란 것을 그대는 모른단 말이오? 그러니 이 땅 어디에도 짐을 계승할 자는 없소. 더 말하면 아침부터 내 화만 돋게 될 것 같구려.

세실 : 폐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싸움꾼이라도….

엘리자베스 : 싸움꾼? 그건 속되고 품위 없는 표현이오.

세실 :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폐하께서 다스리시는 이 왕국에 영원한 평화
화가 깃들게 하려면….

엘리자베스 : 명심하십시오. 그 일은 오로지 왕관을 쓴 자만이 이룰 것이오. 부
족함 없이.



세실 : 폐하의 스코틀랜드 친척(후임이 될 제임스 1세를 가리킴)은 특별한 점이 많습
니다만….

엘리자베스 : 경이 가꾸는 꽃밭에는 오로지 규칙과 질서밖에 없소. 꽃향기와
신비와 비밀은 대체 어디 있는고?

해설 : 세실 경은 제임스(후일의 제임스 1세)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후보의 선
택권이 그에게 있진 않았죠. 선택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
만 여왕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실 경은 임종을 앞둔 여왕에게 다가갔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여왕이 누구를 지목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Scene 다시 1603년의 리치몬드 궁전

오랫동안 궁금증을 참아 온 세실 경은 여왕이 서거하기 전에 여왕의 의중을 알기 위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다시 물었다.

세실 : 폐하, 소신이 폐하의 평안을 기원하옵니다. 폐하의 위대하고 영원한 왕국을 위해 평안하시옵소서… 폐하, 이제는 후계자를 지목하실 때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돌보던 어의가 대신 대답했다.

어의 : 나리, 폐하는 이미 말씀을 못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세실 : 아닐세.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으실 거요. 폐하는 알아들으실 수 있소.

다시 여왕에게 다가간 세실이 물었다.

세실 : 폐하, 후계자가 누구이옵니까?

무언가 할 말이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여왕.

세실 : 평안을 누릴 자는 오직 폐하뿐입니다.

그는 애타는 목소리로 간곡히 다시 물었다.

세실 : 폐하, 후계자가… 누구이옵니까?

서서히 힘겹게 손을 얼굴로 가져가는 엘리자베스. 두 손으로 머리 위의 모자 장식을 그리듯 동작을 취하자 세실 경의 눈이 빛났다.



세실 : 스코틀랜드 친척입니까? 제임스…?

손의 힘을 잃고 그대로 굳어버린 엘리자베스. 그러자 복도에 있던 시녀들과 시종,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궁중 어의가 선언했다.

어의 : 여왕님이 서거하셨습니다. 새로운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시기를!



여왕이 지목한 후계자 제임스 6세

해설 : 여왕의 서거 소식은 리치몬드 궁으로부터 사방으로 널리 퍼졌고, 모든 파당과 압력 단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올라서고 집권하려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당시에 로버트 캐리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몰락한 귀족 출신인 그는 가문을 일으키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으며, 이를 위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에게 여왕의 서거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시에 로버트 캐리 경만이 아슬아슬한 모험을 진행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잉글랜드는 영토 확장에 막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최근에 개척된 아메리카의 경우, 독신이었던 여왕의 칭호를 따서 버지니아(Virginia)라는 이름까지 붙이기도 했죠. 그로부터 4년 뒤에는 초기 정착지의 지명을, 여왕의 후계자인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딴 ‘제임스타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나라, 즉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운명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로버트 캐리는 가장 먼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왕에게 도착하기 위해 말을 달리고 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제임스 왕의 성은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로버트 캐리 경은 신속한 장거리 여행을 위해 수차례 새로운 말로 갈아타느라, 준비한 노잣돈을 다 써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역사에 남을 아주 대단한 영웅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도중에 말에게 얼굴을 건어차이는 바람에 위풍당당한 영웅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초췌한 모습으로 스티어링에 도착하게 됩니다.

Scene 스코틀랜드, 스털링 성

긴박하게 성에 도착해 급히 말을 묶고 사람을 찾는 로버트 캐리.

캐리 : 제임스 왕께 전할 소식이 있소.

병사 : 나를 따라오시오.

안내하는 병사를 따라 성으로 들어가는 로버트.

해설 : 로버트 캐리 경은 4일 이상을 여행한 끝에 역사에 기록될 행적 하나를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몰골은 이미 만신창이였습니다.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전령은 아마 그가 최초일 겁니다.

밖에서 방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제임스 왕이 말했다.

제임스 :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병사는 로버트 캐리를 소개했다.



병사 : 전하, 전령이 와 있습니다.

캐리 : 폐하, 여왕이 서거하셨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먼 길을 달려온 남루한 모습의 귀족의 말에 제임스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생각에 잠겼다.

해설 : 제임스 왕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왕권은 비로소 그의 것이 되었죠. 당연히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라는 이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Advice **윌리엄 스토라 박사** _William Storrar,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연구원

제 생각에 제임스 6세는 대영제국에 진출한 최초의 스코틀랜드인입니다. 그는 런던과 잉글랜드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죠.



Advice **칼 트루먼 교수** _Carl Trueman, 교회 역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제임스는 정치의 천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왕국 전체를 통솔한 그의 능력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_Poline Croft, 잉글랜드 역사가, 작가

제임스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Advice **W. B. 패터슨 교수** _W. B. Patterson, 제임스 왕 관련 서적 저자

저는 그가 당대의 여러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역사가들에게도 당혹감을 선사하고 있죠. 제임스 왕을 한마디로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해설 : 제임스 스튜어트¹⁾는 1566년 6월 19일에 에든버러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모친은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여왕 메리로, 엘리자베스의 친인척이었지요. 두 여인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나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리는 골수 카톨릭 신자인 반면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극렬 개신교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400년 전에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정치와 사회 활동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교리, 구원의 방법, 또 교회의 부정부패 같은 이슈는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그저 먹고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목숨을 바칠 가치도 있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제를 데려와 궁에서 천주교 미사를 드리는 제임스의 어머니 메리 여왕.

메리는 한때 개신교 귀족들과 합의를 하고 카톨릭 미사는 따로 개인적으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오래가지 못했고, 사람들의 불만도 차츰 쌓여갔습니다. 메리와 신하들의 관계도 갈수록 불편해졌겠지요. 나중에는 급기야 스캔들, 음모, 살인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왕가의 사생활에서까지 빈번해

1) 제임스 6세, 제임스 왕의 본명

지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리를 붙잡아,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들 제임스는 겨우 13개월의 아기였습니다. 그들은 제임스를 스텔링에 있는 홀리 루드 교회(Church of Holy Rude)²⁾로 데려가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둘러보기만 해도 역사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장소로 스코틀랜드의 역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곳이며, ‘스코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다름없는 성지입니다. 어린 제임스의 대관식을 거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Advice 윌리엄 내피 교수_William G. Naphy, 애버딘 대학 역사학

어린아이에게 왕관을 씌우는 일 자체는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로 어린 왕의 섭정³⁾을 누가 할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숙부나 태후 같은 가까운 친족이 섭정을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주변에서 섭정을 하려는 집단이 따로 들고일어나기 마련이죠.



Advice 애슐리 놀 박사_Ashley Null, 영국 성공회 전문가

제임스는 자신의 권력을 대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잔뜩 둘러싸인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Advice 윌리엄 스토라 박사

제임스는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장기관의 ‘줄(卒)’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모두들 어린 왕을 조종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 2)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 있는 교회. 1129년 킹 데이비드 목사가 건설하였고 여러 차례 재건축되면서 지금의 모습처럼 변하였다. 1576년 제임스 6세가 이곳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뒤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1세가 되었다. 일반 교회 가운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관식이 진행된 유일한 교회이다(두산 백과, 홀리 루드 항목).
- 3) 군주 국가에서 국왕이 어려서 즉위하거나 병 또는 그 밖의 사정이 생겼을 때 국왕을 대리해서 국가의 통치권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사람



홀리 루드 교회의 한 바닥, 제임스 6세가 왕위에 오른 사실을 새겨 놓았다.

해설 : 바로 이 지점에서 어린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관식이 있던 날, 스코틀랜드에서 내로라하는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 행사를 승인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인 존 녹스(John Knox)는 직접 설교문을 읽었고요. 스코틀랜드는 새 왕을 맞이했습니다. 제임스는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개신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섭정들의 틈바구니에서 자란 어린 왕

Scene 1570년 스코틀랜드 스텔링 성



혼자 왕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성안을 오가며 외롭게 성장하는 만 4세의 어린 제임스.

해설 : 어린 제임스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스코틀랜드의 성안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실질적 통치자인 섭정들의 꼭두각시 신세로 말입니다. 그는 자기 왕국에 감금당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제임스는 침대에서 내려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간다. 문틈으로 보이는 귀족들... 바로 무언가를 논의하는 섭정들이다.

그들은 대개 출신 성분에 의해 결정되곤 했는데요, 제임스가 아직 어릴 때 나라를 다스린 사실상의 왕은 이들이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의 눈에 이들의 모습은 무척 어색하고, 괴상하고, 불안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Advice 윌리엄 스토라 박사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에 관한 한, 제임스 6세의 삶은 복잡다단하고, 어찌 보면 불행했죠. 그러니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토록 애정과 관심에 목말라하고 한편으로 정치적 화합을 열망한 것은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매사에 불화가 얼마나 쉽게 발생하는지를 잘 알았거든요.



철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성문을 열고 부상자를 옮긴다. 가슴에 흥건하게 피를 흘리는 한 귀족이 누워 사경을 헤맨다. 이런 광경을 역시 문틈으로 지켜보는 십대 초반의 제임스.

이 시기는 폭력이 난무하는 때였던지라 섭정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곱게 바뀐 것은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카톨릭교도인 반대파의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았고요. 어떤 사람은 독살당했는데, 범인은 바로 그의 후임 섭정이

분명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섭정들의 끝없는 권력 다툼과 모략, 분열은 왕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도 진작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제임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소란을 피해 홀로 침대에 누워 사과를 깨물며 생각에 잠기는 제임스.





당대 최고 석학 뷰캐넌의 제자가 되다

Scene 1578년, 스코틀랜드

해설 : 제임스가 성장함에 따라 왕실은 그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개신교 교육을 시키려면 역시 특출한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입된 사람은 바로 조지 뷰캐넌.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도시를 지나 위풍당당하게 궁궐로 향하는 학자. 한 손에 책을 든 이 작달막한 사람은 조지 뷰캐넌이다.

Advice 윌리엄 스토라 박사

조지 뷰캐넌은 당시 유럽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석학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히 세계적인 영웅이었죠. 그는 유럽 대륙에서 학자로 매우 특이한 경력을 쌓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으며, 그때 이미 라틴어 운문과 희곡, 그리고 각종 학문 저술들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Advice 윌리엄 내피 교수

다만 그는 교사로서 그리 자상한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굉장히 엄격하고, 아마 폭력 교사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긴 그 시절엔 그게 관행이기도 했고요.

궁궐 안에 울려 퍼지는, 매 때리는 소리. 뷰캐넌이 숫자를 세면서 의자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 등받이를 잡은 제임스 왕의 엉덩이를 여러 대 혹독하게 내려치고 있다. 그때마다 눈을 질끈 감으며 참는 제임스. 매가 끝나자 아픔을 참으며 의자를 옮기는 제임스.



뷰캐넌 :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전하가 틀리신 거지 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굵은 라틴어는 용납 못합니다.

체벌이 끝나자 제임스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억울한 듯 스승을 노려본다. 왕이라기보다는 스승의 카리스마에 눌린 영락없는 사춘기 소년이다.

뷰캐넌 : 게으른 것, 멍청한 것도 질색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그런 어리바리한 모습이란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계속하시죠.

고개를 떨어뜨리며 깃털 펜으로 다시 공책을 향하는 제임스 왕.

Advice 윌리엄 스토라 박사

그는 권력에 굴하거나, 왕이라고 봐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칼빈주의자였죠.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요 심판자이며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습니다.

Advice 윌리엄 내피 교수

그의 목표는 아주 단순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군주를 키워 내자.’

어느 날, 황당한 표정으로 분노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뷰캐넌이 제임스를 향해 말했다.

뷰캐넌 : 수업을 쉬자고요?

제임스 : 딱 하루만이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의 뷰캐넌.

뷰캐넌 : 하루를 몽땅 제치시겠다고요?

제임스 :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뷰캐넌 : 무슨 명절 말씀이신지요? 우린 아무 절기도 지키지 않으며 금식이나 의식도, 축일도 없습니다. 그런 건 교황 추종자들이나 해요. 스코틀랜드는 성인을 기리지도 않죠.

제임스 : 성인과 관련된 날이 아니잖아요. 주현절(Epiphany)¹⁾인데.



1) 1월 6일, 천주교와 서방 교회들의 교회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날(두산 백과 주현절 항목).

류캐넌 : 주현절이요? 나이답지 않게 어려운 말을 아시는군요.

제임스 : 그리스어 에피파니아(epiphaneia)에서 유래되었죠.

류캐넌 : 과제를 잘 해 놓은 보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제임스 :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입니다.

류캐넌 : 번역도 그럴싸하군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전하?

제임스 :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건, 음... 빛이 이방인들에게 비취졌다는 뜻이죠.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아기를 보러 지혜자들도 찾아왔잖아요.

류캐넌 : 어떤 아기라고요?

제임스 : 메시아요. 그러니 이런 거룩하고 뜻깊은 날엔 하루쯤 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류캐넌 : '주현절'이란 걸 누가 제정했으며, 그 근거가 뭐죠? 성경에 나오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거기 나오는 세 왕들처럼 전하께서 마음대로 명절을 제정해 쉬시겠다는 겁니까?

제임스 : 성경에는 '세 왕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셋이라는 인원수조차 안 나오죠. 여러 지혜자들이 무리를 지어 와서 '세 종류'의 선물을 바친 거죠. 그러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 왕'이란 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류캐넌 : 그렇군요. 그러니 이곳에 있는 '넷째 왕'께선 앞으로 '사실'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계속 질문으로 압박했지만 밀리지 않고 끝까지 대답을 하는 제임스의 영특함을 본 뷰캐넌은 크게 선심을 쓰듯 말했다.

뷰캐넌 :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놀게 해 드리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 나가는 제임스의 뒤에 대고 소리치는 뷰캐넌.

뷰캐넌 : 딱 한 시간만이에요!

대견하다는 듯 뷰캐넌의 엄격한 얼굴에 모처럼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제자인 제임스의 지적 수준으로 짐작하건대 뷰캐넌은 고전 문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임스의 해박한 지식과 독서의 폭, 언어 구사력, 그리고 명료하고 호소력 뛰어난 필력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뷰캐넌은 이 모든 재능을 자기 제자에게 확실하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내가 뭘 더 해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유모가 아니라 궁정 교사입니다.”라고.

많은 곳을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는 제임스 왕과 뷰캐넌.

해설 : 세월이 흐르면서 사제지간의 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막역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스승보다 훨씬 키가 커진 청년 제임스 왕은 여전히 함께 대화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왕으로서의 면모를 더해갔다.



뷰캐넌은 제자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학에 심취할 만한 동기를 충분히 부여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청년이 된 제임스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자기 심성에 대해 알았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법도 알았습니다.



청년 제임스, 왕에서 하나님의 군주로

Scene 1584년 궁정의 같은 공부방

뷰캐넌이 젊은 제임스 왕이 던진 말을 되받으며 도전하듯 말했다.

뷰캐넌 : “자기감정을 숨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가식, 거짓말, 속임수… 이게 전하께서 생각하시는 왕의 덕목입니까?

제임스 : 그 격언 자체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견해이고 관찰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 실질적인 예로,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자기 동족을 정면으로 속였지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언급되지 않습니까?

뷰캐넌 : 전하께서는 성경을 이교도들의 왜곡된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먼 자만심을 가지고 보십니까? 이긴 세상 모든 왕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병폐라 할 수 있죠.

제임스 : 왕은 자기 상황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뷰캐넌 : 정말요?

제임스 : 네, 물론이죠. 왕에게는 불멸의 혼이 있어요. 그 혼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 열려 있죠. 왕의 궁정 교사가 노쇠하여 왕을 가르칠 수 없게 된 뒤에요도 말입니다.



뷰캐넌 :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멋대로 해석해 줄 수 없어요.

제임스 :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구성원은 다 똑같이 부패한 혼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사람 마음의 어느 구석을 뒤지더라도 썩어 문드러진 데가 발견되죠. 이런 죄인의 근성이 가득한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천 명의 궁정 교사로요? 관리들이 개개인을 일일이 옆에서 감시라도 하나요?

뷰캐넌 :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양심이 있잖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스승을 향해 말하는 제임스.

제임스 : 수천, 수만 개의 양심이 한데 어우러져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기막힌 조화와 일치를 저절로 이룬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통치자를 임명하시고, 그를 통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왕은 주님께는 복종해야 하지만, 백성들을 지혜와 권위로 다스리기도 해야 합니다.



뷰캐넌 : 지금 전하께서는 너무 교만해지셨습니다. 그러다 하늘에까지 닿겠어요! 왕에게는 신성이 없어요. 전하의 그 알량한 의견엔 대언 따위는 없다고요.

제임스 :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뷰캐넌 : 왕이시여, 비뚤어진 논리를 조심하십시오. 스코틀랜드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인 교회 즉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이고, 둘째는 제임스 왕의 누추한 왕국이지요. 전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더 큰 왕의 권세 아래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인 왕이라도 온 창조 세계의 왕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임스 : 그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분의 왕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노라면 그분으로부터 개인적인 지도도 받습니다. 궁정 교사의 지도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나는 앞으로 조지 뷰캐넌보다는 하나님을 따를 작정입니다!

강한 어조로 말한 뒤 방을 나서는 제임스를 뷰캐넌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Advice W. B. 패터슨 교수

제임스는 스승인 뷰캐넌의 가르침을 반항 심리로 거역한다기보다는 주된 전체 조건에 비판적인 의문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품었던 의문을 자기식으로 해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Advice 윌리엄 내피 교수

세월이 흘러 제임스는 진짜 군주가 되었어요. 예전엔 섭정이 자기 권력을 대신 행사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누리게 된 거죠. 그는 여전히 궁정 교사를 둘 수 있었고 여전히 남에게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승과의 관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임스는 이제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진정한 군주 아닙니까. 그러니 대인 관계도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죠.

해설 : 제임스는 10대 후반의 나이일 때 이미 어떻게 왕권을 확립하고 민심을 모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상황 판단이 빨랐으며, 진정한 학자이면서 대단한 논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거친 텃세에 단련되

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바닥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그는 사생활이 깨끗하다고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이성에게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공주 ‘앤’이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앤 공주는 개신교도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젊은 장로교 왕과는 완벽하게 어울리는 짝이었죠. 그녀는 키가 크고 우아했는데, 나이는 겨우 14살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을 만나러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노르웨이의 해안으로 밀려나고 말았죠.

앤이 오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는 소식을 들은 제임스 왕은 보기 드문 과감한 연애 근성을 발휘했습니다. 300명에 달하는 건장한 수행원들을 동반해 라이드 지방에서 배를 몰고 앤을 구출해 왕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와 덴마크의 백성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왕가의 결혼식보다 큰 경사가 또 있을까요.

Scene 1589년의 스코틀랜드

호숫가에서 물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익살스럽게 포효하는 제임스 왕. 소리를 지르다가 몸을 돌려 다시 기쁨의 탄성을 지른다. 그를 앤 공주가 그윽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 그녀에게 다가가 서로 마주보며 사랑의 키스를 나누는 제임스… 궁정의 시녀와 몸종들을 데리고 햇살이 눈부신 아름다운 호숫가를 노니는 제임스와 앤 공주는 마냥 행복했다.

해설 : 이렇게 왕은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법천지였던 왕국의 기강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원은 부족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지역을 쥐락펴락하는 귀족들을 다루기도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쪽의 잉글랜드 땅은 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얼마나 부럽게 보였을까요? 그는 잉글랜드가 부유하고 군주 정치가 잘 정착해 있으며, 백성들 역시 통치에 잘 따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는 자신의 스코틀랜드와 비교하면 그곳은 가히 하늘과 땅의 차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잉크로 종이 위에 글을 쓰는 제임스 왕. 그가 편지를 쓰는 동안 앤은 만식이 된 몸으로 다가와 위로하듯 그의 어깨를 어루만진다.

제임스는 강력한 군주인 친척(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잉글랜드를 위협할 때면 그는 자기도 잉글랜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증하고 나서곤 했습니다. 가정을 꾸린 자신과는 반대로, 남쪽의 잉글랜드는 독신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임 연령을 넘게 되고, 조만간 왕위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필요하게 될 것임을 제임스 왕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제임스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엘리자베스. 웃기도 하다가 새침한 표정이 되기도 한다. 한 장씩 읽고는 옆에 선 로버트 세실에게 넘긴다.

엘리자베스는 제임스가 꼬박꼬박 보내오는 서신을 때로는 호의로, 때로는 익살로, 때로는 침묵으로 다양하게 받아들였던 듯합니다.

한편, 제임스는 자기 본토에서, 긴 힘겨루기를 하면서 스코틀랜드 교회와 사회를 상대로 자신의 왕권을 차츰 강화해 나갔습니다. 끝내 화합의 증표로 평소 자기와 옥신각신 싸우던 귀족들을 불러 같이 손잡고 에든버러 시가행진을 했답니다.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죠. 제임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가장 험난하던 시기에 왕권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으며 스코틀랜드 역사상 유례가 없던 가장 성공적인 일치와 화합을 이룩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나라의 왕이 되다

Scene 번트아일랜드 교회

해설 : 스코틀랜드가 그러저러 안정을 되찾자 제임스는 모든 분야에서 군주로서의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꽤 만만찮았던 직무 중 하나는 아마 스코틀랜드 국교회의 대의회에 참석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1601년에는 이곳 번트아일랜드 교회에서 개최되었지요.

교회 운영 회의가 끝도 없이 진행되던 중, 새로운 성경 번역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요청이 의회로 올라왔습니다. 제임스 왕은 아마 이 제안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단일 성경 역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성취하고자 한 국가 화합을 이룩하는 데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의회 사람들이 선한 장로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의회의 이 위원회, 저 위원회를 표류하면서 실현 가능성만 논의될 뿐 구체화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송곳을 꽂긴 했는데 손잡이가 시원찮아서 제대로 돌리지를 못한 격이죠. 그 뒤로 한동안 성경 번역과 관련하여 일이 당장 진척된 것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때의 기억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왕의 마음속에 심겼습니다. 조만간 열매를 맺을 그런 씨였지요.

바로 이때 제임스는 먼 길을 달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전한 전령 로버트 캐리를 만난다.

그 뒤 1603년 3월 26일, 제임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왕이 자신을 후계자로 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초췌한 몰골로 제임스 왕의 방으로 안내받은 로버트 캐리 경은 여왕의 소식을 전하고는 고개를 숙인다.

캐리 :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놀라움 속에 생각에 잠긴 제임스에게 병사들과 신하, 시녀들이 무릎을 꿇는다.

일동 : 국왕 폐하 만세!

해설 : 제임스는 이제 두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온전히 자신의 손에 달렸죠.

Scene 을씨년스러운 스티어링 성

해설 : 제임스가 남쪽으로 간 후, 스티어링에 있던 성은 폐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실 사람이 없으니 이곳은 그저 차갑고 음침한... 왕의 어린 시절 추억만을 간직한 쓸쓸한 유적지로 전락했죠. 스코틀랜드의 왕은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러 떠났고, 세상은 이에 맞춰 대기 중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새로운 신하들로부터 마치 개선 장군처럼 환영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남긴 말년의 실책들로 인해 잉글랜드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있었으며 제임스는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새 왕을 사랑해 마지않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듯이 제임스가 물려받은 나라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나자 생전에 그녀로부터 견제를 당하던 파당들은 모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왕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언으려고 기웃거렸죠. 이처럼 남쪽으로 행차하는 제임스를 향한 굶주린 시선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대 수준이 높았죠. 너무 높았어요.

Advice 피터 맥컬로우 교수_Peter McCullough, 옥스퍼드 대학 영어학 교수

제임스가 왕위에 오르자 모두들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도, 카톨릭교도도, 모두 자기 밥그릇을 위한 그럴싸한 중재안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필연적으로 그들을 차례차례 죄다 실망시키기에 이르렀죠.



Advice 윌리엄 내피 교수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제임스 왕이 자기의 이상형이 되어 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이 간과하는 사실은, 왕도 인간이고 왕좌에 앉아 통치하며 경험을 쌓고 성숙한다는 것이지요. 새로 부임하는 왕은 예전에 왕 노릇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 왕에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배우고, 어떤 것은 의견을 물어 협상을 통해 절충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군주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그 군주의 집권 초창기에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감독들과 청교도들, 두 세력¹⁾의 대립에 던진 승부수

Scene 제임스가 부임한 잉글랜드

뷰캐년이 젊은 제임스 왕이 던진 말을 되받으며 도전하듯 말했다.

해설 : 압력 단체들과, 왕을 이용해 권력만 누리려는 기회주의자들 외에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지요.

당시의 사회 구조는 정교일치 즉 정치와 교회의 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왕은 양쪽 모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때 잉글랜드의 국교회는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부에 두 개의 파당이 생기고 상호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교회의 감독 혹은 주교(bishop)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생 교회 내부에서 절대적인 권위자들이며 지위도 높았습니다. 명목상의 성직자였지만 부와 권력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성경 역본은 <비숍 성경>(Bishop's Bible)이라고 알려진 역본이었고 이것이 잉글랜드 교회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왕은 자신부터가 이 방면에서 어지간한 수준을 능가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비숍 성경의 허술한 점을 잘 알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학술적인 번역은 상당량이 기본 수준에도 미달이었으니까요.

1) 영화에서는 이들 두 집단의 대표들이 고집을 부리거나 석연치 않은 발언을 했다가 제임스 왕으로부터 편찬을 받는 장면들이 많은 등 아집스러운 사람들로 자주 묘사되지만, 이들의 신앙은 신실했고, 실력은 최고 수준이었다. 성경이 완성된 뒤 제임스 왕이 이들의 작업에 크게 만족했듯이, 서로 대립하고 좌충우돌하는 과정은 이들의 교리와 성경에 대한 이견을 왕이 불만없이 해결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풀어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으로 청교도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성경에만 믿음을 두고 살려 하는 열혈 신자들입니다. 이들이 쓰는 역본은 <제네바 성경>이었는데 난외주가 많은 길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 난외주들은 칼빈주의 개신교 학자들이 작성했는데, 그들은 군주제를 부정하는 성경 해석을 가르치다가 왕실로부터 박해를 받고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왕은 제네바 성경을 몹서리치게 싫어했습니다. 특히 난외주들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제임스가 보기에 제네바 성경은 영락없이 분열과 분쟁의 원흉이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들은 성경 이슈는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왕이 자신들을 불러 교회의 개혁에 동참시킬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한 무리의 청교도 지도자들이 거리를 거닐며 제임스 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행 : 폐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신앙 배경이 우리와 같은 출신 아냐?

잉글랜드 교회 내부에 있는 청교도 대표단은 성직자 1,000명의 서명을 모아 조국의 교회가 부패하고 성경으로부터 동떨어졌음을 개탄하는 탄원 성명을 발표했다

습니다. 그들은 제임스가 런던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따라잡아 만났으며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교회의 개혁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면 탄원서의 내용이 구태의연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그들은 신학 개혁의 주역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놀랍게도 청교도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며, 자기 교회 감독들과의 상의 없이 회의를 곧장 소집해 청교도들의 불만 사항을 논의하게 했습니다. 감독들은 발각 뒤집혔죠.

분노한 뱅크로프트(Richard Bancroft) 감독과 또 다른 감독, 종종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로버트 세실 경의 집무실을 향의 방문한다.

뱅크로프트 : 미쳤군, 미쳤어! 같이 회의를 한다고요?

자리에 앉은 채 동요하지 않고 그들을 맞는 로버트 세실 경.

세실 : 아... 감독님들.

뱅크로프트 : 빌어먹으며 징징대고, 낙서나 하는 자칭 설교자 떴거지들!

앤드루스 : 청교도들의 잔치라니.

세실 : 잔치라 하셨소? 그건 용어의 의미상 모순인 것 같은데... 청교도는 유희라고는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오?

뱅크로프트 : 그들은 이익을 노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얻어 내서 말이오. 정말 폐하께서는...

세실 : 너무 나약하시다? 감성적이다? 순진해 빠지셨다? 세상물정 모르는 풋내기이다?



뱅크로프트 :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폐하께서는 어떤 직무라도 감당할 수 있으시고….

세실 : 폐하께서도 다 생각이 있으시오. 반대자의 기를 확실하게 꺾는 요령이라고나 할까. 그걸 폐하께서는 스코틀랜드에 계시던 때부터 확실하게 익혀 놓으셨죠.

뱅크로프트 : 그래도 30년을 조지 뷰캐넌이나 존 녹스와 지내셨으니 청교도들은 폐하께서 절반은 장로교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요!

세실 : 절반의 장로교인? 그건 좀 난감한 표현 같은데요. 감독님은 그럼 절반의 감독입니까? 아니면 절반은 왕이시요?

뱅크로프트 : 왕? 내가 언제 내가 왕이라고 그랬소? 누가 폐하를 부정한답니까? 그래도 왕이라면 이러실 순 없다는 말씀이요. 폐하께서 아주 깊은 뜻이 있으시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만….



세실 : 흠… 아신다니 다행이구려. 감독님들 때문에 걱정도 좀 됐는데.

뱅크로프트 : 그래도 그렇지, 폐하께서 속 좁은 청교도 놈들 요구를 그렇게 덤
석 들어주시다니! 회의라니요! 교회에 대해서! 기도문에, 교회 예복에, 훌쩍거
리면서 온갖 잡소리나 늘어놓는 것 하며… 어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세실 : 어휴… 라니요? 폐하께서는 감독님의 군주이시오.

극도로 흥분한 뱅크로프트의 말에도 흔들림이 없는 세실의 반격에 할 말을 잃은 뱅크로프
트 대신에 앤드루스가 침착하게 대응한다.

앤드루스 :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은혜와 지혜를 겸비한 군주이시죠. 하
지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교회 일에 관한 한 감독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
로 개입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세실 : 독단? 곤란? 내 귀가 잘못된 거요? 감독들의 ‘허락’ 없이는 개입을 못
한다고 그러셨소?

앤드루스 :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에 종속돼 있죠.

세실 :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감독님의 머리는? 잉글랜드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겠소? 폐하게 작은 회의를 하나 소집할 권한조차 없지는 않으실 텐데, 안 그렇소?

분노로 어쩔 줄 모르지만 말문이 막힌 감독들. 다른 곳으로 향하면서 분주히 논의한다.

뱅크로프트 : 우리가 먼저 발언하겠어.

앤드루스 : 그게 가능할까?

뱅크로프트 : 최소한 그것만은 보장돼야지. 그조차도 안 되면 난 죽어버릴 거야!





최고의 새로운 성경에 내려진 왕의 명령

Scene 1604년, 햄튼 코트

해설 : 회의가 열릴 곳은 햄튼 궁정의 왕궁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사회를 맡았죠. 그리고 회의의 결과가 어느 편에게 더 유리하게 내려질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왕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까?”, “남의 말에 고분고분 넘어가실까?”, “아첨이나 위협의 영향을 받으실까?”

이런 상황에서의 왕의 영도력은 그때까지 검증된 적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세실은 이 무대의 가장 가까운 객석에 앉은 관람객이었습니다.

호위병을 거느린 제임스 왕이 로버트 세실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려 행차하고 있다.

제임스는 이 회의가 교회의 분열을 중재하는 자리 이상으로 국가의 굳건한 화합을 이룰 금쪽같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뤄 낼까요?



Advice **애슬리 놀 박사**

제임스의 입장에서는 모두들 왕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잉글랜드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무조건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뒤 궁극적으로는 감독들과 청교도들 모두 철옹성 같은 자기들의 '영역'에서 나와 왕이 친히 설정한 중재안에 따르게 하려 했던 것이죠.

청교도들과 감독들이 모두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양 진영은 나무 창살처럼 된 양쪽 공간에 한 줄로 늘어서 있고, 가운데를 지나 제임스 왕이 자리로 간다. 청교도들과 감독들이 자리에 앉자 자리에 앉으려던 제임스 왕이 돌아서며 추상같은 호통을 쳤다.



제임스 : 뭔가? 감히 왕보다 먼저 앉다니!

화가 나서 돌아보자 긴장하며 다시 일어나는 참석자들. 왕의 옆에 선 로버트 세실 경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본다. 기선을 제압한 뒤 자리를 찾아 앉은 제임스 왕이 천천히 말했다.



제임스 : 앉아도 좋소.

해설 : 새 왕은 대립하는 두 진영이 원하는 것을 모두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것은 감독 측.

뱅크로프트 : 폐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
옵니다. 잉글랜드 교회는 40년간이나 잘 정착해 왔기 때문이옵니다.

제임스 : 40년? 매독을 40년간 앓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
은 오래 잘 살아왔으니 병을 치료받을 필요가 없단 말시오?

앤드루스 : 그리스도의 교회를 병자에 비유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폐하.

제임스 : 그리스도의 교회야 그럴 필요가 없겠지. 하지만 잉글랜드의 교회엔
이렇게 똑똑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보면 바로 구역질을 할 비성경적인 관행이
있지는 않소? 선생들이여, 짐은 바람이 많고 추운 스코틀랜드에서 자랐소. 그
래서 과인이 하는 말이 좀 차갑고 딱딱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오. 단, 사람
의 생각이 아니라 짐의 입을 통해 나오는 성경 말씀이 딱딱한 것일 수도 있다
오. 짐은 매일 성경을 공부하니까.

뱅크로프트 : 저희는 그저 폐하께서 경솔하고 시건방진 요구사항에 굴복해
자칫 왕국을 위태롭게 만드시지는 않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제임스 : 짐의 걱정을 대신 해주는구려. 국가라는 배가 자꾸 흔들리니까 구국
의 일념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격이군. 성경에 나오는 옷사처럼 말시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바로잡으려고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가 징계를 받아 죽었지.¹⁾

1) 대상13:9-11



여유가 넘치면서도 예리한 제임스 왕의 말에 놀라며 말문이 막힌 감독들….

제임스 : 요컨대 짐은 40년 동안이나 존속하고도 죄악이나 부조리가 뿌리 깊게 만연되지 않은 조직이나 단체는 보지 못했소.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할 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보편적인 상식에 대한 무지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왕의 판결을 어기는 행위요.

해설 : 벵크로프트와 앤드루스를 비롯한 교회 감독들은 왕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얻었습니다. 이권을 얻어내는 커닝 말싸움에서 완전히 KO 패를 당한 것이죠. 제임스는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정통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여건에서든 논쟁에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뷰캐년의 가르침은 물론 까다로운 스코틀랜드 귀족들 사이에서 단련된 덕분이었죠. 그리고 언변을 떠나서 제임스의 말이 실제로도 옳았답니다!

1라운드 끝. 왕이 한 방 먹이고 승리. 다음으로 청교도들이 발언할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로교 왕으로부터 예전보다 더욱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감독들에 이어 청교도 대표인 레이놀즈와 웨더튼이 문서를 왕에게 올리며 고개를 숙이고, 발언을 준비한다. 종이를 펼치는 제임스.

제임스 : 레이놀즈 선생은 탄원서 리스트를 준비해 왔다고 했소?

웨더튼 :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폐하.

제임스 : 몇 가지라고? “하나님과 하늘의 성인들에 대해 맹세하건대...” 짐은 개인적으로는 하늘의 성인에게 기도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지만 이 긴 리스트에도 몇 가지 도움 될 만한 사항은 있겠지.

웨더튼 : 폐하, 중점 사항은 소인이 밑줄을 그어 놓았사옵니다.

제임스 : 쓸데없이 줄이나 그으면서 잉크만 낭비했구먼. 웨더튼 선생, 굵고 새기고 문지르는 건 당신네 청교도 대학에서는 늘 하는 일 아니요? 그리고 이건 뭐요? 혼인 예배가 잘못되었다?

레이놀즈 : ‘내가 내 몸으로 주께 경배하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사옵니까, 폐하. 하나님만이 저희의 경배 대상이옵니다.

제임스 : 아내는 아니꼬?

레이놀즈 : 소인은 아내가 없사옵니다.

제임스 : 아내가 없다? 레이놀즈 선생, 많은 사람들이 로빈 후드 이야기를 잘 하오. 활 한 번 쏘 본 적도 없으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소. 그대가 참한 아내만 얻는다면, 그대가 아내에게 해 주는 모든 ‘경배’가 적절한 행동이 될 거라고.



제임스 왕의 단호한 표정과 언변에 찢찢매는 청교도 대표들. 로버트 세실 경은 이 상황을 통쾌하게 지켜보며 또 왕의 지혜에 내심 감탄하는 표정이다.

레이놀즈 : 폐하, 이 제안이 흡족하지 않으시면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항목도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제임스 : 일부는 살펴보겠지만 전부 다 보지는 못하오. 있던 은혜까지 다 사라져 버릴까 염려가 되는군. 오늘 아침은 짐의 심기가 불편하오... 왜 이렇게 글이 긴가? 그저 모자란 사람이 발로 끄적거린 것 같은 지루한 인생 한탄이라니!

레이놀즈 : 폐하...

제임스 : 이거 그냥 원래 있던 곳에다 도로 붙여 놓으시오. 읽을 가치도 없소.

쉐더튼 : 폐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려도 되려는지요?

레이놀즈 : 저희는 감독들이 통치권을 전적으로 차지하는 데 반대하옵니다.

발끈한 감독들이 술렁이자 청교도들을 견제하려는 벙크로프트가 그들의 난간 가까이까지 다가와 레이놀즈의 말을 막는다.

벙크로프트 : 폐하, 보십시오. 저 작자들은 폐하의 권위를 음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옳습니까?

제임스 : 그렇게 끼어드는 것이 더 권위를 음해하는 것이오!! 계속하십시오. 레이놀즈 선생.

레이놀즈 : 감독들이 공동 통치를 한다면... 그러니까 별도의 공회와 말입니다. 자기편에 속한 장로회랄까...?

제임스 : 장로회(Presbytery)?

표정이 일그러지는 제임스. 크게 분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친다.

제임스 : 장로회라고 말했나?!!

레이놀즈 : 아, 아니옵니다...

회의장 전체에 긴장이 감돌고, 제임스 왕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청교도들 앞에서 모두가 들으라는 듯 불호령을 내린다.

제임스 : 그대들의 말이 스코틀랜드의 장로회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대는 장로회를 짐과 동일시한 것이고, 이는 하나님과 마귀를 동일시한 것과 같소!!

해설 : 물론, 이런 견제는 천재인 제임스 왕이 일부러 놓은 포석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양 진영이 나라를 병들게 할 정도로 대립하고 있을 때라면 중재자는 일단

둘 다의 콧대를 모두 꺾고 중도 노선을 택하게 하는 게 현명한 법이니까요. 그는 양측 모두를中间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뒤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이자 유일한 통치자로서 자신을 그들 앞에 내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 : 아니 되오, 또 다른 건?

레이놀즈 : 결혼반지는…?

제임스 : 안 돼!

쉐더튼 : 십자가 모양 성호를 긋는 것은…

제임스 : 안 돼!

쉐더튼 : 절하는 것…

제임스 :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말고 좀 더 유익한 요청은 없는 거요? 짐이 진짜로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말시오.



제임스에게는 화합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 이를 위해서는 청교도들의 제안을 받아 주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드디어 나옵니다.

제임스 : 이제 진짜 없는가!!?

쉐더튼 :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레이놀즈 : 오래전에 논의되기도 했던 일로,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온 교회가 인정하고 같이 읽을 성경 말이옵니다.

뱅크로프트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흥분하며 다시 끼어든다.

뱅크로프트 : 이미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 그건 그대들 말고는 다 싫어하고, 수준이 안 맞아.

뱅크로프트 : 비숍 성경은….

제임스 : 그건 이들과 같이 유능한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소. 계속하시오.

쉐더튼 : 전국에서 통용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단일 역본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단일 역본이라는 말에 드디어 제임스 왕의 표정에 가느다란 미소가 떠오른다.

레이놀즈 : 물론 제네바 성경도 있사옵니다만…

제임스 : 그만! 청교도들의 선입견으로 가득 찬 성경, 난외주투성이인 그런 성경은 이 목적에 맞지 않소.

고소하다는 표정의 뱅크로프트.

제임스 : 그러니 그대들의 제안은 모두가 승인하는 완전히 새 성경 역본을 만들자는 것이렸다?

레이놀즈 : 그렇사옵니다.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소인 생각엔….

제임스 : 여봐라, 이제야 그대가 모처럼 쓸모 있는 훌륭한 발언을 했도다. 새로운 성경의 번역을 시작하겠다!

왕의 어명에 감독들과 청교도들의 얼굴에 묘한 표정들이 떠오르고, 얼떨떨한 그들에게 제임스 왕의 말이 이어졌다.

제임스 : 그대들 모두는 전능자 하나님의 미친한 종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이 일을 하도록 하시오. 잉글랜드에 진정한 화합이 이룩된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이겠느냐!





하나의 성경 역본을 향한 역사적 출발

해설 : 제임스 왕의 이 결정타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던 두 진영은 화합을 위한 대과업에 공동 투입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학술적인 프로젝트에 말이죠. 제임스는 이 일을 통해 왕으로서의 중재력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쪽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프티 왕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사라지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정계의 진정한 실세가 된 것이죠. 성향이 이렇게도 다른 두 진영을 움켜쥔 채 중대한 프로젝트에 이들을 같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물론 왕은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번역위원회를 만들어 번역에 착수하는 학자들.

이렇게 대과업이 시작됐습니다. 왕은 이번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번역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작업을 문틈으로 지켜보는 감독 진영의 벅크로프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무리로 돌아간다.

하지만 얼마안 가 우려가 하나둘 불거지더니 곧 의혹으로 바뀝니다.

감독들 : 감독 진영이 청교도 진영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들은 자기네 교리서와 주석서를 잔뜩 참고하더군요.

혹시 청교도들이 이단적인 교리를 슬쩍 끼워 넣으면서 번역하지는 않을까 감독

들은 우려했습니다. 뱅크로프트가 이 모습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정원을 거닐며 새를 구경하던 제임스 왕에게 뱅크로프트가 다가가 건의한다.

뱅크로프트 : 청교도들은 미덥지 못합니다.

제임스 : 그대는 아주 의심이 많구려. 적절한 시기에 대감독(archbishop) 자리에 잘 올랐어.

뱅크로프트 : 저는 세상에서 아무런 야망이 없습니다. 단지 폐하의 왕국이 안녕하기만을 바랄 뿐….

제임스 : 그대가 짐에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무 야망 없이 하는 말ियो?

뱅크로프트 : 폐하….

제임스 : 야망이 정말 없다? 참으로 영악하시구먼. 감독이여, 신뢰에 대해서 짐에게 이러쿵저러쿵 참견하진 말기 바라오. 요한복음 2장도 읽어 보지 않았소? “그분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우리의 주님도 ‘신뢰’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를 아셨다오.

뱅크로프트 : 폐하, 청교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기네 이단 교리를 몰래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자들 같은 심보라면 어중이떠중이가 다 성경 번역에 뛰어들어 이 세상은 온갖 역본들로 뒤덮일 것이옵니다.

제임스 : 그러니 사람을 누구도 믿어서는 아니 되오. 신학 노선도, 파당도. 가장 독실한 감독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오. 아무것도 믿지 마시오. 심지어 그대



의 알량한 마음도 믿지 마시오. 그대를 단련하고 불로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만을 믿으란 말이오.

감독은 미소를 띠며 자리를 뜨는 제임스 왕을 따라가 다른 제안을 한다.

뱅크로프트 : 번역자들의 작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임스 : 단계마다 원고를 검토하고 균형을 맞추고, 토를 단 것을 반론하고 그걸 또 역으로 재반박하는 것 말이오? 새 성경에는 난외주가 없을 거요. 남을 헐뜯기만 하는 주석도, 교회 감독이나 교황의 구미에 맞는 허튼 군더더기도 죄다 없을 거요.¹⁾

1) 실제로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8,422개의 난외주가 있다. 20세기 최고의 성경 본문 비평 학자인 에드워드 힐즈 박사는 “이러한 난외주들은 번역자들이 그들의 사고 과정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가능하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보이는 번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았음을 보여 준다.”(《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간, p. 213) 고 말하면서 공정성을 위해 소수 의견을 기록한 이들의 검손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난외주가 전혀 없이 본문과 왕에게 드리는 간략한 헌정사 등만 들어 있는 평범한 킹제임스 성경으로 온 세상의 모든 신학과 교리를 정립하도록 인도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뱅크로프트 : 새 성경은 평이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한편 비숍 성경의 틀을 물려받기도 할 겁니다. 그것도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에 걸음을 멈추고 감독을 마주한 제임스가 단호한 어조로 그러나 위트를 잊지 않고 말한다.

제임스 : 비숍 성경이라고? ‘네 빵을 물들에 던지라’(전 11:1)를 ‘너희 빵을 젖은 얼굴에다 놓으라’로 번역한 그 역본? 맵소사… 새 성경은 그것보다는 나아야 하오. 안 그러면 짐이 직접 그대 얼굴을 물에 적신 뒤 빵 한 덩어리를 엮을 것이오. 짐은 이 일에 관해 그대를 믿소이다. 정말이오.

웃음을 띠며 다른 곳으로 가는 제임스, 고개를 돌려 한마디 덧붙인다.

제임스 : 아, 만일에 대비해 짐 또한 각 번역자의 작업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것이오. 특히 그대의 작업은 집중 관리할 것이고.

Advice **애슬리 놀 박사**

왕은 청교도들의 참여는 유도하되, 그들의 교리로 인한 번역의 왜곡을 막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해설 : 작업물을 검증하는 방식이 정립된 것이지요. 왕이 고안한 여러 엄격한 규칙들 외에도 최종 본문을 대상으로 한 네 가지의 부가적인 테스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학문적 우수성을, 전에 없던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에 대한 엉뚱한 집착이 오히려 우수한 번역물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으니, 이는 매우 역설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성경은 당대에 통용되던 수준을 훨씬 초월하여 검증되고 또 검증되었습니다. 역사

상 그렇게도 철저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작품은 없을 겁니다.²⁾

Scene 예루살렘 챔버(Jerusalem Chamber)

해설 : 번역을 맡은 여러 조 중 하나는 이곳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곳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경내에 있는 예루살렘 챔버라는 방입니다. 이곳은 오늘날에도 소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교회 일을 의논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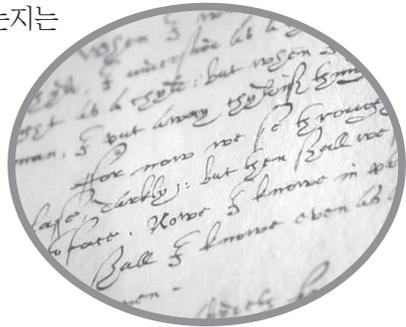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이 난로 주변에 랜슬롯 앤드루스(Lancelot Andrewes)가 이끄는 학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로서 서로 오류나

2)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자들의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번역자는 자기에게 할당된 부분을 마치면 첫 번째 위원회와 만날 수 있고 자기가 번역한 작품을 거기서 읽을 수 있었다. 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의 언어와 초기 영어 역본들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포함한 외국 번역본들과 같은 다양한 자료의 본문을 따랐다. 만일 번역과 관련하여 의견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통과되었으나 만일 의견의 차이가 있다면 위원회는 더 진행하기 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런 다음 그 위원회는 같은 방식으로 그 원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발견한 것들을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만약 이 위원회들이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면 차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12명으로 구성된 셋째 위원회에 넘겨졌다. 총회로 알려진 이 위원회는 두 명의 최종 편집자인 빌슨 감독과 스미스 박사에게 그 작업을 넘겨주기 전에 이전 위원회가 산출한 것들을 살펴보고 완성된 번역본에 모두 동의하였다(〈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그리스도예수안에, p. 70).

편견을 불식시키고 성경 원문의 본래 의미를 인간의 능력으로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번역을 하기 위해 교류했습니다.

Scene 램버스 궁전

해설 : 그것은 참으로 방대한 과업이었죠. 그러나 작업 과정에 대한 흔적은 전혀
저 오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수년 전에 중요한 단서
가 발견되었지요. 400여 년 전 번역자가 작업을 하며 종이에다 잉크로 써서 직접
남긴 원고... 이 희귀한 보물 중 하나가 램버스 궁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곳은
수 세기 동안 캔터베리 대감독의 거처이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서관은 뱅크로
프트 대감독에 의해 지어졌고, 이것은 아마도 그가 직접 소유했던 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책이 현재 다른 곳에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원본 초안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고전
13:13)

정말 영광스러운 언어입니다. 그 동안에 제임스 왕은 어땠을까요? 그는 집권 초
기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였을까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는 상당
히 잘 했습니다. 제임스 왕의 치세는 점점 더 확고해졌고 그는 인기도 더욱 많이
얻었습니다. 국가는 그의 통치하에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과당이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주요 번역자



● 앤드루스(Lancelot Andrewes)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대부분의 현대 유럽 언어를 배웠고, 특히 동방 언어와 신학에 정통했다. 그의 개인적인 경건 노트는 모두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으며 그의 뛰어난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매일 경건의 시간조차 갖지 않는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해도 그것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매일 노트를 적는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그리스어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참으로 대단한 언어적 자질이 아닐 수 없다. 로체스터의 감독인 버크릿지 박사는 그의 장례식 설교에서 고인이 생전에 15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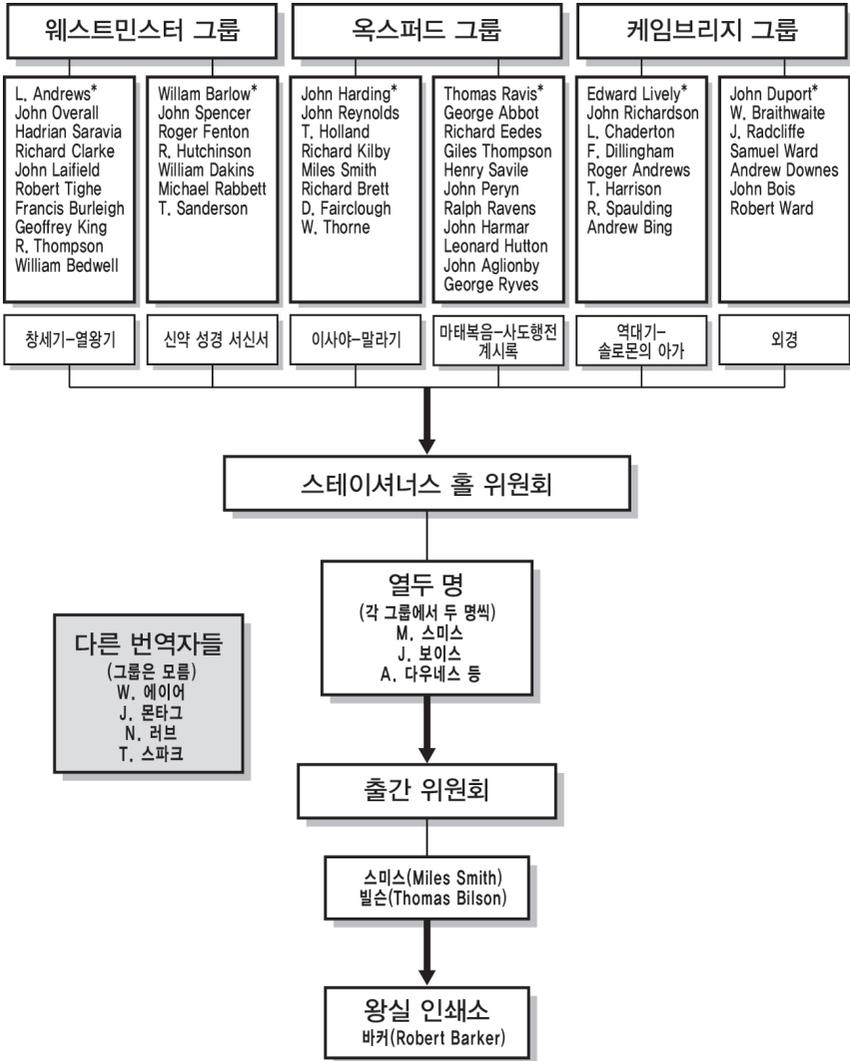
● 웨더튼(Lawrence Chaderton)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을 인정받았다. 또한 그는 성숙함을 지닌 훌륭한 학자였고, 구약 성경 번역을 맡은 케임브리지 그룹의 일원이었다.

● 스미스(Miles Smith) 그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대한 최종 심사원으로 선출된 12명 중 한 사람으로 가장 많은 학식과 달필을 요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을 기록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그는 자기만의 주해를 만들 정도로 그리스와 라틴 교부들의 책을 두루 섭렵했고,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교부들의 글을 모두 읽고는 거기에 자기만의 주석을 만들었다. 또한 그는 랍비들의 주석(히브리어 난외주)과 주해에 정통했다. 또 갈대아어(히브리어와 관련된 언어)와 시리아어, 아랍어에 얼마나 정통했는지 그에게 그것들은 거의 모국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는 히브리어에 완전히 능통하여 자유자재로 그것을 구사했다.

● 레이놀즈(John Reynolds)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자라났으나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신뢰했으며 청교도가 되었다. 그는 전 영역을 탐구하여 그 주제에 대해 정통해지기로 결심한 뒤 원어 성경을 기록한 말들을 가지고 성경 연구에 몰두했으며 그리스와 라틴 교부들의 책들과 교회의 모든 고대 기록을 읽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능력으로 인해 번역에 참여한 레이놀즈의 임종 시 기록이다. "로마 카톨릭교도들은 저 유명한 자신들의 적(레이놀즈)이 프로테스탄트로서의 믿음을 철회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괴로워했으나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만 남겼다. '설교나 책으로 내가 평생 동안 가르친 신앙,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만세에 증언하고자 한다.'"

● **뱅크로프트(Richard Bancroft)** 그는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었으며 캔터베리 대주교로서 영국 국교회를 대표하여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작업의 총감독을 맡은 사람이다. 그는 50여 명의 번역자들을 선택하고 번역의 규칙들을 제정하며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번역 작업을 인도하였다. 이쉽게도 그는 최종 번역이 나오기 6개월 전에 사망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





성경 출간을 막아라! 포크스의 화약 음모 사건¹⁾

해설 : 이때에 잉글랜드 내부 카톨릭교도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들에게 했던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로마 카톨릭 측의 불만은 매우 음침하고 위태로운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1604년 여름 즈음, 과격한 해결책을 강구할 정도로 불만이 극에 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심경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반체제 성향의 카톨릭 귀족 중 일부는 잉글랜드의 한 테러리스트와 접촉했습니다.

카톨릭 진영의 벼슬아치인 로버트 키이스(Robert Keyes)는 도시의 모처에서 한 사내와 만나고 있다. 이 자리에 합류하기 위해 그의 사촌인 프란시스 트레삼(Francis Tresham)은 거리를 지나 미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한 건물로 들어간다.

그 용병의 이름은 가이 포크스(Guy Fawkes). 그는 이런 일엔 자기가 적격이라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키이스 : 잉글랜드엔 전투 준비가 된 장정이 3,000명쯤 있소.

1) 1605년 11월 5일 영국 국회의 폭파를 음모한 가이 포크스를 주범으로 하는 천주교도의 음모, 동아 출판사 사전, YBM 사전, 교학사 사전 등에도 오른 유명한 역모 사건(Gunpowder plot)



포크스 : 훌륭한 카톨릭 군사들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오합지졸들인가?

키이스 :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때 그들을 찾아 자리에 합류하는 트레삼.

키이스 : 내 사촌인 트레삼이오. 안심해도 괜찮소.

포크스 : 그리 말하는 키이스 경 당신은 괜찮은 사람인지?

키이스 : 포크스, 당신의 위치나 잊지 말게.

포크스 : 내 위치는 알고 있소. 목까지 진흙탕이 차 있고, 턱까지 먼지와 때가 차 있다오. 그럼 당신의 위치는 어디요? 당신의 서재?

키이스 : 알다마다. 이 세계의 무대 위에 있지.

포크스 : 꿈 한번 야무지구면. 스페인 국왕이 적잖게 감명받았다 하오. 허나

불행히도 스페인 국왕께서는 우리의 제임스 왕과 화해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나는 뗏속까지 군인이고 타고난 용병이요. 허풍만 치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요.

키이스 : 그럼 자네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영광의 개벽에 우리와 동참할 수 있겠는가?

포크스 : 인간의 본성 그만 건 난 모르겠고, 주특기는 화약이요. 원하는 걸 말해 보시오.

키이스 : 놈들을 모조리 다 날려버리고 싶네. 감독, 프리비 의회, 의원들... 왕까지.

포크스 : 당신, 못 믿겠는데…?

키이스 : 부디 나를 믿게, 용병 양반. 내가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도 좋으니 제발 놈들을 없애 주시게나.

포크스 : 좋소, 그 정도면 의지가 확고하군. 난 당신이 행동을 후회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은 살 수 있게 작전을 짤 수 있소. 그러나 거사를 위해선 최소한 30배럴에 달하는 화약과 막대한 양의 돈이 들 거요.

그들의 계획은 대답하고 과격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란, 기득권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카톨릭교도들은 남겨 두고 말이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9·11식 테러' 계획을 자체적으로 구상했습니다.

햇볕을 밝히며 땅속 굴에서 작업 중인 가이 포크스의 무리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이건 역사상 무척 이례적으로 치밀하게 잘 계획된, 가공할 역모였습니다. 화약에 대해 잘 알고 필요한 걸 계산하고 무기 확보까지 가능한 사람이 배후 조종을 했죠. 우선, 그들은 의회 개회식 때 왕과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날려 버리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궁전 아래로 땅굴을 팠습니다.

포크스 : 힘을 내!!

해설 : 이걸 발상부터가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종교로 똘똘 뭉친 이 집단은 이 방법만이 잉글랜드를 카톨릭화하여 다시 로마 교회로 복속시킬 유일한 기회,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는 방으로 들어가는 트레샴.

키이스 : 얼마나 남았나?

트레샴 : 아직 멀었어. 이걸 미친 짓이야. 몇 년이 더 걸리겠어.

키이스 : 우리에겐 6주밖에 없어.

트레삼 : 아니면 인원이라도 늘리든가.

키이스 : 그것도 안 돼.

트레삼 : 6명만 더 투입하라고!

그때 가이 포크스가 방으로 들어온다.

포크스 : 아니면 힘 좋은 3명.

키이스 : 우린 온 힘을 다해 땅을 파고 있어. 우리의 인생과 혼을 걸었다고.

포크스 : 우리가 필요한 건 육체지 혼이 아니오. 더 좋은 삽, 곡괭이와 큰 해머가 필요하오.

키이스 : 장비는 원하는 대로 다 주겠어. 하지만 인원 증원은 안 돼.

트레삼 : 이봐, 다들 지쳐 있어. 그리고 의욕도 떨어졌고.

키이스 : 사람만 더 뽑으면 되겠어? 얼마나 더? 관원을 보내서 종을 올리게 해 보시지? “모여라~ 와서 삽을 들어라! 와서 삽을 들어라!”

비아냥거리던 그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린다.

키이스 : 이런 제기랄. 완전 진퇴양난이군. 어찌지…?



그때 다른 동료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동료 : 날짜가 바뀌었어.

키이스 : 뭐?

동료 : 의회 개회식이 4개월 연기됐다고. 11월 5일이 됐어!!

키이스 :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이 신의 뜻이라는 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군!

기뻐하며 동료와 포옹하는 키이스. 트레삼은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파던 땅굴은 그대로 버려졌어요. 지하 저장고를 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낡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지하 저장고를 빌림으로써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곳을 화약으로 꽉 채운 뒤 폭발하면 꼭대기에 있는 상원 회의실까지 완전히 날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안내인이 음습하고 먼지가 자욱한 지하 저장고로 이들 무리를 데려온다.

안내인 : 여기입니다.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네요.

포크스 : 당신이 말한 대로, 강에 접근하기 좋군요.

키이스 : 이미 알고 있잖아.

포크스 : 흠... 약간 눅눅하네요. 임대료도 꽤 비싸고요.

애가 탄 키이스가 포크스의 눈치를 보며 묻는다.

키이스 : 할 건가?

포크스 : 그렇소.

안내인에게 돈을 주고 그곳을 나서는 일행.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우리는 현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들이 보유했던 화약의 양이 얼마인지, 그 화약이 모두 성공적으로 터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알아냈습니다. 그 폭발은 단지 웨스트민스터 궁전만을 날리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예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절반가량을 무너뜨렸을 것이며 이로 인해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고 런던 시내까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가히 형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연기되었던 거사 개시 날짜가 다가오면서 몇몇 역모가 담자들은 자기 행동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타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프란시스 트레삼.



특히 트레삼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죠. 자기 아내의 오빠가 의회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렇다면 그는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트레삼이 한 급사 소년에게 무언가 쥐여 주자 그는 어디론가 달려간다.

구체적인 경위는 오늘날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긴 하나, 간략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트레삼의 매형인 몬티글 경(William Parker, 4th Baron Monteagle)에게, 의회 개회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가 담긴 익명의 쪽지가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쪽지에 담긴 메시지는 그냥 ‘뭔가 큰일이 난다’가 전부였어요. 이게 의회 개회식을 가리키는지, 당시 흔한 정치 테러이던 왕의 암살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쪽지 발신자가 무엇을 언급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몬티글 경과 대화하는 로버트 세실 경이 괴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세실 : 이 쪽지는 그대의 처남에게서 받은 게 확실하오?

몬티글 : 글씨체가 그 사람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세실 : ……….

몬티글 : 뭔가 심각한 내용인 것 같나요?

곧돌히 무언가 생각하던 세실 경이 무언가 떠오른 듯 보좌관과 함께 급히 방을 나선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사실, 그들은 화약 폭발 테러를 떠올린 건 아니었습니다. 요인 암살 계획의 일종일 거라 생각했죠.

지하실 깊은 곳에서 병사들과 수색에 나선 로버트 세실.

해설 : 세실 경과 그의 수행원들은, 누군가가 왕을 저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당 건물 내부의 넓은 통로와 지하실들을 긴급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음모가 실제로 꾸며지고 있었는지 아직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이건 단순히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몰살하고 대화재까지 유발하려는 끔찍한 역모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흉악한 수준의 테러죠.



로버트 세실과 병사들이 지하의 한 방을 열고 급습한다.

1604년, 10월 27일 자정이었습니다. 세실과 그의 부하들이 마침내 찾아냈지요.

문을 열자 나타나는 가이 포크스, 그는 망치 등으로 격렬히 저항하며 병사들을 공격한다. 그가 미친 듯이 날뛰며 로버트 세실을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놀라는 세실 경, 그러나 그를 낚아챈 병사들에 의해 그는 제압을 당하고, 괴성을 지르며 체포, 연행된다.

천만다행으로 대재앙을 사전에 막기는 했으나 이는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로버트 세실은 당대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모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일부러 좀 기다리고 있다가 출동한 걸까요?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아니요, 이 사건이 프리비 의회와 세실 당사자에게 끼친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세실은 잘못이 발견되어 파면당하지는 않을까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의회 개회 선언과 같은 중요 행사의 보안을 책임지는 건 수석 장관의 임무였기 때문이죠.

가이 포크스가 사형수로 전락한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역모 가담자들도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불운한 사람은 아마도 예수회(Jesuit)²⁾ 수장인 헨리 가넷(Henry Garnet)일 겁니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그는 잉글랜드 예수회 조직의 수장 사제입니다. 그는 아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엔 다소 고지식한 사람이었죠. 여느 카톨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1604년 이후로 영국에서 카톨릭교회를 위해 이룬 것이 없다는 사실에 몹시 실망해 있었습니다.

가넷은 반역자들이 마지막으로 고해 성사를 자기에게 할 때 그 무시무시한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만류하려 하긴 했지만 왕실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해자의 비밀을 절대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는 카톨릭교회의 법이 국가의 안위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백성과 법의 관점에서는 반역 혐의를 받을 수밖에요.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가넷은 예수회 회원 중에서 가장 순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련하게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역모에 가담했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우두머리로 지목되었지요. 헨리 가넷이 처형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응징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고 기독교권을 학살하고, 국가 화합을 무너뜨려 생존자들마저 절망에 빠뜨리려 한 이 역모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본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임스 왕의 인기가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2) 1540년 성 이그나티우스 데 로욀라(Ignatius de Loyola)가 프란시스코 사비에르(Francisco Xavier) 등과 함께 파리에서 창설한 카톨릭교회의 남자 수도회(두산백과).

민심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에게 쏠리며 백성은 일치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세실 경은 앞으로 11월 5일을 영원히 국경일로 기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11월 5일의 축제.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한창이고, 영국인들은 가이 포크스의 마네킹을 불태우기 위해 옮기며 축제 분위기에 들떠 행진을 한다.³⁾

“11월 5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화약 음모 사건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화약 음모 사건을.”



로버트 세실 경이여, 참 잘하셨습니다!! 무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화약 음모 사건을 어찌 잊겠냐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꼬마였을 때도 하던 겁니다. 저도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3) 화약 음모 사건(Gunpowder plot)의 주인공 포크스(Guy Fawkes)의 이름 guy는 '이상한 옷을 입은 사내'라는 뜻에서 '남자'라는 말로 변천되었고, 오늘날은 guys라는 말이 성별을 떠난 '여러분'으로 널리 사용된다. 가이 포크스의 무정부주의와 체제 전복을 상징하는 가면은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웃고 있는 콧수염으로 등장해 오늘날 반세계화 운동 등의 시위에 사용되며 해킹 단체 어나니머스 등이 저항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타는 가이 포크스의 인형을 보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불에 타던 인형의 머리가 떨어지자 박수를 치며 즐거워한다.

해마다 잉글랜드에서는 가이 포크스의 처형을 기뻐하는 행사가 열리지만 이것은 이제 반 카톨릭 성향의 행사는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꽃놀이로 하며 즐기는 축제일 뿐, 원한과 보복의 뜻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매년 11월 5일에 집집마다 사람들이 왜 뒤뜰에 모여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인형 화형식을 하고, 그걸 또 진심으로 즐기면서 구경하는지 이상하게 보일 법도 할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본의 탄생

해설 : 그럼 다시 성경 번역 상황을 살펴보죠. 두 과당의 번역 작업은 제각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밖에서 벌어진 역모에 동요됨이 없이 학자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수개월이 흐르고, 수년이 흘렀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번역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서로 자기네 지식, 자료, 학식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양 진영이 상대방 진영을 향해 품고 있던 의심과 불신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갈등과 대립밖에 모르던 양 진영의 최우수 번역자들은 같은 일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한마음이 된 걸 알게 됐습니다. 둘 다 공통된 중앙 원점에서 똑같이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겠다는 제임스 식 화합이 실현된 셈이죠.¹⁾

Advice 풀린 크로프트 교수

이들이 다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투철했을 거라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전능자(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도요. 킹제임스 역본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Advice 칼 트루먼 교수

킹제임스 성경의 대단한 면모를 하나 지적하자면 이 책은 개인이 아닌 위원회

1) 우리 모두의 기쁨 중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의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채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부를 능가하는 '측정할 수 없는 보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열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스스로 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영원한 행복으로 안내하기 때문이다(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주는 글).

가 만든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고급 인재들의 재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갔어요.²⁾ 영어 산문의 천재 랜슬롯 앤드루스, 사려 깊은 개혁주의 신학자 로렌스 웨더튼 같은 사람들이 같은 팀을 이루어 성경이라는 건물의 벽돌을 이루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을 대면했고 이를 자국어로 번역해 냈습니다. 결국 이 역본은 역사상 그 어느 영어 역본보다도 칭송받고 원문과 더욱 정확히 일치하는 작품이 되었죠.³⁾

Advice 애슐리 놀 교수

작지 않은 규모의 위원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에서 어떻게 이 정도로 일치와 조화가 이룩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본문의 어휘와 간결성, 호소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Advice 나오미 태드머 박사_Naomi Tadmor, 랭카스터 대학교 역사학

이는 물론 막대한 양의 학술 연구가 동원된 덕분입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언어학자들과 가장 위대한 번역가들이 이례적인 팀워크를 이루어, 함께 앉아 믿음과 성실로 일함으로써 이런 성경을 만들어냈고, 또 그것을 최고 수준으로 다듬었습니다.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주는 글

진리가 없이 어떻게 경건함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진리(구원하는 진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성경기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

2) 영어에는 제임스 1세 시대만을 가리키는 별도의 어휘로 자코비안(Jacobean)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자코비안 건축, 문학 등의 표현이 존재함. 제임스의 히브리적 이름은 야곱(Jacob)이고 여기서 자코비안이 생겼다(위키백과 James VI and I 항목).

3) 선한 크리스천 독자여, 진실로 우리는 새로운 역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며 나쁜 것[역본]에서 좋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다른 것]을 반대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으뜸가는 좋은 것'(one principal good one)을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한 바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다(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주는 글).

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가 성경기록을 탐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요5:39; 사8:20). 성경기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행8:27-40; 17:11; 딤후2:15) 성경기록에 미숙하거나 성경기록을 더디 믿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다(마22:29; 눅24:25). 성경기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딤후3:15).

우리가 무지하다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성경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가 비뚤어져 있다면 성경이 우리를 바로 잡을 것이다.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무디어진 우리에게 자극을 주며 냉랭해진 우리 마음에 불을 댕겨주는 것이 성경기록이다. 톨레, 레게(Tolle, lege), 톨레, 레게!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Scene 머튼 칼리지

해설 : 학자들의 고된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실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머튼 칼리지를 찾았습니다. 웬지 공기의 맛이 다른 곳입니다.

머튼 도서관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설계한 사람은 도서관장인 헨리 새빌 경입니다.

니다. 그는 번역자들 중 아마 경력이 가장 화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왕의 보좌관이나 외교관을 역임했죠. 그에게는 해적⁴⁾ 기질이 좀 있었으며, 여자들이 줄을 서는 인기 있는 남자로도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에도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답니다. 그는 옥스퍼드 그룹 제2조의 번역자로서 성경 번역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⁵⁾

이곳에 있는 3권의 책은 새빌 경의 서재에 있던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의 번역 작업실에 있던 것이죠. 그중 하나는 히브리어 사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라마티카 칼대 에트 시라’인데 이것은 ‘시리아어-갈대아어의 어휘/문법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책은, 여백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깔끔한 손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헨리 새빌 경의 자필 메모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느껴지신다면, 근처의 다른 도서관에서 발견된 관련 유물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Scene 보들리언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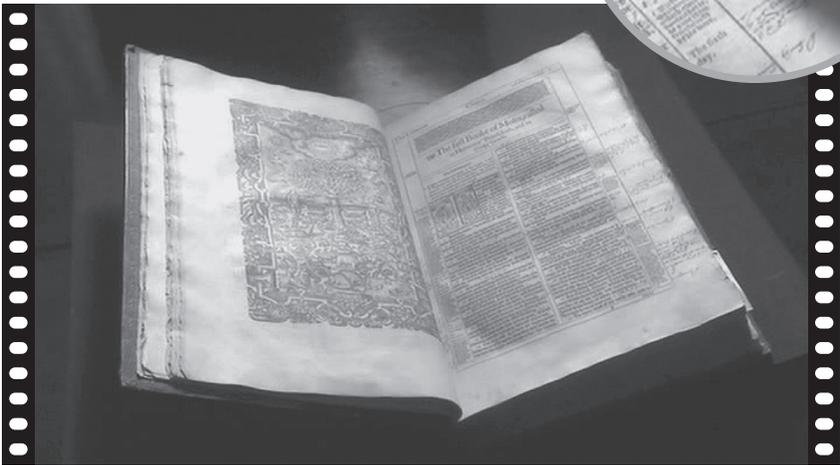
해설 : 이곳은 옥스퍼드의 중심부에 있는 보들리언 도서관입니다. 제임스 왕도 이곳에서 공부를 즐겨 하곤 했습니다. 듣자 하니, 자기가 왕만 아니었으면 평생

4) buccaneer,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활동하는 합법적인 해적

5) 최고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신학자들이 함께 이루어 낸 작품을 어찌 각지에서 물려든 어설픈 학자들과 몰락한 목사들과 단순한 신도들의 합작품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작품이 ‘개량되고’ ‘개선되고’ ‘교정을 거친’ ‘믿을 만한’ 재번역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며 ‘미국과 외국 성경연대’라는 것을 만들어 이 건방진 성과물을 출판하고 있다. 이런 천박한 모험가들이 앞서 짚어 본 그런 덕망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어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신흥 역본주의자들이 아무리 우쭐대고 기세등등하더라도 그들은 이런 고대 학문의 대가들의 꼬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새파란 친구들이 앤드루스나 레이놀즈, 워드, 보이스가 원문 성경의 의미에 대해 주석들을 비교하고 있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땀장자들이 손볼 수 있는 쇠붙이가 있고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쇠붙이가 있다. 어떻게 땀장자에게 성소의 금 그릇을 맡기겠는가? 그들이 그것을 아무렇게나 땀질하도록 어찌 내버려 두겠는가?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그리스도예수안에, p. 73)

이곳에 틀어박혀서 책하고만 씨름하며 살겠다는 말도 했다는군요. 대단한 공부 벌레입니다. 이 도서관은 방대한 양의 책과 지식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옛 문헌들로 가득한 보물 창고입니다.

지금 소개하려는 귀중한 자료도 겨우 최근에만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한 권의 비숍 성경. 수 세기 동안 존재 자체가 잊힌 채 이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보물입니다. 과거에 킹제임스 성경 탄생 과정의 흔적이 이 책에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메모한 게 적혀 있죠. 당시에 발견된 최신 학설과 갖 생각난 사색과 통찰의 결과물, 새 성경을 만들기 위한 고뇌의 흔적이 옛 성경의 여백에 휘갈겨 써져 있습니다! 아니, 휘갈겨진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쓰인 것이겠죠. 때로는 ‘유레카!’ 같은 감격과 열정을 담아서 말이지요. 예전에 적힌 메모에 대한 코멘트가 적힌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고민과 의견 교환의 흔적들입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는 50명이 넘는 학자들이 동원되어 7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번역자 중 최소한

두 명이 작업 도중에 세상을 떠났으며, 파산 직전까지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많은 기도, 그리고 최고 수준에 달한 학문적 우수성 덕분에 처음에 대답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서로 손잡고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업 중인 화합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학자들 개개인은 자기 개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지요. 사실은 것처럼 다양한 성품과 학문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류한 덕분에 최종 번역물이 이례적으로 탄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번역본만이 최종 승자가 된 것이죠.



최종 마감된 원고에는 제임스 1세 시대 특유의 풍부한 문학적 감성과 섬세한 수식어 묘사가, 청교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차분한 간결함과 딱 융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킹제임스 성경은 명작 수준을 초월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히 하늘 문으로 안내하는 통로 그 자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주는 글

성경은 무기이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이다. 여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앞은 약

이 된다. 성경은 그저 담아두기만 하는 만나 향아리나 기름 단지 한 병이 아니며 한두 끼 분의 양식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요, 기름 단지로 가득한 저장고와 같다. 이로써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로써 우리의 빛이 탕감된다.

성경은 묵은 전통에 맞서는 신선한 음식 저장고요, 해로운 이단을 예방하는 약국(성 바질이 이렇게 표현함)이며, 번역하는 영들을 다루는 데 유용한 법전이요, 천박한 초보 원리들과는 비할 수 없는 값진 보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생으로 솟아나는 가장 순수한 샘물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땅이 아닌 하늘이 근원인 책,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저자인 책, 사도들이나 대언자들이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다. 그 기록자들은 모태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 본질은 진실과 경건과 순수와 올곧음이며 그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며 그 영향은 지각의 빛, 견고한 확신,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생명의 새로움, 거룩함, 화평, 성령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다.

성경을 가까이하는 사람의 마지막과 보상이 이것이니 곧 성도들과의 교제와 하늘의 본성에 참여함과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속이다.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더더욱 행복하다.

해설 : 아,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름지기 소리 내서 읽는 느낌이 좋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큰 소리로 낭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⁶⁾ 욕실 안에서 노래를 불러 보면 다른 곳에서보다 자기 목소리가 훨씬 더 멋있게 들린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왜냐하면 메아리가 울리니까요. 기쁨과 위엄을 갖추려면 메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곳은 어딜까요? 당시에 있던 교회 예배당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6) 킹제임스 성경의 안쪽 표지에는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은'이라는 문구가 있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요 1:1)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요 1:4)

인쇄공이 잉크를 두 개의 큰 솔에 발라 인쇄 기계 위에 오른 활판에 골고루 묻히고, 종이도 달도록 덮개를 덮은 뒤 손잡이를 돌리며 물러를 움직여 성경을 찍어낸다. 덮개를 열자 킹제임스 성경의 한 페이지가 나오고, 이를 순서대로 쌓는다. 반복되는 작업….



번역 작업이 끝난 뒤, 글로스터의 감독인 마일즈 스미스가 최종 작업본에 대한 서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글은 참으로 명문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역본을 만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바친 고귀한 장인들의 심정과 의도를 잘 간파한 기록입니다.⁷⁾

7) 이 서문의 원제는 ‘번역자들이 독자에게이며 여기서 번역자들은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을 요약하였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본문과는 달리 일반 대중이 거의 읽을 수 없는, 1611년경의 최고 지성인들만 알 수 있는 현학적 형태로 기술되었고 심지어 현대에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읽기가 심히 난해한 글이다. 그 결과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몇 개의 명문 외에는 전혀 인용되지 않은 채, 외경과 마찬가지로 초판 이후의 대부분의 킹제임스 성경 출간 시 제외된 사문(死文)이다.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주는 글

이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실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게 당신을 맡기는 일만 남았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우리의 마음에서 베일을 벗기신다. 또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참으로 우리의 성정을 고치신다. 그 결과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그것[말씀]을 사랑할 수 있으며 참으로 끝까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파지 않은 생수의 샘들로 인도되었으니(창16:15; 렘2:13)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거기다 흙을 끼얹지 말며 사악한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것들 앞에 있는 터진 웅덩이들을 선호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당신들은 그들의 수고의 열매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오 그토록 위대한 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며, 하나님의 그토록 큰 구원을 경멸하지 말라. 돼지들처럼 그토록 귀한 보물을 발로 짓밟지 말며 개들처럼 거룩한 것들을 물어뜯고 능욕하지 말라. 게르게스 사람들처럼 우리의 구원자께 ‘우리들의 지방에서 떠나소서.’(마8:34)라고 말하지 말며, 에서처럼 팔죽 한 그릇에 당신들의 장자권을 팔지 말라(히12:16). 빛이 세상에 왔을진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 말며, 음식과 의복이 제공되었을진대 혈벗은 채로 굶주린 채 다니지 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께서 우리 앞에 자신의 말씀을 놓으실 때에 그것을 읽는 것,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뺏으시고 부르실 때에 ‘오 하나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복된 일이며 우리를 결국 영존하는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돌보심과 내적 의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구한다.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과 더불어 그분께 모든 찬양과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Scene 1611년, 인쇄소

해설 : 출판일이 다가오자 제임스 왕은 책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나올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쇄 중인 성경을 보기 위해 행차하는 제임스 왕. 인쇄소에서 책임자의 알현을 받는다.

바커스 : 폐하.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인쇄공은 바커스(Barkers)였습니다.

제임스 : 그대가 짐의 아이를 출산하고 있구려.

바커스 : 그렇사옵니다. 폐하.

제임스 : 산파가 된 것 같군. 계속 진행하게.

바커스가 인쇄기의 뚜껑을 열어 인쇄 중인 성경의 한 페이지인 서문 부분을 제임스에게 건넨다. 읽어보며 감회에 젖는 제임스 왕. 서문을 읽어 본다.

왕은 그때까지 자신의 역본이나 그 유명한 서문이 인쇄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고 나서는 그는 크게 감격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우리가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길어 수 있게 한다.” 우물… 물… 생명수… 국가의 치유라는 의미도 들어가겠군.

제임스 왕은 감격해서 번역 위원들과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제임스 : 기적이야... 이걸 정말 기적이야!!!⁸⁾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주는 글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야곱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러내고 물을 길어 라반의 양 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창29:10),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요4:11)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고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을 것을 요구받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사29:11).

8) 제임스 1세의 번역물인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아왔다. 뛰어난 역본의 탄생 조건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본문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 역본이야말로 모든 역본 중에서 최고가 틀림없다. 문장, 단어, 구, 절, 글자, 점 하나하나가 엄밀히 비교 검토되었고 본문과 여백이 모두 정확히 표현되었다. 백 년 전 사람인 로버트슨도 킹제임스 성경이 단순한 번역본뿐 아니라 히브리어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그리스도예수안에, p. 73).

● 에필로그 :

제임스 왕이 남긴 두 가지 유물

해설 : 드디어 책이 완성되어 나왔습니다.¹⁾ 제임스가 꿈꾸고 바라던 평화와 화합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고, 후대로까지 이어진 유일한 결과물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성경 프로젝트가 완료된 직후부터 제임스 왕의 명성은 반대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상향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외교 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왕실과 사생활 곳곳에서 스캔들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민들 가운데서도 왕의 평판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책이 잘 팔리지도 않았지요.

Advice 애슐리 놀 교수

종교계의 변화는 언제나 더딥니다. 사람은 원래 나이가 들면서 생활 방식의 모든 것이 바뀌는 법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식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요.

Advice 브라이언 스피ング스 교수_에일 디비니티 스쿨, 목회학 등

1611년 이후에도 많은 국교회들은 여전히 비숍 성경을 사용하였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제네바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제 생각엔, 새 역본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성경을 교체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심리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해서였을 겁니다.



Advice 폴린 크로프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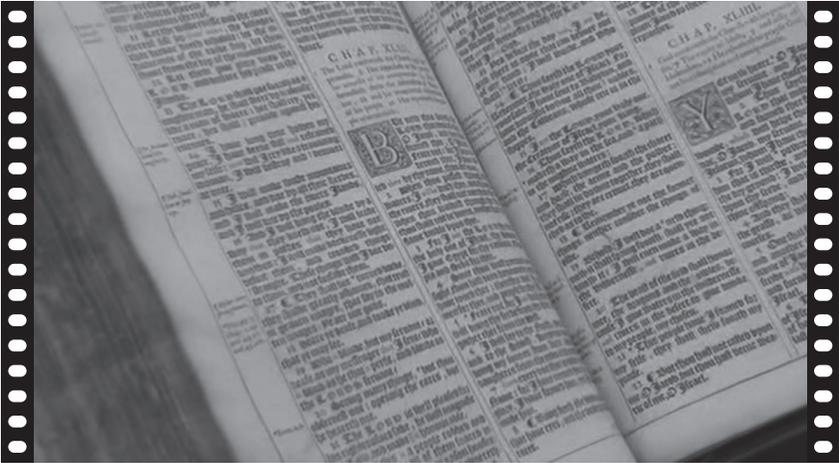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아주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영어 문학의 영역을 확장한 이 장엄하고 놀라운 걸작을 보십시오! 영어를 가장 잘 아는 당대

1) 1611년 5월 2일 반포

최고 문장가들의 손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세계 방방곡곡을 돌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Advice **애슬리 놀 교수**

이것은 혁명을 불러온 문헌입니다. 서양 문화의 뼈대를 형성했죠.



킹제임스 성경은 첫 출간 이후 반세기가 지난 뒤 드디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와 언어는 이내 수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쳤으며 지금까지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 1:3)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 1:1)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힐 뿐이니라.” (마 5:13)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출 20:12)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사 53:7)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눅 2:10)

“그녀가 자기 만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눅 2:7)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고전 13:1)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눅 1:48)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계 21: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마 5:8-10)



Scene 웨스트민스터 사원

해설 : 하지만 정작 제임스는 자신의 새 역본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1625년에 세상을 떠난 뒤 이곳에 묻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이죠. 백성들은 그의 서거를 추모했습니다.

이 장소는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선조들의 유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만약 누가 왕국이나 문화에 큰 업적을 남기면 사후에 그의 족적이 이곳에 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왕과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유물은 어디 있을까요?

레이디 채플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준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제임스 왕이 건축했지요. 이곳에는 그 여왕의 유물이 안치되어 있으며 또 제임스 왕의, 요절한 두 자녀의 유물도 있습니다. 그럼 제임스 자신의 자리는 어디 있나요? 제임스는 친모인 메리 여왕을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채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니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시신을 성당 안에 이장하기 위해 참수당한 목을 다시 꺾매어 붙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 제임스는 어디 있나요?드디어 찾았습니다. 헨리 7세의 웅장한 왕릉의 바로 근처에 있더군요. 어디냐고요? 아래쪽을 보시죠. 이 검은 돌 판이 제임스 1세에 대한 유물입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성당의 먼 구석에는 아주 괴상하기 그지없게 생긴 박물관이 딱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그곳에 있을까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잉글랜드 역대 선왕들의 장례 형상, 쉽게 말해 마네킹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을 만들어 놓았죠. 엘리자베스. 제임스의 아내, 그의 숙모인 메리 튜더, 그의 할아버지인 헨리 7세 헨리 튜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임스는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는 방은 과거에 수도승들의 기숙사였습니다. 1591년에 리모델링을 거쳐 도서관으로 개조되었죠. 제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 놓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주 정교하게 재현해 낸 제임스 왕의 신체 형상이 오늘날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이 유물을 통해 선왕에게 최후의 경의를 표했지요.



이제 그의 몸을 보십시오. 발가락이 없고, 한쪽 발은 반쪽이 됐으며, 다리 관절은 부러졌고, 팔도, 손도, 머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남겨 준 왕치고는 유물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유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면서 그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린
<킹제임스 성경>(1611)이 바로 그의 유물입니다!!

이 유물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이며,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한 부쯤은 아마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지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 1:24-25)

- The End



제3부

영어 성경의 역사

르 네상스 시대 이후의 현대 성경 역사는 영어 성경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 성경의 백미라고 불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여 주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수고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특히 이 일에는 영국이라는 나라와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치밀하게 일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

제3부¹⁾에서는 간략하게 영국과 영어 역사, 영어 성경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위클리프 성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 루터의 종교 개혁과 그가 출간한 루터 성경, 그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스페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출간된 경위, 그리고 틴데일 성경부터 킹제임스 성경까지의 여러 영어 역본들과 영국

1) 3부의 대부분은 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의 4, 5장의 내용임

왕들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의 제정과 번역 그리고 영향 등을 가능한 한 연대기 순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과 영어의 역사

영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영국 민족 및 영어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후 5세기에 로마가 영국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브리튼족은 색슨족의 도움을 받아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략을 막아냈다. 색슨족은 북부지방에서 승리를 거둔 뒤 돌아갔으며 그 뒤에 영국 남부를 차지하려 했다. 이런 싸움은 거의 15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동안에 앵글로족, 색슨족, 여러 이교도 등이 고대 영국을 일곱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다. 이 동안에는 영국 전체에 복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였고 6세기 후반에 켄트의 왕이었던 에텔베르트(King Ethelbert, 560-616)가 회심한 후에야 비로소 다시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 뒤 여러 왕국들은 좀 더 강한 왕국으로 합병되었고 마침내 주후 827년에 에그베르트(King Egbert, 771-839)는 이 모든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여 통치하였다.

색슨족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덴마크족이 계속해서 영국을 침략했고 여러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다가 주후 878년에 앨프레드 대왕(Alfred the Great, 849-899)은 에딩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게 되었다. 그 뒤 150년 동안 영국인들과 덴마크족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영국 교회는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란프랑코에 의해 재조직되었다.

이 기간에는 앵글로/색슨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에게 전해 주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8세기 초반에는 시편과 복음서를 번역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번역본은 현재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후 735년에 비디(Bede, 672-735)는 복음서를 번역했으며 앨프레드 대왕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위하여 스스로 시편을 번역하기도 했다. 10세기 후반에는 앨프리크 대주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고 이로써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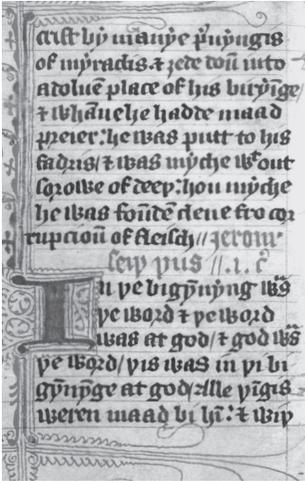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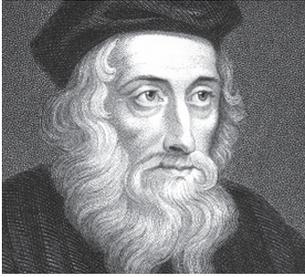
그 뒤 약 400년 동안은 영어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주후 1066년에서 1150년까지는 색슨족의 언어와 노르만/프랑스어가 같이 쓰였다. 그러다가 1150년 이후에 이 두 개의 언어는 서로 병합되기 시작했고 결국 고대의 색슨어가 아니라 절반만 색슨어라는 의미의 ‘반-색슨’(semi-Saxon) 언어라는 것으로 귀착되었고 그 뒤 1382년에 어느 정도 영어가 정형화된 상태에서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위클리프 성경(주후 1382년)

“나는 결국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1380년에 랭카스터 공작에게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4-1384)가 쓴 글이다. 위클리프의 역본이 제롬의 부패한 라틴 벌게이트로부터 나왔고 따라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기초가 되는 역본들 중 하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의 작품은 초기 영어 성경 역본들에 대한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만 한다. 영어로 된 성경 전서 역본을 최초로 우리에게 준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이다. 또한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 것도 바로 위클리프였다.

위클리프는 혼자 힘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였지만 구약 성경 번역은 헤리퍼드의 니콜라스가 그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프의 성경은 1382년에 소개되었으며 후에 퍼르비(John Purvey)가 개정하였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아서 역본의 모든 복사본을 자필로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숭고한 일이었다.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 데는 열 달 정도가 걸렸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도서관 사서의 일 년 치 봉급이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성경이 필사되자 마침내 영국 국회는 법령을 제정하여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기록된 200여 개의 위클리프 성경을 가지고 있다.

비록 위클리프와 또 몰라드로 알려진 그의 추종자들 즉 가난한 수도사들의



윌리엄과 윌리엄 성경의 한 페이지

집단은 카톨릭교회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 당시 카톨릭교회의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교리를 가르쳤다. 윌리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한 개개인의 구원을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카톨릭교회의 화체설과 면죄부 교리를 거부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교회의 계급 제도가 비성경적이며 교황이 다른 성직자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갖는 것도 그릇된 것이라고 가르쳤다. 당연히 그들의 교리는 카톨릭교회를 악한 단체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롤라드들 중의 몇 사람은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 윌리엄의 번역을 도왔던 퍼르비와 헤리퍼드의 니콜라스는 체포된 뒤 그들의 믿음을 철회하라고 강요를 받았다. 1382년 런던에서 윌리엄의 많은 가르침이 이

단 사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옥스퍼드에 있던 윌리엄의 많은 추종자들 역시 믿음 철회를 강요받았다. 그렇지만 윌리엄 자신은 시련을 당하지도 않았고 순교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생각과 작품은 여전히 카톨릭 주위의 진노를 받았다. 윌리엄은 퇴직을 강요받았고 1384년 사망할 때까지 영국의 루터워쓰에 있는 자신의 사제관에 머물렀다.

1401년에 의회는 윌리엄의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영국의 아룬델 대주교는 교황에게 '저 사악한 마귀의 자식 윌리엄'을 처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뒤 1408년에 그의 지휘하에 옥스퍼드 회의가 열려 "어떤 형식으로든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그런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라는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단

으로 정죄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뒤 약 100년 동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위클리프의 성경을 목에 매단 채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와 그의 동역자들의 수고로 많은 성경이 필사되어 아직까지 200여 권이나 남아 있음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영어 성경이 평민들의 손에 들어가자 큰 위협을 느낀 교황 요한 23세는 1415년 5월 4일에 콘스탄스 공회를 열어 위클리프의 성경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미 죽어 무덤에 안치된 위클리프의 유골을 캐내어 불사를 것을 결의했다. 그 뒤 13년이 지나서 1428년에 이들은 실제로 위클리프의 무덤을 열고 그의 뼈를 캐내어 불사르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박해를 겪으면서도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손으로 일일이 필사해야 하는 제약점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급할 수 없었다.

다음은 시편의 가장 유명한 기록 중 하나인 ‘목자 시편’(Shepherd’s Psalm)이다. 영어의 변천사를 보여 주기 위해 위클리프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였다.

시편 23편 1-4절 (킹제임스 성경)

1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2 He maketh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eth me beside the still waters. 3 He restoreth my soul: he leadeth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4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시편 23편 1-6절 (위클리프 성경)

1 The lord governeth me, and no thing schal fail to me; 2 In the place of pasture there he hath set me. He nourished me on the water of refreshing; 3

He conurtide my soul. He lead me forth on the paths of rightfulness; for his name. 4 For whi though Y shall go in the midst of shadow of death; Y shall not dread evil, for thou art with me. thy yard and thy staff; tho han comforted me.

구텐베르크와 인쇄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약 100년 전에 독일의 멘즈라는 오래된 마을에 요한 구스플레쉬(John Gooseflesh)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천주교 사제들이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양피지를 만들어 어려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요한은 칼로 무엇인가를 조각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불 옆에서 자기 어머니가 꿰고 있는 자주색 염색 냄비를 지켜보며 나무에다 자기 이름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글씨를 새긴 나무 조각들 가운데 하나가 염색 냄비 속으로 들어갔다. 얼른 그것을 꺼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그 옆에 놓여 있던 양피지에 떨어졌다. 그가 나무 조각을 집어 올리자 그 양피지에 'h'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갔지만 멘즈의 이 소년은 자기가 살던 옛집에서 그날 일어난 일을 잊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그 당시까지 해 온 것처럼 손으로 책을 필사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으로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조각을 깎아 그 위에 글씨를 새기고 염색하는 잉크를 문혀 여러 가지 형태로 배열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서구에서 처음으로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구나 역사책을 통해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처음 발명했



뉴욕 시립도서관에 전시된 구텐베르크 성경

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이 일에도 성경을 널리 보급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참으로 묘하게도 주후 1450년에서 1455년 사이에 서구에서 처음으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은 다름 아닌 라틴어 성경책이었다.

그리스 문화의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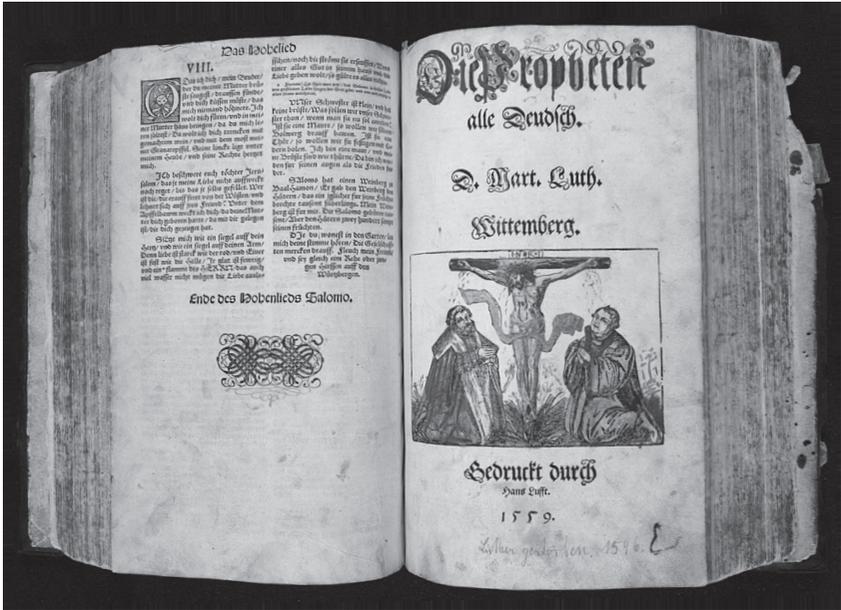
인쇄술이 발명되던 그 당시에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대부분의 훌륭한 학교들이 몰려 있던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어 학자들은 유럽의 각처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이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읽어 오던 라틴어 성경 대신 원어인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로 인해 점차 사람들은 성경을 모든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다면 참으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내 원어에 대한 연구와 인쇄기의 발명 그리고 영어의 정형화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1522-1534)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성경도 마르틴 루터(1483-1546년)의 독일어 성경만큼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 매력적인 성경은 독일의 역사와 언어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성경'(Die Heilige Schrift)을 미국으로 가지고 간 많은 독일계 이민자들과 초기 미국 정착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루터가 성도들의 공통 믿음에 엄청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독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루터였다. 처음에 그는 법률가가 되었다. 하지만 가깝스



16세기의 루터 성경

로 폭풍우를 피하며 목숨을 건진 뒤에 루터는 카톨릭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이신칭의'에 대한 성경기록을 공부한 뒤에 루터는 자신의 유명한 '95개조'(Ninety Five Thesis)를 만들어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였다.

그 뒤 루터는 몇 년 동안 이 일에 대한 비난을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1521년에 파문당하였다. 루터는 그해 4월에 보름스 회의(Diet of Worms)에서 소위 거룩하다고 추앙받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끌려갔으나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거기서 거부했으며 결국 제국으로부터 추방당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로 피신한 뒤 그다음 여덟 달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하였다. 루터가 성경 번역을 위해 사용한 그리스어 본문은 에라스무스가 만든 본문이었다. 이 본문은 전통 본문에 기초했으며 후에 공인 본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루터의 번역은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손에 쥐려는 그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여러 세기 동안 독일어의 표준이

되었다.

종교 개혁의 뜨거운 불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성도들을 위해 담금질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는 교회 체제의 손아래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만 했다. 많은 성도들은 거룩한 성경기록 복사본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자기들의 부와 명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희생하였다. 그들의 수고와 고난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하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어 성경(1569-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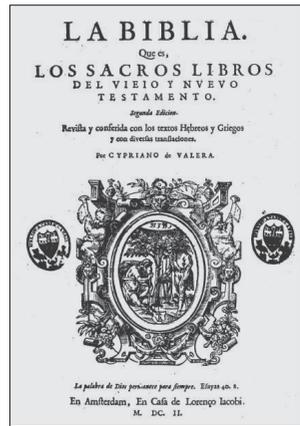
표준 스페인 성경은 레이나-발레라(Reina-Valera) 역본이다. 레이나-발레라 역본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킹제임스 성경으로 불렸다. 레이나-발레라 역본은 자기 국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두 사람 즉 레이나(Casidoro de Reina, 1520-1594)와 발레라(Cipriano de Valera, 1531-1602)가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성경도 그리스어 전통 본문에 기초를 두었다.

레이나는 성경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 위대한 사람 레이나는 그 작업을 위해 많은 희생을 들였고 결국 12년이나 걸려 완성하였다. 레이나는 세빌에서 태어나 카톨릭 수도사가 되었다. 레이나는 세빌의 산 이시드로 수도원에서 알비파(Albigenses)의 복음 선포로 영향을 받은 가르시아 수도원장의 강의를 들었다. 종교 개혁자들의 글을 접하고 왈덴시스들(Waldenses)의 구 라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레이나는 프로테스탄트로 회심하였다.

회심과 개종으로 인하여 레이나는 큰 박해를 받았다. 그는 스페인에서도 망해야만 했고 종교재판을 피하려고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했다.

1557년에 레이나는 열 명의 친구와 함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2년 뒤에 그는 영국 런던으로 가서 스페인 프로테스탄트 그룹의 목사가 되었다. 그 프로테스탄트 그룹은 종교재판을 피해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후에 레이나와 그의 아내는 영국에서의 박해 때문에 네덜란드의 앤트워프로 도망했으며 이 기간에 그는 스페인어 성경을 번역했다. 1569년에 레이나는 스페인어로 된 성경전서 2,600권을 출판했다. 그 스페인어 성경은 ‘곰 성경’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나무에서 꿀을 구하는 곰의 조각이 성경의 속표지에 인쇄되었기 때문이다.

카톨릭 종교재판소는 가능한 한 레이나 역본의 복사본을 많이 빼앗고 그것을 ‘성경 중의 가장 위험한 판’이라고 부르며 파괴했다. 한편 로마 카톨릭교회는 스페인어로 된 성경이나 다른 평범한 언어로 된 그 어떤 성경도 금지한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그 결과 레이나의 스페인어 역본 중 단지 일부만이 스페인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페인어 역본은 박해 때문에 스페인을 떠나야 했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여러 피난민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레이나-발레라 성경

성경 출판 이후 레이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교회를 조직했는데 그 교회는 열정과 복음주의 봉사 활동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레이나는 1594년 3월 16일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교회의 목사로 남아 있었다. 사실 스페인 그리스도인들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이나는 성경 번역자 이상이었다. 그는 믿음의 영웅이었다.

발레라는 1557년에 레이나와 함께 스페인에서 도망했던 그의 친구였다. 레이나처럼 발레라도 세빌에 있는 산이시드로 수도원에 수도사로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회심하였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발레라는 제네바로 가서 종교 개혁자인 칼빈의 제자가 되었

다. 발레라는 거리 설교자가 되었으며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다. 그 뒤 발레라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쳤다. 영국에 있는 동안 발레라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스페인어로 번역하였고, <로마 교황과 미사>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다. 그 책



레이나(왼쪽)와 발레라의 삽화

에서 발레라는 교황의 권위와 미사를 이교도 산물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영국에 있는 동안 발레라는 결혼했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대한 사역뿐만 아니라 벗사람들에 대한 사역도 시작했다.

1582년 발레라는 레이나의 작업을 교정하기 시작했다. 그의 개정판은 철저했지만 가능한 한 레이나의 본문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었다. 20년 동안 개정 작업을 한 끝에 1602년에 70세가 되었을 때에 발레라는 ‘레이나-발레라 역본’으로 알려지게 된 역본을 출판했다. 발레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역본을 만들도록 나에게 동기를 부여한 원인은 레이나에게 성경 번역의 동기를 부여한 원인과 같다. 레이나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기를 원했고 자기 민족에게 봉사하기를 원했다.

발레라는 자기의 성경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라고 믿었다. 스페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대해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스페인어 책 <카스티야어 성경 역본>(Veriones Castellanas De La Biblia)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저자들 즉 레이나와 발레라는 거룩한 성경기록의 깊숙한 곳을 파고들려고 했으며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번역하였다.

레이나처럼 발레라도 믿음의 영웅이었다. 위의 책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개인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과 또 스페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출간되는 것을 보려는 갈망으로 인해 “발레라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한다.

또한 그 책은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상을 주실 때 발레라는 구원자의 손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영어 성경 역사와 군주 제도

영어 성경의 역사는 정말로 풍성하다. 성경기록 그 자체처럼 영어 성경 역사는 추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를 언급한다. 영어 성경은 인간 표현력의 아름다움, 헌신에 대한 순수성 및 희생의 깊이를 보여 준다. 영어 성경의 역사는 또한 사람의 비열한 생각과 잘못된 길로 인도받은 종교적 경건함, 그리고 사람의 타락의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유를 얻기 위해 많은 이들이 땀과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

영어 성경 번역자들의 수고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영어 성경은 1382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는 것이 금지되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카톨릭교회의 공식 성경은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불가타)였으며 카톨릭교회는 영국의 군주정치에 두루 영향을 끼쳤다. 카톨릭교회는 사람들이 성경기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잘못 번역할 것이라고 믿었다. 카톨릭교회는 성경 금지령을 집행할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 출간된 성경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위클리프 성경이다.

우리가 영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먼저 영국 군주 제도의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 또한 틴데일로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의 역사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이 시기에 영국은 자체의 종교 개혁에 직면해 있었다.

튜더 왕가

아이들이 영국의 왕과 여왕을 기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명의 시인은 그 당시 왕들의 통치를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했다. 여기에는 튜더 왕가에 관한 많은 진실이 나타나 있다.

헨리 7세는 검소한 사람이었네.
헨리 8세는 많은 왕비를 거느렸지.
에드워드 6세가 개혁을 시작했지만
잔인한 여왕 메리는 그 계획을 방해했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계획들은 현명하고 사려 깊었네.

헨리 8세(1509-1547 통치)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이것은 성경 번역자 틴데일이 죽으면 서 남긴 열렬한 외침이었다. 그때 틴데일의 기도 대상인 왕은 바로 튜더 왕가(1485-1603)의 두 번째 왕인 헨리 8세였다. 틴데일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헨리 8세의 통치 기간에 몇몇 주요한 영어 역본들이 왕의 승인을 받아 출간되었고 영국 국교회가 탄생하였다.

헨리의 형인 아더는 웨일즈의 왕자였고 그의 아버지인 헨리 7세의 명백한 왕위 계승자였지만 왕위를 물려받기 전인 1502년에 사망했다. 죽기 전에 아더는 영국과 스페인 사이의 정치적 동맹을 위해 아라곤의 캐더린과 결혼했다. 헨리는 그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왕이 되었고 스페인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캐더린과 결혼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지만 캐더린이 헨리에게 사내아이를 낳아 주지 못하자 헨리는 캐더린과 이혼하려 하였다.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헨리 왕은 레위기 20장 21절을 인용했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니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

거벗음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으리라.”²⁾

그러나 그 당시 교황인 클레멘트 7세는 그 이혼을 인정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교황의 이런 의사는 헨리 왕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1529년 헨리는 런던에서 캐더린과 이혼하기 위한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그 재판이 왕의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헨리는 자기 나라의 최고 성직자인 추기경 월시를 퇴출시키고 대신 크롬웰(Thomas Cromwell)을 새로운 최고 성직자로 임명했다. 크롬웰은 영국이 로마 카톨릭교회와 갈라서고 캔터베리 대주교를 영국 국교회의 최고 관리로 임명할 것을 의회에 제안했다. 영국 의회는 1533년에 그 법을 제정할 것을 통과시켰고 대주교는 이혼을 인정했다. 그 이후 즉시 헨리는 볼레인(Anne Boleyn)과 결혼했다. 그렇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것으로 헨리의 결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헨리는 자신의 통치 기간에 무려 여섯 번이나 결혼했다. 헨리의 아내로는 캐더린, 볼레인, 세이모어, 앤, 하워드 그리고 파르 등이 있었다. 헨리의 세 자녀들이 후에 영국을 통치했는데 그들은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이다.

에드워드 6세(1547~1553 통치)

에드워드는 헨리와 그의 셋째 아내인 세이모어의 아들이었다. 에드워드가 영국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고작 9살이었다. 프로테스탄트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2) 튜더 가문이 왕가로서 등장한 것은 장미 전쟁 당시 헨리 5세 및 헨리 6세와 함께 랭커스터 가문 편에서 싸웠던 웨일스 사람 오언 튜더(1400경~1461) 때문이었다. 튜더 왕가에 속하는 잉글랜드 왕들은 헨리 7세(재위 기간 1485~1509)와 그의 아들인 헨리 8세(재위기간 1509~1547), 그리고 헨리 8세의 자식들인 에드워드 6세(재위기간 1547~1553)와 메리 1세(재위기간 1553~1558), 엘리자베스 1세(재위기간 1558~1603)가 있다. 이 시대에는 시민 계급의 눈부신 발전을 배경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르네상스 문화가 꽃을 피워 영국의 국제적 지위가 현저히 향상되었다. 엘리자베스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어 그의 사후에는 스튜어트 왕조로 바뀌었다. 이 왕조가 성취한 대사업은 영국 국교회 성립과 이에 따르는 수도원 해산이다. 이 왕조는 중상주의 정책을 취해 상공업을 장려하고 또 해외 발전을 지원하여 신향로 탐험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16세기 후반에는 강국 에스파냐에 맞서 1588년 아르마다(무적함대)를 쳐부수었다. 이 시기는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에 해당되며, 문화적 면에서도 발전된 시기였다(네이버 지식백과).

받았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영국 국교회에서 일어난 주요 개혁에 호의를 보였다. 그의 통치 기간에 캔터베리 대주교인 크랜머는 <평민들의 기도 책>을 편집했다. 이 책은 기도와 묵상에 필요한 성경 본문을 로마 카톨릭교회가 사용하던 라틴 벌게이트 대신 영어 역본으로 제공했다. 그렇지만 이 어린 왕은 1552년에 병에 걸려서 1553년 7월 6일에 요절하고 말았다.

메리 1세(1553-1558 통치)

“빛이 왔다가 갔다. 그리고 다시 왔다.” 이것은 <길 잃은 소년>이라는 제목의 책 즉 울프(Thomas Wolfe)가 기록한 반자서전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그림이 메리의 통치 기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메리는 자기의 통치 기간에 영국 전역에 어둠을 가져왔다. 1516년 2월 18일에 헨리와 캐더린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는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에드워드의 사망으로 인해 영국의 여왕이 되었다. 메리는 강력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영국을 다시 교황 제도 밑으로 넣으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이러한 열심은 잘못된 결과를 낳아서 그녀는 곧 ‘피의 메리’라는 악명 높은 이름을 얻게 되었다. 메리는 자신의 통치 기간의 마지막 3년 동안 무려 300명 이상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화형대에서 불살라 죽였다. 이들 중 한 명이 대주교인 크랜머(Thomas Cranmer)였다. 감옥에 있는 동안 크랜머는 자신의 믿음을 취소한다는 진술에 서명했다. 그러나 화형대에서 불태워지기 전에 크랜머는 그 취소 진술에 서명한 것을 후회한다는 표시로 가장 먼저 그 진술에 서명한 손을 불에 내놓았다. 그 당시 처형을 피한 많은 학자들이 제네바로 도피했으며 그들은 곧바로 소중한 제네바 성경을 바로 거기에서 만들었다.

엘리자베스 1세(1558-1603 통치)

엘리자베스의 통치로 다시 빛이 왔다. 메리의 통치가 유혈로 점철되었다면 엘리자베스의 통치는 영광으로 덮였다. 1533년 9월 7일에 태어난 엘리자베스는 헨리와 볼레인의 딸이었다. 우리가 현재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라고 부

르는 그 시대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기간이었다.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시기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 당시 영국의 발전은 굉장했다. 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와 스펜서 그리고 말로의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으며, 영어 자체가 훌륭하게 조율되어 이후에 나타날 소설가와 극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탐험에서도 업적이 많았다. 드레이크, 호킨스, 레일리 같은 뛰어난 항해사들이 있었고,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신세계 미국에 첫 번째 식민지



엘리자베스 1세

를 세웠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종교적인 진보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카톨릭교회와 칼빈주의 사이의 강한 충돌을 진정시킨 일, 영국 국교회의 재설립과 <평민들의 기도 책>을 재발행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비숍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이 성경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엘리자베스의 통치 기간에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스코틀랜드에서의 반란을 피해 1568년 영국으로 도피했다. 메리는 강력한 로마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결국 영국에서 일어난 몇몇 카톨릭교회 음모의 축이 되었다. 그들은 카톨릭교회의 교황직을 다시 설립하려 하였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체포하고 1587년에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 메리의 아들인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의 킹 제임스 6세였다.

엘리자베스의 사망으로 스코틀랜드의 킹 제임스 6세는 1603년 영국의 킹 제임스 1세가 되었다. 비록 자신의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제임스는 강력한 프로테스탄트 군주가 되어 번역자들에게 성경을 만들도록 허락했으며 그가 허락한 그 성경은 현재 일반적으로 그의 이름을 따라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으로 불리고 있다.

틴데일 성경(1525)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은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토머스 모어 경은 그를 ‘혐오스러운 이단’으로 고발했고 20세기 카톨릭 역사가인 그래함은 틴데일이 어리석게 반란을 일으킨 성직자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쇄기로 발행된 최초의 영어 성경을 제공하기 위해 틴데일을 사용하셨다. 틴데일은 또한 그 뒤에 나올 영어 역본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역사가 폭스(John Foxe)는 하나님의 성도인 틴데일에 대하여 카톨릭교회와는 매우 대조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폭스는 틴데일이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받은 초기 훈련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또 글로우체스터서에서 남작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틴데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폭스는 또한 틴데일이 남작과 남작의 가족을 방문하는 지방 사제들과 논쟁하기를 좋아한다는 평판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성경 논쟁을 좋아하는 틴데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폭스는 틴데일을 정중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틴데일은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낯선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주었으며 함께 있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였다.

틴데일을 사망으로 이끈 것은 바로 그의 개방성과 너그러움이었다. 벨기에의 앤트워프에 있는 동안 틴데일은 영국 사람 필립스와 친구가 되었다. 틴데일은 필립스에게 자신의 모든 작업과 번역본과 계획 및 개인적 신학을 보여 주었다. 틴데일은 필립스를 선한 사람이며 신자로 신뢰했다. 그러나 필립스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더더욱 신자도 아니었다. 옛날의 가룟 유다처럼 필립스는 틴데일을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간부들과 합의를 보았다. 그런 다음 공공 거리에서 간부들이 틴데일을 체포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틴데일의 ‘죄’는 일반 백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출판한 것이었다. 틴데일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으며 화형을 선고받았다. 화형대에 묶여서 자신의 불타는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틴데일은 영원한 세계로 안내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틴데일의 그 기도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



윌리엄 틴데일

고 간청한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영어 성경은 이 성도의 피 값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틴데일은 전통 본문(다수 본문 혹은 공인 본문)을 사용했으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 틴데일이 구약 성경의 몇몇 책들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조점은 신약 성경에 있었고 그의 신약 성경 역본은 1525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그렇지만 런던의 주교인 턴스탈은 1526년 10월에 런던에서 이 성경의 대부분을 빼앗아 불태웠다. 그 결

과 단지 처음 판 중에서 단 두 개만 현재까지 남아 있다. 틴데일은 1534년에 개정판을 출판하였고 1535년에 수정판을 출판했다.

우리는 여기서 턴스탈과 또 그가 틴데일의 신약 성경을 모아서 불태운 것에 관하여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려 한다. 틴데일의 모든 책을 회수하기 위해 턴스탈은 틴데일의 초기 성경들 중의 많은 양을 더 사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틴데일은, 결점이 있던 이 초기 판들을 사기 위해 턴스탈이 지불한 돈을 자신의 신약 성경 개정판 출간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턴스탈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도 혐오한 영어 역본의 번역과 출판을 도와준 셈이다.

커버데일 성경(1535)

틴데일의 마지막 기도는 커버데일(Miles Coverdale, 1488-1569)의 저술로 응답을 받았다. 커버데일은 헨리 8세의 둘째 아내인 볼레인과 친구가 되었다. 그 당시 헨리의 최고 성직자는 바로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크랜머였는데 그는 커버데일의 성경 번역 작업을 독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영국과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에 왕이 승인한 첫 번째 역본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셨다.

커버데일이 세 개의 초기 영어 성경 역본 출간에 힘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였다. 이 세 개의 초기 영어 역본은 커버데일 성경(1535)과 그레이트 성경(1539), 그리고 제네바 성경(1560)이다. 커버데일은 간접적으로 매튜 성경(1537)과 비숍 성경(1568)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들은 사실 커버데일 성경의 개정판이었다. 틴데일의 역본뿐만 아니라 이런 초기 역본들은 모두 전통 본문(공인 본문)에 기초를 두었으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번역을 하면서 이것들을 참조하였다. 이것에 대해 흠정역 성경의 역자들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선한 크리스천 독자여, 진실로 처음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쁜 것[역본]에서 좋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다른 것]을 반대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으뜸가는 좋은 것'(one principal good one)을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한 바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커버데일은 위클리프의 출생지인 요크셔에서 태어났다. 커버데일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카톨릭교회 어거스틴파의 탁발수도사가 되었다. 1528년에 루터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후에 커버데일은 사제 자리를 버렸으며 영국을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커버데일은 곧 틴데일의 제자가 되었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커버데일 성경에서 발견되듯이, 그의 구약 성경 초판은 그가 알지 못한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독일어와 라틴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커버데일의 신약 성경은 틴데일 신약 성경의 개정판이었다. 커버데일이 1535년 10월에 자신의 성경을 출판했을 때 그 성경은 영어로 출판된 최초의 성경전서가 되었다.

매튜 성경(1537)

토마스 매튜(Thomas Matthew)는 존 로저스(John Rogers, 1500-1555)의 필명이었다. 로저스는 152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런던에서 사

제가 되었다. 1534년에 로저스는 모험을 하는 상인들의 예배당 신부로서 벨기에의 앤트워프로 갔다. 그곳에서 로저스는 틴데일과 연합하였으며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였다. 그 뒤 로저스는 아내와 여덟 명의 아이들과 함께 비텐베르크로 가서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메리 여왕의 통치 기간에 로저스는 이단으로 고발당하였고 결국 복음을 위해 화형대에서 불태워졌다.

로저스의 작업은 틴데일과 커버데일 성경을 혼합한 것이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은 틴데일의 저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여호수아기부터 역대기하도 틴데일의 저술이라고 증언한다. 틴데일의 저술은 그의 죽음 바로 이전에 완성되었으며 로저스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나머지 구약 성경은 커버데일의 저술이다.³⁾

그레이트 성경(1539)

그레이트 성경(Great Bible)⁴⁾은 커버데일이 수행한 두 번째 중요한 저술이었다. 그레이트 성경은 그것의 크기가 매우 컸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그레이트 성경의 각 페이지는 너비가 23cm, 길이가 38cm이었고 책 두께도 매우 두꺼웠다. 이 성경은 헨리 8세의 완전한 승인으로 영국 국교회를 위해 만들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최초로 ‘권위를 부여받은 성경’(Authorized Version)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왕이 그레이트 성경을 승인했으며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크랜머가 이 성경을 감독했기 때문이다.⁵⁾ [역자 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역시 ‘권

3) 1539년에 매튜 성경의 한 판이 태버너(Richard Taverner)에 의해 출판되었기에 때때로 그것은 ‘태버너의 성경’이라고도 불린다.

4) 이것은 크랜머 성경으로도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대주교 크랜머(Thomas Cranmer)가 두 번째 판의 서문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레이트 성경은 또한 위처치(Whitchurch) 성경이라고도 불렸다. 이것은 왕실의 임명을 받은 두 명의 출판업자 그래프톤(Richard Grafton)과 그와 함께 일한 위처치(Edward Whitchurch)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성경을 ‘위처치 성경’이라고 불렀다.

5) 흥미롭게도 틴데일의 신약 성경을 불태운 런던의 주교 턴스탈은 그레이트 성경의 3판과 5판을 감독했다. 이제 헨리 8세 때문에 그 주교는 자신이 몇 년 전에 비난하고 불태웠던 그 성경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신약 성경인 그레이트 성경 번역을 뒷받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위를 부여받은 성경'이라는 뜻을 가진 'Authorized Version'으로 영미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공인 본문)에 기초한 이 역본은 라틴 벌게이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되고 변경되었다.

그레이트 성경은 대중에게는 결코 '위대한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출간된 지 30년 이내에 출판이 중지되었다.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대중은 평범한 영국 사람이 자신의 손에 넣고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열망했고 이 필요는 그 뒤에 나온 제네바 성경에 의해 채워졌다.

제네바 성경(1560)

1553년에 영국 여왕이 된 메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을 향해 맹렬히 타오르는 박해를 시작했다. 그레이트 성경은 교회에서 사라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녀의 종교적 광기를 피하려고 영국으로부터 피신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많은 사람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들의 피난처를 발견했다.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메리의 박해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그녀가 일으킨 박해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은 새로운 성경 번역에 착수하기 시작했고 1557년에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 그 일의 대부분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 칼빈의 자형인 위팅검이 노력한 결과였다. 길비와 샴프슨의 도움으로 위팅검은 즉시 신약 성경을 개정하였다. 구약 성경의 경우 그레이트 성경의 1550년판을 택하여 개정하였다. 그리고 1560년에 제네바 성경 전체가 완성되어 출판되었다.

초기 영어 성경들은 고딕체를 사용했지만 제네바 성경은 더 읽기 쉽게 만들어진 로마체를 사용하며 알맞은 크기로 만들어졌다. 또한 그 성경은 카톨릭 교회가 불편하게 여긴 주석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땅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온 것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9장 3절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메뚜기들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그리고 세속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성직자들,

수도사들, 탁발수도사들,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박사들, 학사들 그리고 석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모두 거짓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렸다.

앞의 역본들과는 달리 이 성경은 위원회의 저술이었지 한 사람의 저술이거나 한 사람의 저술에 대한 개정판이 아니었다. 셰익스피어가 자기 작품에서 제네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독자들은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틀림없이 그런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숍 성경(1568)

아마도 그 당시에 인쇄된 성경 중 가장 아름다운 성경은 비숍 성경(Bishop's Bible)이었을 것이다. 비숍 성경은 책 전체에 아름다운 조각들을 많이 가진 2절 판의 큰 책이다. 메리 여왕의 통치 기간에 박해와 성경 소지 금지령이 있었지만 메리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을 영국 국교회에 되돌려 주라고 명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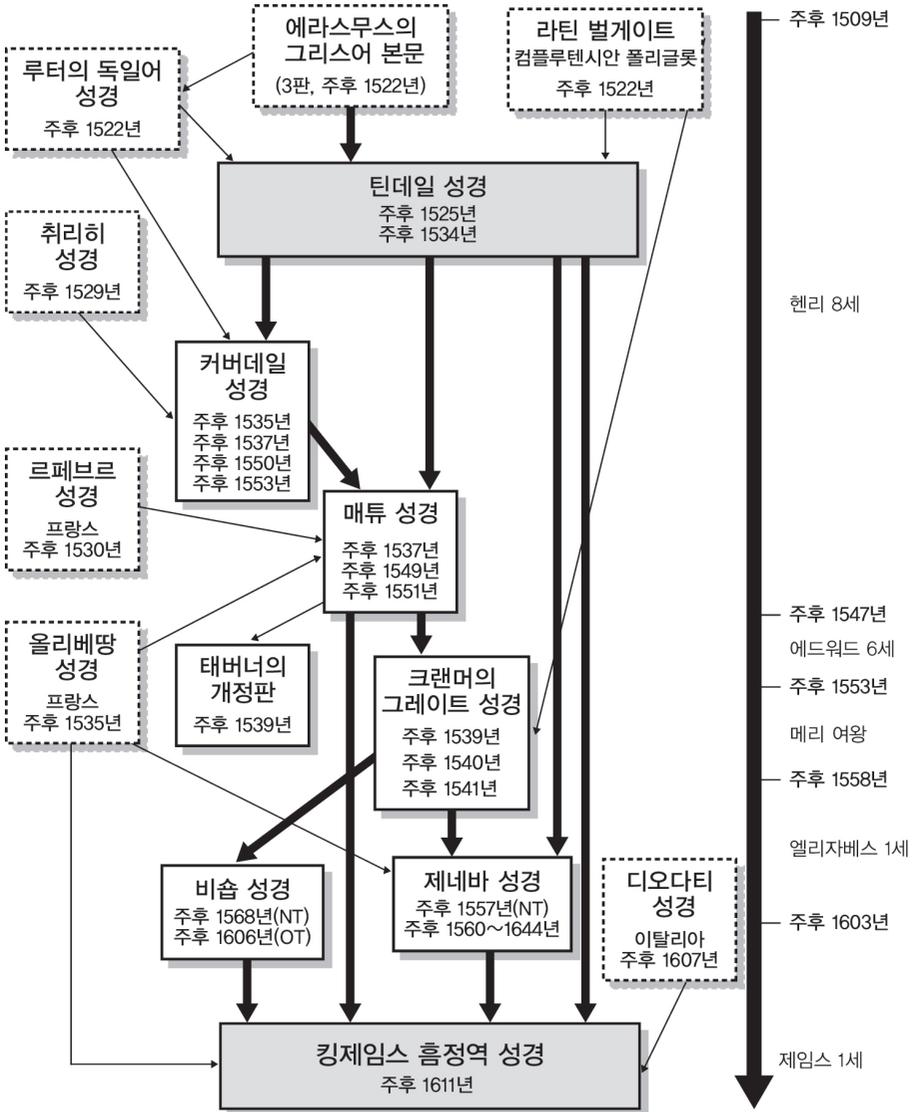
새로운 번역을 갈망했던 캔터베리의 대주교 파커는 개정을 위해 한 팀의 주교들에게 그레이트 성경의 몇 부분을 할당했다. 이 일은 1566년에 발생하였으며 1568년에 새로운 개정판이 완성되어 출판되었다.



비숍 성경

이 개정판은 제네바 성경보다 각주의 양이 적었으며 영국 교회의 성직자들과 회중에게 하나의 공인된 표준 성경을 주려는 목적으로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판은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다. 이 역본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권위에 의해 발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 번째로 '권위를 부여받은 성경'(Authorized Version)으로 여긴다.

영어 성경 변천 역사



킹제임스 성경: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든 것!'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 목표는 이전에 있던 역본들보다 더 나은 새로운 역본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흠정역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전 역본들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만 좋은 역본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다수의 좋은 역본들 중에서 하나의 가장 으뜸가는 좋은 것'을 만들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염원은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초기 영어 프로테스탄트 역본들에 기초를 둔 하나의 가장 으뜸가는 역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초기 영어 역본들에 기초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400년 동안 당당히 표준 영어 성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제정 배경

레이놀즈(John Rainolds)는 이제 막 영국의 왕위에 오른 제임스 1세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다. 청교도들 가운데서 많은 염려가 생겼고 지금이야말로 왕 앞에서 그런 염려들을 소개할 좋은 기회였다. 이날은 종교 개혁으로 생겨난 영국 국교회가 직면한 차가움만큼이나 춥고 습한 겨울날이었다. 친애하는 여왕 엘리자베스는 사망했고 이제 그녀 대신에 말이 어눌한 스코틀랜드 사람 제임스가 통치하게 되었다. 레이놀즈는 교회와 국가 안에서 일어난 염려들을 잘 알고 있었다. 과연 이 새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레이놀즈는 연설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현존하는 역본들이 원본에 부합되지 않으니 이제 폐하께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기쁘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혀가 짧은 발음으로 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표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번역이 나오기 원하는 사람들의 갈망을 자극하였다.

나는 영어로 잘 번역된 성경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을 고백하며 제네바 성경이 그중 가장 형편없다고 생각한다.¹⁾

이런 결정적인 몇 마디 말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어 역본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장소는 햄튼 코트였으며 그날은 1604년 1월 16일(월요일)이었다. 뱅크로프트(Bishop Richard Bancroft) 감독(주교)은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기 위해 54명의 학식 있는 사람들을 이해 7월 22일까지 지명하라는 통보를 왕으로부터 받았다. 로우스는 그들이 만든 작품을 ‘영어 산문의 가장 뛰어난 기념물’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것은 단순히 ‘성경’(The Holy Bible)이 되었다.

그런데 슬프게도 최근에 이 성경은 많은 공격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했다. 그들은 이 성경에 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이 소중한 역본을 의심하도록 만들었고 다각도로 그것을 반박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다툼을 논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흠정역 성경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이 성경을 깎아내리면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영국의 제임스 1세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의 킹제임스 1세(스코틀랜드의 킹제임스 6세, 1566-1625)가 직접 번역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제임스 왕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두 의견은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제임스는 성경을 번역

1) Gustavus S. Paine, *The Men Behind the King James Version* (1959; repr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킹제임스 성경의 원래 서문에서 번역자들이 제임스 왕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명명한 제네바 성경을 사용했음을 언급하는 것은 또한 흥미로운 일이다. 번역자들은 왕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도 않았고 제임스의 성격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역본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제임스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된 1611년에 영국의 왕이었으며 그 당시 왕의 권위로 번역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 외에는 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제임스 1세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외동아들이었다. 유명한 ‘제임스의 어머니 메리’는 엄격한 로마 카톨릭교도였지만 제임스는 확고한 프로테스탄트로 자라났다. 제임스는 학문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좋아했다. 영국의 작가인 빙햄은 제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7세에 이미 제임스는 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뛰어난 젊은이였다. 그는 타고난 지혜를 가진 영리한 왕으로 그리고 박식한 왕으로 인식되었다. 제임스는 어리석은 일도 하였지만 결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헨리 6세는 제임스를 ‘기독교계에서 가장 현명한 바보’라고 말하였다.³⁾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어리석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전1:25-29).

킹제임스 성경 번역

레이놀즈가 영어 성경을 개정할 것을 왕에게 제안한 그해 1월의 그 추운 날 제임스는 그의 제안에 기쁨으로 반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위한 목적으로 54명의 학자들을 지명하라고 벵크로프트 감독에게 지시했다. 킹제

2) Caroline Bingham, *The Making of a King* (Garden City, NY: Doubleday, 1969), 40.

3) Lady Antonia Fraser, *King James VI of Scotland: I of English* (New York: Alfred A. Knoph, Inc., 1974), 9.

임스 성경 번역에 참가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일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실제 번역자들의 수는 비밀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번역자들의 이름은 보존되었다. 이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와 옥스퍼드 그리고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또 각 그룹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한 부분은 구약 성경을 작업했고 다른 부분은 신약 성경을 작업했다. 단지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룹만 외경을 작업할 부가적인 팀을 소유했다.

사실 번역자들은 위대한 학자들이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출간 뒤에 언어 연구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다. 그들은 성경 언어를 배워서 자기들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자신들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에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종종 모국어인 영어가 서툰 경우도 있었다. 페인(Gustavus S. Paine)은 왕의 번역자들이 학문적인 일을 하는 데 뛰어난 저술가들은 아니었지만 뛰어난 글을 쓸 수 있는 매우 뛰어난 학자들이었다고 언급했다. 평범한 문체를 보인 그들의 다른 현존하는 작품들을 통해 판단해 보면, 후에 흠정역 성경으로 이름이 남은 그들의 글은 그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페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비록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모든 단어의 영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도 이 역자들이 심오한 마음가짐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분명히 결론 내려야만 한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단어들로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서툰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독특한 협력과 균형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추며 또 그 작업에 자기를 맞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여러 부분이 합쳐진 것과 같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큰 전체적인 유기체로 활동하였다.⁴⁾

4) Gustavus S. Paine, 동일 문서, p. 173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자들을 다양하게 모아 그룹으로 구성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 번역자는 자기에 할당된 부분을 마치면 첫째 위원회와 만날 수 있었고 거기서 자기가 번역한 작품을 읽을 수 있었다. 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의 언어와 초기 영어 역본들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포함한 외국 번역본들과 같은 다양한 자료의 본문들과 대조하였다. 만일 번역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통과되었으나 의견 차이가 있다면 위원회는 더 진행하기 전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런 다음 그 위원회는 같은 방식으로 그 원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발견한 것들을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만약 이 위원회들이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면 차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12명으로 구성된 셋째 위원회에 넘겨졌다. 총회로 알려진 이 위원회는 두 명의 최종 편집자인 빌슨 주교와 스미스 박사에게 그 작업을 넘겨주기 전에 이전 위원회가 산출한 것들을 살펴보고 완성된 번역본에 모두 동의하였다.⁵⁾

진정한 보상

어떤 작가들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자기들의 노력에 대해 왕실의 인정을 받거나 출세하기 위해서 혹은 왕의 사상에 너무 매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동기가 부족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 왕실이 그들에게 번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비난한다. 이런 비난 중 어떤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 어떤 번역자도 왕에게 총애를 받거나 승진하기 위해 번역 위원회에 있으려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번역자들 중의 한 사람인 발로우는 영국 왕위를 확실하게 지지했던 사람이었고 제임스 왕이 크게 그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영국 사람들은 발로우와 마찬가지로 제네바 성경에 반대한 제임스 1세를 포함한 자기들의 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5) 킹제임스 번역 위원회 명단은 83페이지 조직도 참조.

제임스 1세는 제네바 성경의 각주가 백성이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반대했다.

킹제임스 성경 출간 비용을 누가 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이 아니라 교회가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교회의 기금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번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기금을 모았지만 일이 끝난 뒤에 번역자들은 어떤 재정적 보상도 받지 않았다.⁶⁾ 몇몇 번역자들은 역본이 완성된 뒤 교회에서 승진했지만 이것은 오로지 그들의 능력 때문이었다. 번역자들의 가장 큰 보상은 그들의 노동의 열매인 킹제임스 성경 그 자체였다. 그들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 모두의 기쁨 중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의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채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부를 능가하는 ‘측정할 수 없는 보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열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스스로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영원한 행복으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왕실 특권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또 다른 신화는 킹제임스 성경이 왕실의 독점적인 인쇄 특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왕가의 인쇄 특권 즉 ‘Cum Privilegio’로 알려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킹제임스 성경이 존재한 첫 100년 동안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왕가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과 왕실의 인쇄업자가 바커(Robert Barker)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1711년 이전에 이미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왕실의 역사학자 도레(John Dore)

6) John R. Dore, *Old Bibles: An Account of the Early Versions of the English Bible*, 2nd ed. (London: Eyre and Spottiswoode, 1888), 325.

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642년에 킹제임스 성경의 2절 판이 암스테르담에서 드러케리제의 한 지역에 거주하던 브로에르즈에 의해 출판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의 주석들이 생략되었고 '반바지 성경'(Breeches Bible)으로 알려진 제네바 성경의 논쟁과 설명들이 필요한 부분에 삽입되었다.⁷⁾

루이스는 또한 킹제임스 성경이 첫 100년 동안 왕실의 승인 없이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고 언급했다. 많은 킹제임스 성경 판들이 1642, 1672, 1683년, 그리고 1708년에 영국 밖에서 출판되었고 1649년에는 영국에서도 출판되었다.⁸⁾

도레는 1628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한 나라로 스코틀랜드를 지적한다.⁹⁾ 그는 또한 킹제임스 성경이 왕실의 특권 없이 영국에서 출판되었다고 말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특별 면제를 받았고 그래서 그 두 대학교는 왕실의 특권 행사 없이 성경을 출판할 수 있었다.

대학들이 항상 성경을 출판할 권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은 1589년부터 그 권리를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1628년에 12절 판 성경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인쇄기를 통해 그 대학에서 출판되었고 다음 해에 토마스 와 요한 버크는 처음으로 케임브리지 성경을 발행했다. 옥스퍼드 대학은 처음으로 4절 판 크기가 발행된 1675년까지 성경을 인쇄하지 못했다. [성경의] 철자는 옥스퍼드 대학 학장인 펠(Dr. John Fell)이 고쳤다.¹⁰⁾

다시 한 번 이런 증거들은 어떤 이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잘 보여 준다.

7) John R. Dore, 동일 문서, p. 345.

8) Jack P. Lewis, *The English Bible From KJV to NIV*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29.

9) John R. Dore, 동일 문서, pp. 338-339.

10) John R. Dore, 동일 문서, pp. 339, 346.

외경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반대는 외경과 관련이 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결코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기록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외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뒹뚱으로써 이것이 교리를 가르치는 정경이 아니라 단지 역사적인 기록과 덕성의 함양을 위해서만 가치가 있는 책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관행은 다른 초기 영어 역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제네바 성경의 외경 서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본다.

구약 성경 대언자들의 글 이후에, 신약 성경 이전에 나오는 이 책들은 외경이라 불린다. 이 책들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읽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모두가 합의한 책들이 아니다. 또한 외경은 기독교의 어떤 점을 증명하기 위해 쓸 수 없는 책이다. 외경은 정경이라 불리는 성경기록의 동의를 얻어 성경기록을 확증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독실한 사람들한테서 나온 이 책들은 역사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경건한 습관의 지침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읽도록 수용된 책들이다. 외경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향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밝히 보여 주며 또한 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메시아의 소망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는 선생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음을 밝히 보여 준다. 또한 외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보낸 그러한 재난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증언한다. 참으로 그분은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였고 그들의 원수들이 멸망을 받고 자신의 자녀들이 시련을 겪도록 만드셨다.

제네바 성경 번역자들과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역시 거룩한 성경기록을 존중하듯이 외경을 존중하지 않았다. 번역자들이 상대적으로 외경을 경시한 것은 제네바 성경에서처럼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1611년도에 발행된 초판에서 번역자들이 보여 준 방법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카톨릭교회의 성경들처럼 외경을 구약 성경 안에 넣지 않고 대신 구약 성경

과 신약 성경 사이에 넣었으며, 표제지에 전혀 외경을 언급하지 않았다. 표제지는 간단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포함하는 거룩한 성경’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목차에도 그것들은 단지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이라 기록되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아예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떼어 놓았다. 게다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정교한 조각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외경은 그렇지 않다.

정경에는 각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윗부분에 난외 표제로 있었지만 - 예를 들어 창세기, ‘인간의 창조’, ‘첫 번째 안식일’, ‘결혼 관습’ 등 - 외경에는 처음 페이지부터 끝까지 단지 ‘외경’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더 나아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자기들이 외경에서 했던 방식으로 정경의 성경책들을 헐뜯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외경 에스드라 전서(1 Esdras) 5장 5절을 보면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말 즉 ‘이곳은 부패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난외 공간에 기록되어 있다. 에스더기의 경우 카톨릭교회의 것은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열 장 외에 몇 장이 더 첨가되어 있다(이것은 그리스어로 첨가된 외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외경 부분에서 이 장들의 제목에는 “에스더기의 부가적인 이 장들은 히브리어나 갈대아어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개정판과 인쇄 오류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판을 사용하느냐고 묻는 것인데 이런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이 실제로 많이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만약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추후에 부가적으로 그것을 개정하는 일이 정당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지만 진실은 그 성경의 본문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판은 철자나 구두점과 같은 본문상의 초기 인쇄 오류의 수정이나 현대화 작업만을 다루며 실제 구절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네 번의 주요 개정이 있었고 그 개정들은 1629년, 1638년,

1762년 그리고 1769년에 이루어졌다. 1762년의 개정 작업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파리(Dr. F. S. Paris)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개정 작업의 대부분은 현재 인쇄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

파리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이탤릭체 단어들 즉 원어에는 있지 않지만 번역에서 어쩔 수 없이 추가된 단어들의 사용 빈도를 높였으며 대부분의 철자를 현대화하였다. 파리의 개정판은 또한 몇몇 난외 참고 문헌을 덧붙였다. 1769년판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블레이니(Dr. Benjamin Blayney)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개정판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인쇄 오류, 철자, 확장된 난외 기록과 도입부의 기록들에서 몇몇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판은 현재 인쇄되는 대부분의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

철자의 차이점들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1612년도와 킹제임스 성경과 현재의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쉽게 볼 수 있다. 비록 철자는 바뀌었지만 본문은 여전히 같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1612년판 킹제임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

1 Paul an Apostle not of men, neithe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eised him from the dead, 2 And all the brethren which are with me, vnto the Churches of Galatia: 3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our Lord Iesus Christ, 4 Who gaue himself for our sins, that he might deliuer vs from this present euil worl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 our Father. 5 To whom be glory for euer and euer. Amen.

현대판 킹제임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

1 Paul, an apostle, (not of men, neither by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2 And all the brethren which are with me, unto the churches of Galatia: 3 Grace be to you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from our Lord Jesus Christ, 4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hat he might deliver us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nd our Father: 5 To whom be glory for ever and ever. Amen.

그 외의 다른 개정판들은 인쇄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 때때로 인쇄공들은 식자 작업을 하면서 한 단어를 삭제하거나 단어들을 두 번 반복해서 넣었다. 이런 것들은 최초의 번역자들이 제공했던 본문대로 만들기 위해 수정되었다.¹¹⁾ 예를 들어 1632년판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말다’에 해당하는 ‘not’을 빼버렸고 따라서 ‘사악한 성경’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전체 본문을 컴퓨터 작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인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결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들이 무효라거나 킹제임스 성경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다수의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들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전달 오류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필사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본의 독본을 찾을 수 있으므로 성경 보존의 교리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¹²⁾ 이런 개정 작업은 때때로 인쇄공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과 킹제임스 성경의 네 가지 주요한 개정판들이 그러한 실수들을 수정하려고 노력했음을 의미한다.

11) 인쇄상의 명백한 오류들을 수정한 본문 개정의 어떤 예들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창세기 19장 21절의 ‘this thing’은 ‘this thing also’로 수정되었다. 신명기 4장 25절의 ‘shalt have remained’는 ‘ye shalt have remained’로 수정되었다. 나훔 3장 17절의 ‘The crowned’는 ‘Thy crowned’로 수정되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의 ‘which was a Jew’는 ‘which was a Jewess’로 수정되었다. 유다서 25절의 ‘now and ever’는 ‘both now and ever’로 수정되었다. 위의 예들의 경우, 번역자들이 현대판의 바른 본문을 주었으나 인쇄공들이 식자 작업에서 이것들을 잘못 넣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역대기상 5장 2절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역대기상 5장 2절에서 1611년판은 ‘chief rulers’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판들은 ‘chief ruler’로 되어 있다. 이 구절의 난외주를 보면 ‘chief ruler’가 ‘prince’를 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번역자들은 분명히 단수의 ‘chief ruler’라고 기록하였지만 인쇄공들이 실수로 ‘chief rulers’로 복수로 만들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2) 중요한 점은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에 포함된 인쇄공들의 실수들에 관한 한 불확실한 본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분명하게 알려졌고 나중 판에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현존하는 사본들에 존재하는 ‘필사자들이 만든 오류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것이 원래 본문이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본문 비평학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은 인쇄 오류들과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한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인쇄공들이 까닭 없이 나를 뺨박하였으나”(시119:161). 이것은 1702년도 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예이다. 원래는 ‘통치자들’(princes)이 되어야 했지만 인쇄공들은 그것을 ‘인쇄공들(printers)’이라고 식자 작업을 했던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중대한 오해들 중 하나는 시간을 두고 인쇄공들이 만든 다양한 오류들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의 인쇄 실수를 수정하는 것이 그것의 본문을 바꾸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너무 고귀하게 생각하여서 인쇄공들이 오류를 범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인쇄공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여러 판에서 많은 오류를 만들었다.

킹제임스 성경 초판은 룯기 3장 15절에서 발생한 인쇄 오류 때문에 ‘He 성경’이라고 종종 불린다. 즉 ‘she’를 ‘he’로 잘못 인쇄하여 ‘그녀가 도시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가 도시로 들어갔다’가 되었다. 그래서 개정판은 때때로 ‘She 성경’이라고 한다.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처음 몇십 년 동안 몇 판에 발생한 인쇄 오류로 인해 킬번(William Kilburne)은 1659년에 ‘최근에 출간된 몇몇 판의 위험한 실수들이 건전하고 진실한 종교에 부패와 스캔들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1611년판에 나오는 다른 인쇄 오류에는 ‘hooks’ 대신 ‘hoopes’를 사용한 출애굽기 38장 11절과 ‘the plague be’ 대신 ‘the plaine be’를 사용한 레위기 13장 56절 등이 포함된다. 에스라서 3장 5절에서는 ‘offered’가 두 번 반복되었다. 미가서 4장의 제목에는 ‘미가’라는 적합한 이름 대신 ‘요엘’이라는 이름이 적혔다. 에스겔서 6장 8절에서는 ‘ye’ 대신에 ‘he’가 사용되었다. 에스겔서 24장 7절에서 본문은 ‘She poured it not upon the ground’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인쇄공들은 ‘not’을 삭제했다. 외경 에스드라 전서 4장의 난외 표제는 ‘Apocrypha’ 대신 ‘Anocrypha’라고 되어 있으며 이런 난외 표제에는 장 번호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의 인쇄 조건과 인쇄의 양식을 이해하면 왜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1611년판에서 인쇄 오류가 발생한 5개 구절을

보여 준다. 우리가 철자법과 습자법에서의 차이점들을 교정하려 한다면 이런 인쇄 실수들을 발견하기 위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창세기 10장 16절 (1611년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And the Jebusite, and the Amorite(‘Emorite’로 되어 있음), and the Girgasite

출애굽기 14장 10절 (1611년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And when Pharaoh drew nigh, the children of Israel lifted up their eyes, and, behold, the Egyptians marched after them; and they were sore afraid: and the children of Israel lifted up their eyes, and, behold, the Egyptians marched after them; and they were sore afraid: (밑줄 친 부분이 반복되어 있음)

레위기 17장 14절 (1611년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For it is the life of all flesh; the blood of it is for the life thereof: therefore I said unto the children of Israel, Ye shall not eat (not이 빠짐) the blood of no manner of flesh:

예레미야 22장 3절 (1611년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Thus saith the LORD; Execute ye judgment and righteousness, and deliver the spoiler (spoiled로 되어 있음) out of the hand of the oppressor:

마태복음 16장 25절 (1611년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For whos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and whosoever will lose his his (his가 반복됨) life for my sake shall find it.

다른 판들도 유사한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다. 1653년에 나온 판은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줄을 너희가 알

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했다. [역자 주: 여기서는 ‘not’이 빠졌음.] 1801년판의 유다서 16절은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murmurers)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다”에서 ‘murmurers’를 ‘살인자’를 뜻하는 ‘murderers’로 바꿔버렸다. 1806년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21절에 ‘charge’ 대신 ‘discharge’가 사용되었고 1810년판에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wife’가 ‘life’로 바뀌었다. 오류들이 인쇄에서 때때로 발생하지만 그것들은 이후 판들에서 발견되어 모두 수정되었다.

몇몇 현대판에서 발견되는 인쇄 오류의 예는 예레미야 34장 16절에 나온다. 여기에는 케임브리지판과 옥스퍼드판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이 있다.

케임브리지판 (예레미야 34장 16절)

But ye turned and polluted my name, and caused every man his servant, and every man his handmaid, whom ye had set at liberty at their pleasure, to return, and brought them into subjection, to be unto you for servants and for handmaids.

옥스퍼드판 (예레미야 34장 16절)

But ye turned and polluted my name, and caused every man his servant, and every man his handmaid, whom he had set at liberty at their pleasure, to return, and brought them into subjection, to be unto you for servants and for handmaids.

정확한 본문은 ‘whom ye’인가, ‘whom he’인가? 결국 케임브리지판을 따르냐 혹은 옥스퍼드판을 따르냐에 따라 현재 출간되는 킹제임스 성경의 다양한 판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 이런 문제는 성경의 보존이나 역본으로서의 킹제임스 성경의 효용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인쇄 오류를 수정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뿐이다. 한편 1611년의 원판은

‘whome yee had set at libertie at their pleasure.’라고 기록하고 있다. 도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옥스퍼드 대학은 최초로 4절 판 크기가 발행된 1675년까지 성경을 인쇄하지 못했다. [성경의] 철자는 옥스퍼드 대학 학장인 펠(Dr. John Fell)이 고쳤다.¹³⁾

1611년판에 동의한 케임브리지 대학은 토마스 와 요한 버크를 통해 1629년에 처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 오류가 1675년의 옥스퍼드판을 책임진 펠(Dr. John Fell)의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류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과 이 오류가 옥스퍼드에서 출판된 판들과 옥스퍼드판에 기초를 둔 다른 판들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진술할 수 있다. 이런 오류는 정확한 본문이 원판과 케임브리지판과 1611년의 원판이나 케임브리지판에 기초를 둔 현대 역본들에서 발견되기에 성경 보존의 쟁점과 상관이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단지 인쇄 오류의 수정과 구두법과 이탤릭체에서의 변화 그리고 철자법과 습자법에 의한 변화만 있었다. 이것은 1852년에 출판된 ‘역본들 위원회가 관리자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성경공회에 의해 입증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사실 킹제임스 성경의 네 번째 주요 개정(실제로는 인쇄 오류들의 정정)이 생긴 이후 만들어졌다.

또한 부가적인 보고서가 미국성경공회에 의해 1858년에 발행되었는데 그것의 제목은 ‘역본들 위원회가 미국성경공회의 관리자들에게 보내는 보고서’였다. 그 보고서들은 “번역자들이 남긴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 그것의 본문에 관한 한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했다.¹⁴⁾ 도레 또한 이것을 증명한다. 1888년에 왕실 인쇄소에 의해 출판된 연구에서 그는 “엄청난 가격의 진주인 ‘1611년의 영어 성경’은 변경되지 않은 채로 그처

13) John R. Dore, 동일 문서, p. 346.

14) Committee on Versions to the Board of Managers, 1852 ed., 7.

럼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일련의 역본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진술했다.¹⁵⁾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과 지속성

제임스는 위대한 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다른 군주가 한 적이 없는 일을 수행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4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전집을 빼고 어떤 작품도 영어 문학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같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매우 풍부한 영어 표현을 이용한 셰익스피어와 달리 흠정역 성경의 어휘는 단순히 8,000개의 단어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적은 수의 단어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정역 성경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서 매우 가치 있는 부분이 되었다. 베이즈는 자신의 책 <살아 있는 문학으로 읽히기 위해 고안된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셰익스피어와 호머 그리고 단테와 함께 문학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다고 정확하게 언급했다.¹⁶⁾ 그렇지만 이런 위대한 작품들과는 달리 킹제임스 성경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만든 것이다. 더욱이 영어 성경 중에서 이와 같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문학 학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밀턴, 포프, 바이런, 키츠, 테니슨, 쇼, 윌트 맨, 디킨슨 그리고 트웨인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번 연이 지은 기독교 고전 명작 <천로역정>은 그대에 여러 가지 다른 초기 영어 역본들을 쓸 수 있었음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다.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의 리듬과 운율은 지금까지 존재한 다른 영어 역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 준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흠정역 성경은 영광스럽게 진리를

15) John R. Dore, 동일 문서, p. iii.

16) Ernest Sutherland Bates, *The Bible: Designed to be Read as Living Literatu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36), 1236.

제시하면서 무수한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단지 문학적인 명작만이 아니다. 원본 언어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놀랍다. 적합한 번역이란 한 언어의 단어들을 또 다른 언어의 단어들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원본의 뜻과 감각을 유지해야만 한다. 의심할 바 없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러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하몬드 교수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원본의 구문적인 세부 사항들을 재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정확하게 언급했다.¹⁷⁾ 하몬드는 “대부분의 경우에 흠정역 성경은 독자들이 원본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성경에는 현대 역본들의 편협한 해석적 편파성이 없다.”고 진술했다.¹⁸⁾

본문 학자이며 문학 학자인 프라이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형식의 아름다움과 본질적으로 원본에 충실한 특징으로 인해 히브리 시의 번역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하몬드의 의견에 동의한다.¹⁹⁾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표현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경 언어들을 나타내는 데도 매우 뛰어나다.²⁰⁾

17) Gerald Hammond, “English Translations Of The Bible,”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eds. Robert Alter and Frand Kermod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656.

18) Gerald Hammond, *동일 문서*, 664.

19) Roland Mushat Frye, “The Bible in English,” *The Bible in its Literary Milieu*, eds. John Maier and Vincent Tollers, (Grand Rapids: Eerdmans, 1979), 255.

20) 다음은 킹제임스 성경이 그리스 독자가 느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 곳의 한 예이다. 그리스어에 서는 어떤 그리스어 단어의 끝부분을 통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에서도 발견된다. ‘thou’, ‘thee’, ‘thy’, ‘thine’이라는 단어들은 모두 단수를 나타내므로 독자들은 ‘i’로 시작하는 2인칭 대명사가 단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ye’, ‘you’, ‘your’라는 단어들은 모두 복수를 나타내므로 독자들은 ‘y’로 시작하는 2인칭 대명사가 복수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2장 31-32절은 한 좋은 예를 제공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집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눅 22:31-32). 그리스어 독자는 31절에 사용된 단어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총괄적으로 제자들을 지칭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것이다. 반면에 3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단

킹제임스 성경은 또한 우리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영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영국의 언어와 문화는 1611년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다. 신세계에서 흠정역 성경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던 제네바 성경을 곧바로 대체했으며 1637년 초에 킹제임스 성경은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 곳곳에서 가장 선호를 받는 역본이 되었다.²¹⁾ 미국의 서부를 개척한 개척자들이 겨간 유일한 책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었다.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많은 경우 정착자들과 노예들 모두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 유일한 자료가 되었다.

역사가들인 윌 두란트와 아리엘 두란트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 이전에 영국 곳곳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를 줄이는 데 킹제임스 성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성경의 전파는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 가속되었으며 영국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반유대주의 정책을 수정했다.”고 기록했다.²²⁾ 그들의 말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하려는 것을 통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갈3:28).

확실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영국 언어와 문화라는 왕관에서 가장 세련

수를 써서 베드로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에서는 ‘you’, ‘thy’, ‘thee’ 같은 단어들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하지만 이런 모든 단어가 포괄적으로 ‘you’로 바뀔 때는 그런 의미가 손실된다. 따라서 독자는 ‘you’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할 수 없다. [역자 주: 우리말에서도 단수와 복수가 구분되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현대 영어 역본들은 단수와 복수 구분 없이 모두 ‘you’를 사용하므로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없다. 따라서 ‘thou’, ‘thee’, ‘thy’, ‘thine’는 단순히 고어가 아니고 성경의 영어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들이 없이는 단복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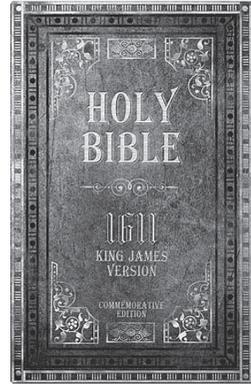
21) Nathan O. Hatch and Mark A. Noll, eds., *The Bible in America: Essays in Cultur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27–33.

22) Will and Ariel Durrant, *The Age Of Louis XIV*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3), 461.

된 보석으로 남아 있다.

과거 4세기 동안 흠정역 성경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군림하면서 교파적인 차이점들을 벗어나 모든 교파의 표준 영어 성경으로 사용되었다. 현대 역본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영어 성경을 정의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

신국제역(NIV)이 과거 몇 년 동안 기독교 서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며 가장 잘 팔리는 역본이 되었음에도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이런 서점들에서 들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커버

째로 잘 팔리고 있고 역본 선호도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 성경 번역에 관한 1995년의 여론 조사는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성경 역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들 중 약 3분의 2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자기들의 주요 역본이라고 말했음을 보여 주었다.²³⁾

게다가 1997년에 바나 연구 그룹(Barna Research Group)은 5대 1의 비율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신국제역(NIV)보다 더 많이 읽는다고 입증하였다.²⁴⁾ 인터넷을 통한 다른 여론 조사는 킹제임스 성경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어 역본임을 보여 주었다.²⁵⁾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가장 잘 팔리는 역본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많이 출간된 성경으로 남아 있으며 미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역본으로 존재한다.

23) As cited by Jennifer Lowe, "Buy the Book," Dayton Daily News (Dayton Ohio, Sept. 16, 1995), 7C.

24) Barna Research Group, Ltd. (www.barna.org) 1997.

25) Goshen Net(<http://www.goshen.net>)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선호되는 역본임을 보여주는 온라인 여론 조사를 했다. 그들의 여론 조사 자료는 킹제임스 성경이 49%, NIV가 24%, NKJV가 14%, NASB가 5%, ASV가 2% 그리고 RSV와 NRSV가 각각 1%의 선호도를 보임을 알려준다. 기타로 표시된 범주는 4%였다.



제4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만은 이들이 왜 성경 신자들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성경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주제들에 관해 논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명쾌하고 단순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¹⁾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이 말씀에서 지계표(landmark)란 측량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통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물건을 뜻한다. 지계표 즉 랜드마크는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대형 건물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시를 뜻하기도 하며 항해자를 위해 사용되는 육상

1)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겹치는 내용이 있으나 각 부를 별도로 활용하는 독자를 위해 그대로 둠

경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측량에서 랜드마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마음대로 랜드마크를 치우거나 변경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불법이다.

기독교는 그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가지 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전서(The Holy Bible)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기초가 성경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라는 이 랜드마크가 확실한지 혹은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늘 신경 써야 한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며 성경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수용해 온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이것들에서 번역된 역본들만을 사용해 왔다. 이런 본문은 과거의 거의 모든 교회가 받아들였기에 보통 수용 본문(Received Text)이라 불리기도 하며 또 공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의 공인(共認) 본문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성경 신자들은 자기들 시대에 존재하던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을 모았는데 이것들의 99%는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이처럼 절대다수를 이루는 다수 사본들이 바로 이 공인 본문의 기초가 되었다.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제임스 1세)은 햄튼 코트 회의에서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등 기존 성경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통 사람들의 손에 공통 성경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 결과 1611년 5월 2일에 태어난 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제임스 왕은 영국 교회에서 50여 명의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히브리어 학자들을 선정하여 번역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사도 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해 온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과 거기서 이미 번역된 여러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들이 만들어 낸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반포된 이후로 지난 400년 동

안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며 가장 널리 보급된 보편적 성경이 되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전에도 공인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된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이 존재하였고 또 성경 출간 빈도도 높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후로는 그 밖의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 자체가 모두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성경은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라는 확신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광고나 홍보도 없이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위적 성경’(Authorized Version)으로 온 세상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며 뻗어 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오대양 육대주를 복음화시켰으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의 근간이 되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교회사, 부록 1, 4쪽, 1989).

사실 현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성경 전쟁의 실체는 다수 본문만을 수용해 온 기독교와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온 천주교의 대립이다.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대적자 마귀가 있다면 마귀는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서고 쓰러짐은 성경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보존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려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세상의 창건 이후로 늘 존재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로 신약 성경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면서 그에 비례해 말씀을 변경하려는 마귀의 시도 또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마귀의 공략은 주로 역사 속에서 천주교회로 알려진 바빌론 음녀 교회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사도 시대 이후로 마귀는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의 부패한 서기관들을 이용하여 행위 구원과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는 천주교 교리에 적합하도록 부단히 성경 본문을 변경해 왔다. 주후 500년경부터 약 천 년 동안 왕권마저 능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승에 의해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무엇보다도 그가 공인 본문을 근거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힘입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교황의 천주교를 초토화시켰다. 1534년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해 천주교를 몰아내고 영국 국교회를 국가의 종교로 세움에 따라 천주교는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1588년에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천주교 국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 의해 대패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로 영국은 온 세상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면 천주교의 무지와 미신과 맹신이 다 드러나므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을 금서(禁書)로 만들어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라스무스, 틴데일,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들려주셨다.

특별히 성경은 1450년경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해 건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유럽에 보급되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에 순응하며 목숨을 내걸고 일을 수행한 신실한 성

도들 노력의 금자탑이요 결정체가 바로 1611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다.

종교 개혁에 이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 성경, 올리베탕의 프랑스어 성경, 레이나/발레라의 스페인어 성경,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등이 유럽 대부분 국가의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천주교 안에 팽배한 미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로마 카톨릭교회는 거의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이에 천주교회는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1540년에 로올라(I. Loyola)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회(Jesuit)를 형성하여 반(反)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지난 500년 동안 예수회는 유럽에서 '예수 없는 예수회'라 불릴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심지어 세속 역사가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기도 하였다. 또한 천주교회는 성경 본문에 관하여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는 도구를 개발하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하여 프로테스



개신교 말살을 위해 예수회를 창설한 로올라

탄트 신학교에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잘 알다시피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성경을 손으로 써서 사본들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필사된 사본들을 만드는 작업에서는 필사자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실수가 나올 수 있었다. 본문을 확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현존하는 사본들을 살펴보고 그런 사본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한 뒤 잘못 표기된 단어나 첨가 혹은 삭제된 단어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 정확한 독본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에라스무스나 베자 혹은 스테파누스와 엘제비어 형제들 같은 이들은 선한 의도로 다수 사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채 이런 작업을 수행하여 천주교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1500년 동안 공통적으로 수용한 공인 본문을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사본들을 비교하여 정확한 본문을 만드는 기초 작업은 선한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본문 확정 작업이 직업 주의에 오염된 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이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본문 비평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 속에서 소실된 성경 본문을 자기들의 힘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다. 본문 비평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본문을 섭리으로써 보존해 주심을 믿지 않으며, 본인들의 노력으로 인간들의 창작물에 불과한 다른 고대 문학 작품을 비평하듯이 성경 본문을 비평하려 한다. 다음은 한국의 유명 본문 비평 학자의 말이다.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우리는 성서를 우상화하지 않는다. 성서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성서가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텍스트이다. 성서는 가지고 다니면서 만들어 모셔야 할 책이 아니라, 읽고, 명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책이다(신약 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한기독교서회, 민경식 지음, 176쪽).

성경 신자들의 눈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은 불신자와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사람을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한다. 현재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본문 비평은 실은 천주교회가 종교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도구로서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안에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천주교회의 본문 비평에는 내재된 원칙이 있다. 그것은 곧 후대 사본들에는 필사자들의 실수가 축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래된 사본일수록 성경의 원문

에 가깝다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본문 비평가들은 후대의 사본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수가 훨씬 적은 오래된 사본에 더 많은 신뢰와 권위를 준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본은 바티칸 도서관에 보존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산 동방 정교회 수도원에 보존된 ‘시내 사본’이다. 이것들은 주후 4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초기 교회들이 천주교회의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같은 소수 사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인 본문 사본만을 사용하였고 그 사본이 닳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조심스레 그것을 필사하고 불태워버렸다. 이런 이유로 초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오래된 사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워낙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본들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런 계통의 사본들은 현존하는 사본들의 99%를 차지할 정도이며 유럽과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등의 기독교가 전파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반면에 다음모자 콘스탄틴 황제의 꼭두각시였던 유세비우스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등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바티칸 도서관과 시내 산 수도원에 고이 간직되어 왔다. 또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값싼 파피루스에 대부분의 사본들을 필사하였기에 이것들을 오래 보존하기 어려웠으나 바티칸 사본 등은 벨럼이라는 가죽에 필사되어 장기간 보존될 수 있었다. 개역성경이나 현대 역본들의 각주에는 종종 “더 좋은 사본 혹은 더 신뢰할 만한 사본 혹은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더 좋은 사본’, ‘더 신뢰할 만한 사본’, ‘더 오래된 사본’은 한결같이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을 가리킨다.

학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신학교로 들어온 본문 비평은 19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고,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A. Hort) 박사에 의해 널리 파급되었다.²⁾ 이들은 천주교 사상과 이교주

2) 18페이지 참고.

의, 그리고 독일의 이성주의에 물든 자들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찬양하고 마리아 숭배를 옹호하며 유령 길드 같은 심령술 단체를 만들어 자유주의 이교도 신학을 전파하였다. 이들은 쉐이어(J. H. Thayer)와 스미스(V. Smith) 같은 유니테리언 이단들과 함께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를 조직한 뒤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교묘하게 비평하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론으로 수정 본문을 만들고 여기에 근거하여 1881년에 영국 개역 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을 출간하였다. 이들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근거로 공인 본문을 개정하여 만든 부패한 본문은 보통 '비평 본문' 혹은 '수정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개역성경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그것의 미국판인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역시 1901년에 출간되었으나 성도들에게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한국의 개역성경은 안타깝게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이 신학문으로 추앙받던 시기에 부패한 ASV를 주요 원천으로 해서 번역되었기에 이런 불신 학자들의 잘못된 사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최근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성경들의 근본적인 문제이다.³⁾

3) 이것은 개역성경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이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다. 본 출판사는 애초부터 이런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해 왔으며, 오히려 개역성경의 공헌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은 본 출판사 사이트 KeepBible.com에 처음부터 실린 <우리의 믿음> 중 개역성경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는 「한글개역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며, 「한글개역성경」이 임침성과 간결성 등에서 뛰어나며 특히 성경을 가장 우리말답게 표현했다고 믿는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본문 중 전통적 「다수 본문」과 일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시점에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한글개역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병행하여 읽고,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한글개역성경」이라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공휼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한글개역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과격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하여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님을 믿는다.”

비록 ERV, ASV 등이 실패하였지만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뿌려놓은 성경 의심 사상은 그 이후로 신학문이라는 미명하에 줄기차게 프로테스탄트 신학교들로 파고들어가 지금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학교가 천주교회가 만든 '비평 본문'을 성경 원어 강좌의 본문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학교나 학계에서 설 곳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원어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천주교의 소수 본문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의 이러한 거센 공격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이 지배하는 영어 세상에서 '유일한 성경전서'(The Holy Bible)로 자리를 굳혀 왔다. 이에 마귀는 본문 비평과 학자들의 힘만으로는 성경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이 세상 미디어를 지배하는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R. Murdoch)이 소유한 존더밴(Zondervan)이라는 출판사를 이용하여 1970년경부터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이라는 사역(私譯) 성경을 만들어 냈다.

머독은 하퍼 콜린스라는 세속 출판사를 운영하며 '사탄경'(Satanic Bible)을 출간하고 있고 최근에는 토마스 넬슨 출판사를 매수하여 뉴킹제임스 역본(NKJV)을 출간하고 있다(이름에는 킹제임스가 들어가지만 이것 역시 부패한 성경임). 그는 상업



20세기 폭스 등 150개 매체와 5만 명의 직원을 둔 머독

적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제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많은 광고와 함께 대규모 신학교의 교수들을 집필진으로 활용해 NIV를 홍보하면서 성경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은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미국 성경 시장의 50% 정도를 잠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교회는 배도의 길을 걸을 것이고

마귀가 장악한 천주교회는 계속 득세하여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므로 부패한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계속해서 낚아챌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배도하는 때에 천주교와 또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 역본들의 세력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므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말세에는 천주교가 주도하는 이런 대규모 배도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날뛰고 성경을 변경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구원을 흐릿하게 하며 재림과 휴거와 천국의 소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어도 성경 신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 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영국과 조금 상황이 다르다. 미국/영국은 약 400년 동안 완전한 성경이 독주하다가 19세기 말부터 부패된 현대 역본들이 출간되면서 야금야금 그 세력을 갉아먹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처음부터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개역성경이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겨우 몇 년 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어 이제 막 성경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는 성경만을 믿음과 실행의 절대적 근거로 삼으려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성도들이 성경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개역성경이 가져다준 ‘한국적 기독교’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한 ‘성경적 기독교’가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바른 성경을 한국의 성도들에게 알려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는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지 몇 가지 이유를 기술하고자 한다.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민23:19)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창조물이 아니시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성경 말씀에 대해 무어라고 하셨는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확실히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마무리 하시면서 성경 번개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까지 주셨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빠시리라(계22:18-19).

이처럼 성경 번개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날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만국 공통어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요한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현대 역본들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번개를 옹호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보존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완전한 성경이 적어도 한 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비교해 보기 바란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일단 개역성경을 포함한 현대 역본들은 신약 성경에서만 적어도 13구절을 완전히 삭제하고 이를 ‘없음’으로 표기해 놓았다.⁴⁾ 정직한 독자라면 ‘없음’이 없는 성경과 ‘없음’이 있는 성경들을 비교한 뒤 그것들이 다 같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몇 구절이 빠지거나 단어가 삭제되거나 첨가되어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분석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그들의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금세 알 수 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교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지금 이 시각까지 보존할 수 있는 분이신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분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무에서 유로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죽어 땅속에 묻혀 썩어서 몸의 모든 원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

4) 183페이지 참조

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 몸의 원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나 창조보다는 말씀 보존이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닌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쌓인 편견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검증하면 할수록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모든 단어를 담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역본들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평생을 연구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단 몇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성경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권위로 만들어진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사실이 완전한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현대 역본들은 여러 교파의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이권을 가진 자들을 편집 위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신학과 배경에 맞게, 또한 출판업자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번역하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뜻이 아니라 집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번역이 최종 산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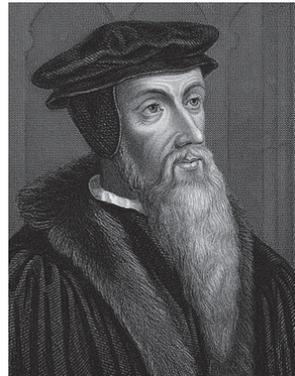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음행’(fornica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며 성도들이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갈5:19; 엡5:3 등). 그런데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부도덕’(immorality)으로 바꾸어 버렸다. 부도덕과 음행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동성애 하는 자들을 ‘sodomites’ 즉 소돔 성에서 동성애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NKJV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비뒤틀어진 자들’(perverted persons)로 애매모호하게 바꾸어 버렸다(왕상14:24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번역하면, 동성애나 음행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

시대에서 성경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없으므로 저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 어들을 바꾸어 버렸다. NIV의 편집자 중 하나인 몰렌코트 박사는 자신이 여성 동성애자임을 온 세상에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성들끼리 혹은 남성들끼리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번역자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신학을 번역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 없었다. 더욱이 번역하는 내용을 번역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수십 번 일일이 검토하였으므로 사적인 번역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제임스 왕 자신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종종 번역을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본인들의 특정 신학이나 사상을 본문에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단지 연약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을 뿐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 전인 156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추종자들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만들었다. 제네바 성경 역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었지만 칼빈의 신정 정치 개념을 여기저기 집어넣어 결국 사적인 성경이 되고 말았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1590년경부터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이 가져간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빈주의라는 비성경적인 사적 해석이 들어간 제네바 성경에 복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들어온 킹제임스 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의 헌법과 정신세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교리적 편견 없이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임을 역사가 보여준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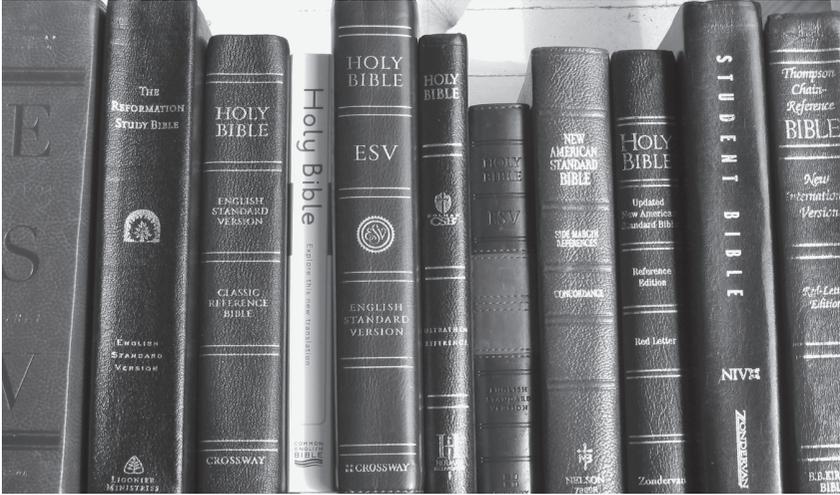
제임스 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초대 영국 왕이 된 사람이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치적이 많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을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 주셨고,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사람들에게 의해 많이 이름이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야고보는 야곱을 나타내는데 이 야곱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경’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3.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성경이다

이것은 실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컴퓨터 시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는 현대 역본들 안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판이 바뀌곤 한다.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등 현대 역본들이 모두 다 이런 같은 과정을 겪었고 개역성경도 수십 차례 변화를 겪었으며 심지어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판도 나오자마자 수차례 판이 바뀌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철자법 변화를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거친 세파를 이겨내며 지금까지 완전한 본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성경이 역사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있었던 말인가?

4.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다 킹제임스 성경만을 반대한다

영어권에서는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 수백 종류의 역본들이 있다. 이런 역본들은 늘 “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다.”라는 광고와 함께 출간된다. 어떤 현대 역본도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략하는 것이 그런 역본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경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그 역본들이 다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사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황은 가만히 보



이름은 Holy Bible이지만 결국 한 종류인 다양한 현대역본들

좌에 앉아 성경 전쟁을 관람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NASB를, 킹제임스 성경의 냄새가 나는 성경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NKJV를, 젊은이들에게는 NIV를, 아이들에게는 리빙 바이블을, 성경을 소설처럼 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의역성경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Amplified Bible)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성경을 보든지,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현대 역본이기만 하면, 마귀나 교황이나 천주교에게는 모두가 남는 장사이다. 번역의 형식과 표현, 겉표지가 다를 뿐 내용은 다 같기 때문이다.

5.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를 이룬 정직한 성경이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상들을 전달해 주신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이것을 사상 영감이라고 말하며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은 성경 보존이란 사실 사상의 보존이며 따라서 번역은 사상만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번역 기법은 유진 니다(Eugene Nida)에 의해 파급된 의역이다. 이들은 대충 뜻만 알아듣게

전달하면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리빙 바이블과 메시지이다. 또한 NIV도 절반은 의역이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그리스어 원문은 '300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는 '1년 치 봉급'이라고 했다. 이들은 NIV의 이런 의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 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NIV의 번역이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는 '1년 치 봉급'이 아니라 '300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들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300 데나리온'이라고 번역한 뒤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무작정 쉽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담은 책이다. 그러므로 그런 단어들 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상들이 아닌 단어들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하여 번역되었고, 수용 언어인 영어가 허락하는 한 원어의 단어와 영어의 단어가 서로 일치되며 문장의 형태까지도 일치되도록 번역되어 원문의 형식까지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다.

원어에서 수용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부가적인 단어들 이 불가피하게 첨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문서를 번역해 보면 누구라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번역을 위해 자기들이 첨가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독자들은 어떤 것이 원어 성경에 있던 단어이며 어떤 것이 번역자들이 첨가한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 기법에 따라 번역되었으므로 독자는 원어 성경이 없어도 원어와 똑같은 형식을 유지하며 축자적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읽고, 그것들을 원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현대 역본들은 첨가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구분하지 않았고 많은 경우 의역되었으므로 독자들은 이런 역본의 단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지 확인할 수 없다.

안타깝지만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 등은 이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단지 어감이나 읽힘성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구절을 짧게 축약하고 의역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바른 신학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우리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직역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존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6.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은 없다

마귀는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온갖 꾀를 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로서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 그분의 출생 이후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 실패하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자 계락을 바꾸어 신약 성경에서 그분의 신격을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귀가 가장 크게 바꿔 놓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그 결과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 예수님의 신성을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

다음 표는 현대 역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약화한 몇 사례를 보여 준다. 이 표가 보여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몇 구절만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라도 쉽게 현대 역본들의 이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이 현대 역본들에서 약화되는 이유는 그것들의 모체인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

경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성경에 큰 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 비교

킹제임스 성경(흠정역)	구절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주 예수 그리스도	행15:11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행16:31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행19:4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롬1:3	삭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5:4-5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16:22	주
주 예수	고후4:10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후11:31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엡3:14	삭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전3:11	예수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8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12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요1:3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누가 완전한 성경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이 성경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드넓은 우주에서 갈 곳을 모른 채 홀로 떠도는 별뿔별과 같고 망망대해를 나침반과 지도 없이 떠도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그스던 박사의 회개 고백

이 글을 마치면서 우리는 NASB를 만든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 사진)의 회개의 고백을 소개하려 한다. 로그스던 박사는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2년간 목회를 한 훌륭한 목사요, 성경학자였다. 그는 자기 친구인 사업가 록크맨(F. Dewey Lockman)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1901년판 ASV를 살려 NASB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여러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번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번역이 완성된 뒤 직접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가 만든 작품인 NASB가 실제로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무기임을 늦게나마 깨닫고 NASB와 관련된 자기의 행적을 회개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제 나는 신미국표준역(NASB)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려 한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우리는 NASB라는 잘못된 성경의 기초를 놓았다. 사실 나는 이 역본의 형식을 결정했고, 번역자들 중 몇몇과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앉아 일했고 서문을 썼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NASB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되어도 매우 많이 잘못된 것이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역본이 발간된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참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들을 비웃곤 했다. 그런데 언젠

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나는 NASB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같은 질문과 비평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반박할 수도 없다. NASB 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참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많았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이같이 변경한 일에 사탄의 속임수와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해 봐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에 나는 곧바로 NASB를 출간한 록크맨 재단의 설립자이자 내 절친한 친구인 록크맨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NASB와 관련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NASB는 참으로 내게 큰 슬픔을 가져다주었고, 큰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나는 NASB와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 내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한 그리스어 본문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으나 지금은 다시 원상 복귀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채 굳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 사실 심히 변경된 그 본문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다. 이제 나는 무디 성경 학교의 학장인 조지 스윙 박사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제 독자께서는 권위 역본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은 성경이라고 말해도 된다. 과연 얼마나 옳을까? 100% 옳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께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가 당신과 의견을 달리한다 해도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서야만 한다. NKJV를 포함한 모든 현대 역본들은 영지주의 이단인 오리겐이 편집한 '부패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계22:18-19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

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변경하였다. 요한계시록은 말세 교회의 예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 주는데 이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이고 음탕한 교회이다(계3:14-22). 궁극적으로 이 배도한 교회는 유혹을 받아 속아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저 음녀, 즉 자주색 옷을 입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채 짐승 위에 타고 있는 로마 카톨릭 체제와 하나로 엮이게 된다. 이런 혼합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말씀을 천주교회의 부패한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우리 눈 앞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을 보여 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수많은 이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천주교회의 일원인 히틀러가 천주교회를 심히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국과 천주교회를 연합시키려 하였고 이 일을 쉽게 이루려고 뮐러 주교(Bishop Ludwig Muller)를 시켜 죄나 은혜 같은 단어들 제거한 독일어 성경을 만들게 하였다. 이 성경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히틀러와 함께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만 가르쳐 주었다. 성경 변경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처음부터 마귀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이브에게 물으면서(창3:1) 의심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살짝 의심을 불어넣은 뒤 그는 새로운 계시를 담아, 먹기에 좋게 보이는 말들을 도입하여 사람을 멸망으로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 이런 유형의 마귀의 계략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귀는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근거로 번역했다는 새로운 역본들을 수백 개나 만들어 여전히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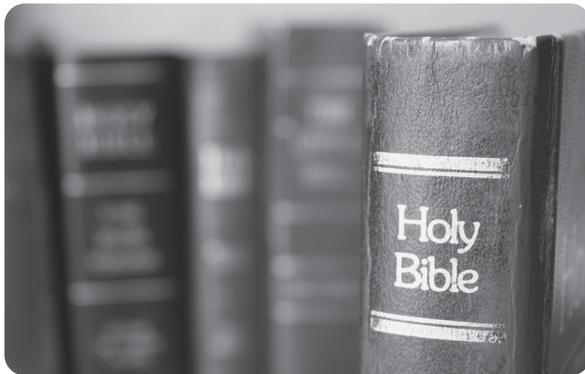
단언하건대 새로운 계시는 없다.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지난 400년간 자신의 모든 말씀들(words)을 보존하셨다.

- NASB 편집위원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주 교회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게 세워 놓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저 랜드마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랜드마크를 물려줄 것이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역본의 종류는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경은 결국 단 하나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וֹהוּ וָבֹהוּ וְרוּחַ אֱלֹהִים
מְרַחֵף עַל מַיִם

히브리어 구약 성경

BIBΛΟΣ γενέσεως
'Ι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βίδ, υἱοῦ Ἀ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 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등적 일치 배제'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
위가 완전히 보존됨**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안내

종교 개혁자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성경, 교회 성장과 부흥을 가져온 성경, 오대양 육대주를 변화시킨 성경, 전 세계 정통 교회들의 표준 성경, 2세기 한국 교회의 표준 성경... 성경 전문 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가 좋은 성경을 소개합니다.

성경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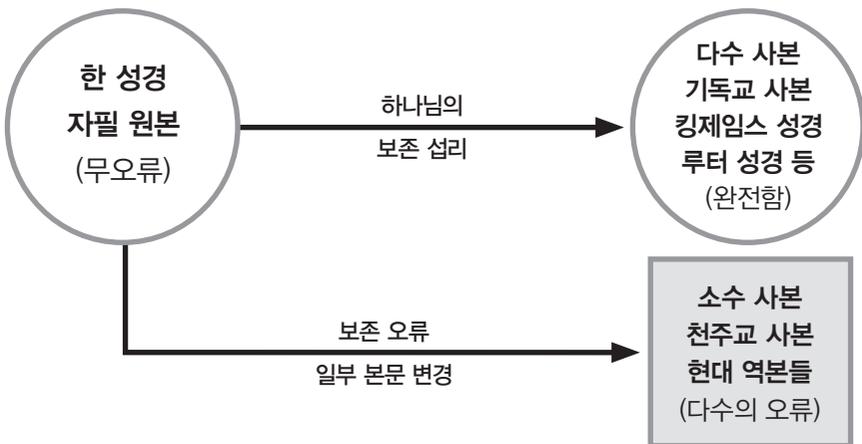
지난 100년 동안 개역성경은 권위체 문장의 웅장함과 간결함, 뛰어난 읽힘성 등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영혼을 살리며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등의 어두운 시대를 거치던 성도들에게 믿음과 안위와 소망을 준 등불이 바로 개역성경입니다. 이런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개역성경은 번역의 근간이 되는 본문과 그 본문을 번역한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벗어난 점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크리스천 믿음의 근간이므로 이 부록에서는 개역성경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고 올바른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역성경 전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것이므로 마음을 열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이처럼 다를까요?

출처	개역성경·NIV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창2:7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시10:5	그(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잠26:22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전1:14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사9:3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나이다.
호10:1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암4:4	삼 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골2:18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한 성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 본문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루터 성경 등 종교 개혁 성경의 본문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과 한글개역성경·표준 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의 본문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Critical Text, CT)이 있습니다. 성경 변경의 챔피언인 이 두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9,970개 단어를 바꾸었고 이로 인해 각종 이단 사상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어 신약 공인 본문과 비평 본문 비교

구분	공인 본문	비평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군데 수정 ▶ 1,952군데 삭제 ▶ 467군데 추가 ▶ 3,185군데 변경
총 페이지 수	647	9,970개 단어 변경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개 단어 변경
변경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경 분량	없음	총 46페이지에 해당함

왜 이 말씀들이 빠졌을까 궁금해한 적은 없습니까?

- 절 번호는 있는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의아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이런 구절이 없었다면 절 번호가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35).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어 갑니다. 그는 성경을 변경시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존 성경에 절 번호만 있고 (없음)으로 표시된 13개 구절

1	마17: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사람의 이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대 역본들과 킹제임스 성경 비교

개역성경,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은 성경 번역의 대본인 '본문'(Text)이 킹제임스 성경과 루터 성경 등의 기초가 된 '종교 개혁 다수 본문'과 다르므로 중요한 교리들에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절	개역성경, 표준 새번역,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하나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JB)과 기독교의 하나님
욥19:26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단3:25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마6:33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8:29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마19:17	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나라.
눅4:41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요9:35	사람의 아들(인자)	하나님의 아들
행4:24	삭제	주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시요
행16:31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롬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고전16:22	주	주 예수 그리스도
고후5:18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갈1:15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엡5:9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빌2:6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3:3	성령으로 봉사하며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딤후3:16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약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요일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요일5:7	삭제(개역성경의 7절은 6절을 둘로 쪼갠 뒤 후반부를 7절로 가져다 놓은 것임)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과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계1:11	삭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14:1 (계14:11 참조)	그 이마에 그(어린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계15:3	만국의 왕	성도들의 왕
구절	현대 역본들의 사탄 마귀	킹제임스 성경과 기독교의 사탄 마귀
신32:33 욥30:29	뱀, 이리, 시랑 등	용
욥41:1	네가...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시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사14:12	계명성(새벽별)	루시퍼
마25:41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행17:22	(아테네의 형상 숭배자들이) 매우 종교적이다.	(아테네의 형상 숭배자들이)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고전10:20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구절	개역성경, 표준 새번역, NIV, NASB 등의 새로운 기독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JB)의 정통 기독교
막10:21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눅4: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후1:14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히3:6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벧전1:22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벧후1:21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막1:14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막10:24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요3:36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요4:24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요6:47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행8:37	삭제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롬5: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롬11:6	삭제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고전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갈3:17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갈4:7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갈5:22	성령의 열매는…충성과	성령의 열매는…믿음과
갈6: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엡3: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골1:2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골1:14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딤후2:7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히3:18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벧전2:2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요일5:13	삭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일9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
계2: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성경 변경: 적그리스도의 뉴에이지 통치 작전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항상 여러 개의 거짓 진리를 제시하다가 궁극적으로 뉴에이지 시대에 자신이 변경한 현대 역본들을 사용해 최종적인 거짓 진리를 제시하며 스스로 하나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그[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2:4).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진리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영감의 기적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 지금 이 시간까지 자신의 말씀들을 섭리로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학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은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으로 지금 보통 사람들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것과 같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보증하는 KJB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시고 지키신 까닭에 성경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순결하게 보존되어 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 부분 제8조 중에서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정확한 본문 -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 에 대한 권위는 결코 현존하는 초판 원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에 대한 권위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는 것에 대해 입씨름하며 서로 다투게 될까 봐 자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역본 성경의 교정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개정된 적이 없는 성경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대본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에 있지도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JB)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순수한 말씀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성경 부록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정 신화: 진리에 대한 오해와 역사의 진실>
 중에서(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혈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혈떡이며 땀을 닦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십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네 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뛩니다.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

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설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먼지 가루를 땅바닥에 놓고 아무리 수억 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게 이루어진 인간이란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온 우주를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진화론은 과학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설과 이론뿐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 문이라(히브리서 3장 4절).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위엄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로마서 1장 20절).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계 부품을 통에 넣고 흔든다고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 같은 창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로마서 1장 21-23절). 인간이 만들어 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은 돌덩어리를 깎고 나무를 새겨서 만든 각종 형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세상에 슬픔과 혼돈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이사야서 59장 1-2절)

인간이 제멋대로 행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AIDS)의 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로마서 1장 27절).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므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 물건을 검사하여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폐기시키는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도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의 지대로 행하면서 창조자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도 존재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면서도 눈앞의 일에만 빠져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설 새 없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이 치닫고 있는 방향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장 27절)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향 없는 인생, 떠돌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고 낫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맣게 잊고 있던 일과 자신도 모르던 마음의 의도까지 낱알이 다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로마서 3장 10-11절). TV나 신문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죄인이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려고 애써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심판을 잊게 해주거나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노력에도 구원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9장 13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자께서 열어 놓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지금 이 글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잇은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태복음 11장 28절).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영존하는 삶의 종착역으로 가는 구원열차를 타십시오!

▶▶ 성경지킴이 www.KeepBible.com

추천 참고 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 대역, 스터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박사 성경, 비교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 분석 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 소책자 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 종교 시리즈 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 교재 시리즈 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 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 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의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 과학 시리즈 1) 테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 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 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지적 설계 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켈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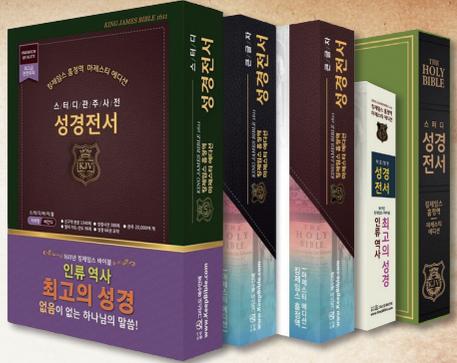
● 기타

1.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저, 정동수 감수, 하온
3.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5.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6.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7.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8. 월명턴 종합 성경 연구 1,2,3 H. L. 월명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9.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빌 길햄 저, 도서출판NCD엔시디
11.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2.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3.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4.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5.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6.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7.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18. 세상을 바꾼 책(KJB 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19. 재림과 휴가: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헨리 모리스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0.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21.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그리스도예수안에
22.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3.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잭슨 외 저, 고정인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4.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5. 칼빈주의 비평 클라우드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26. 침례교회 바로 알기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틴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틴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책.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스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미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카톨릭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친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창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 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천주교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길라잡이 역할, 킹제임스 흥정역 사용자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 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설명한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UFO)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 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긴 은사 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주의 은사 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 숭배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목 외 역

영어 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 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창조 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지은 재림 및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 성경 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 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이 되고 있다. 한영 대역 성경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 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2021년에 출간된 마스터티 에디션(6판)은 약 30년 동안의 번역과 교정의 결과이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 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비교/분석, 사본들의 증거, 역사의 증언, 다양한 비교 자료 등을 통해 독자들은 왜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고 왜 그것을 읽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